

정기총회 자료집



2012년도 정기총회

■ 일시 | 2012년 1월 31일(화) 18:30

■ 장소 | 아모레퍼시픽 4층 강당



경주환경운동연합

<http://gjktem.or.kr>

트위터 @gjktem, 페이스북 gjktem



정기총회자료집 목차

04	정기총회 식순
05	2011년 활동일지
15	김사보고서
21	2011년 사업보고(인)
53	2011년 재정결산(인)
65	2012년 조직구성(인)
69	2012년 사업계획(인)
99	2012년 예산(인)

| 부록 |

117	성명서 · 보도자료 등
119	언론보도로 보는 우리의 활동
151	회원 생활수칙
	정관



정기총회 식순

◆식전행사

■ 1부 | 정기총회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서기지정
- 전차회의록 낭독
- 안건상정
 - 제1안 ▶ 감사보고 안
 - 제2안 ▶ 2011년 사업 및 결산 안
 - 제3안 ▶ 임원선임 안
 - 제4안 ▶ 2012년 사업 및 예산 안
 - 제5안 ▶ 기타 안건
- 폐회

■ 2부 | 다과회

- 녹색회원상 시상
- 다과



2011년 활동일지

[1월]

- 3일 : 시민사회합동시무식
- 6일 : 2011 사업전망 워크숍(집행위+사무처)
- 7일~27일 : 반쪽이의 '고물자연사 박물관' 개막식(유스퀘어)
- 7일 : 기후보호포럼 회의
- 8일 : 회원소모임 디지로그 출사(덕유산)
- 12일 : 회계 및 사업감사
- 13일 :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총회준비위 2차회의
- 14일 : 환경운동연합 전국국처장단회의(환경재단)
- 15일 : 회원소모임 '물한방울흠한줌' 총회
- 18일 : 영산강 행정소송 선고와 기자회견(전주지법)
: 회원소모임 '디지로그'총회
- 19일 :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UEA) 기획위원회 1차 회의
- 20일 : 2011년 정기총회(공동의장 이정애, 임낙평), 아모레빌딩 4층강당
- 22일 : 회원소모임 '모래톱' 총회
: 녹색감시단 정기모임
- 25일 : 사무처 업무분장 워크숍
: 영산강네트워크 운영위원회
: 핵발전소 후보지 철회와 전남도의 행동 촉구 기자회견(전남도청)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위상강화 워크숍
- 26일 : 핵발전소 저지 긴급토론회(NGO센터)
: 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회(대전역)
- 27일~29일 : 어린이 겨울캠프"시계밖에서 놀자"(전북 장수군 하늘내들꽃마을)
- 27일 : 4대강사업 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 회의
: 지구의날 행사준비위원회 기획회의
- 31일 : 대통령사과 및 국가적 방역체계수립촉구 시민사회기자회견

[2월]

- 3일 : 설날
- 6일 : 회원모임 '모래톱' 정기답사(무등산 샘골)
- 7일 : 푸른광주21협의회 광주천, 영산강분과 회의

- : 고흥군의회 원전유치반대 선언에 따른 환영논평
- 8일 : 회원+미디어위원회 회의
- 9일 : 기후보호기금 마련을 위한 아트페어 기획회의
: 무등산공원타당성및 보전관리계획 용역종합보고회 참석
- 10일 : 지구의날 준비 기획위회의
: 상록미술관 환경미술전 준비회의
- 11일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총회준비위 회의
- 14일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단 회의
: 무등산 공원 타당성 용역 간담회(무등산보호단체협)
- 15일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2011 정기총회
: 구제역 토론회
: 푸른광주21협의회 운영위원회
: 북구의제21협의회 평가회의
- 16일 : 푸른광주21협의회 광주천, 영산강분과 회의
- 17일 : 자치구 경계조정 토론회(광주NGO센터)
: 환경교육원 활성화 방안 준비회의
- 19일 :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 19일~21일 : 환경운동연합 전국 활동가 동계수련회(전북 자연환경수련원)
- 20일 : 물한방울 흠뻑줍 정기답사(담양습지)
- 21일 : 광주에너지연대 참여단체 긴급회의
: 북구참여예산제 교통문화분과회의
- 22일 : 환경교육원활성화 방안 준비회의
- 23일 : 영산강 네트워크 2011 정기총회(푸른나주21협 회의실)
- 24일 : 푸른광주21협의회 3차의제 평가 중간점검 간담회
: 북구의제21협의회 2011년 평가보고회
: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25일 :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 MB 3년 폭정규탄 공동행동(시민협 연대)/한나라당사앞
- 28일 : 영광 원전5,6호기 환경영향평가 대응 환경청장 면담

[3월]

- 1일 : 집행위원회 봄나들이 장소섭외 답사

- : 회원모임 '디지로그' 무안출사
- 2일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회
 - : 송대하수처리장 자원화사업소 민원인 간담회
 - : 지구의날 준비위 기획회의
- 3일 : 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정기총회
- 3일~5일 : 환경운동연합 광역총처장단 워크숍(제주)
- 4일 : 기후천사 모임
- 6일 : 모래톱' 정례회의+하천지킴이 교육+모니터링
- 7일 : 광주녹색교통 운영위원회
- 8일 : 화물차 공영주차장 공동대책위원회 전체회의
- 9일 : 회원위원회 회의
- 10일 : 시민협 정치개혁특위 간담회(NGO센터)
 - : 지구의날 기획회의
- 11일 :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 간담회
- 12일 : 푸른광주21협의회 4차의제 준비회의
- 13일 : 디지로그' 섬진강 출사
- 14일 : 영산강네트워크 운영위원회(나주)
 - : 대학생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 16일 : NGO 글로벌포럼 기획팀회의
- 17일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회
 - : 푸른길 도시재생 간담회(시립미술관 분관)
- 18일 : 기후보호포럼 "신재생에너지, 광주전남의 희망인가?" (DJ센터)
 - : 환경통신원' 무등산 산행 및 환경캠페인
 - : 북구청 주민참여예산 심의회 교육 참여
- 19일 : 임원 및 활동가 단합 봄나들이(장성 남창계곡)
- 20일 : 물한방울흠한줌' 농장가꾸기(장성)
- 21일 : 환경운동연합 전국국처장단회의(전국 사무처)
 - : 광주 빛고을 환경도시선언 T/F 팀 회의 참석(시청)
- 22일 : 세계물의날 기념 영산강사랑 실천대회(송정교 둔치)
 - : UEA 민간부문 협력 모색 간담회(푸른광주21 사무실)
 - : 전남도 영산강미래위원회 워크숍(전남공무원교육원)
- 23일 : 주한캐나다대사관관계자환경연합사무실방문간담회
 - : 광주+전남환경연합집행위원회(순천환경연합)

- : 기후강사단교육(회의실)
- 24일 : 집행위원회 자문회의 연석회의
- : 영암호 통신문 규탄 긴급 기자회견
- 25일~26일 : 푸른광주21협의회 운영위원 워크숍(전주 한옥마을)
- 26일 : 세계물의날기념4대강지키기국민행동의날
- 27일 : 놀부마을운동권돼지파티-탈핵사진전및서명운동(운림제마당)
- 28일 : NGO 글로벌포럼 기획팀 회의(전남대)
- 29일 : 광주시민단체협의회운영위원회(NGO센터)
- : 긴급토론회'광주전남은핵발전소로부터안전한가?'(NGO센터)
- 30일 : 푸른길 운동본부 집행위원회 회의(푸른길 기차)
- : 4대강사업 저지 광주전남국민행동 실행위원회 회의(회의실)
- 31일 : 환경운동연합 2012년 대응방안 간담회(전국 사무처)
- : 환경운동연합창립18주년기념식(전국사무처)
- : 푸른남구21협의회 2011년 정기총회(남구청 회의실)

[4월]

- 1일 : 영화상영회 '야만의무기' 상영(5.18재단 대동홀)
-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회(시민협 사무실)
- 3일 : 하천지킴이 강좌 "삶터의 이해 - 강 이야기" 및 광주천 답사
- 4일 : 2011회원배가캠페인발대식(푸른길기차)
- 5일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긴급 운영위원회, 고문 및 대표단 간담회
- 6일 : 영산강 도보 순례(영산강 하구둑)
- : 반핵 캠페인(광주우체국 앞)
- : 기후강사단 교육
- 7일 : 아트페어 추진팀 회의(공동 예술의거리)
- 8일 : 영화상영회/광산구- 동경핵발전소
- : UEA 기획위원회 2차회의(DJ센터)
-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설위원회 연석회의(시민생활 회의실)
- 9일 : 푸른길 기차 2011년 오픈식
- 11일 : U대회선수추천특혜논란토론회(NGO센터)
- 12일 : 한중일 기후보호네트워크 메신저 회의
- : UEA 국제회의팀 회의(DJ센터)

- : 광주시 녹색창조선언 T/F 팀 회의(시청 9층 민원실)
- 13일 : 교육청 기후강사단 교육
 - : 영산강도보순례(승춘보)
 - : 에코아트페어 기자간담회
 - : 전남도 영산강미래위원회 2차 워크숍(광주NGO센터)
- 14일 : 영산강도보순례(담양습지)
 - : 광주호 독높이기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충효동 농협)
 - : 환경운동연합 국처장단 및 4대강 특위 회의
- 15일 : 영화상영회/북구 -동경핵발전소
- 16일 : 수완중학교 에너지 및 광주천 환경교육
- 17일 : 물한방울흠한줌' 농장가꾸기(장성)
- 20일 : 광주시교육청 기후강사단 교육
 - : 광주시민협 민관워크숍 추진위원회 회의(NGO센터)
 - : UEA 전시이벤트 T/F팀 회의(시청 세미나실)
- 20일~27일 : 에코아트페어오픈기념식(롯데갤러리)
- 21일 :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 초청강연회 "원전사고와 시민건강(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 광주시민협 민관합동워크숍 개막식
- 22일 : 지구의날 기념 '지구, 꽃을 피우다' 전시 오픈기념식(상록미술관)
 - : 영화상영회/서구 -동경핵발전소
- 23일 : 41주년지구의날기념행사(평화공원)-사진전시회
 - : 고리원전 1호기 폐쇄 평화대행진(부산 기장군)
- 25일 : NGO 글로벌포럼 기획팀회의
 - :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회의(시청 소회의실)
- 26일 : 체르노빌 25주기 기념 영광 반핵집회 및 교육(영광성당)
- 27일 : 교육청 기후강사단 교육
 - : 전남도 영광원전 광역대책 용역보고회(도청 회의실)
 - : 5.18기념 시도민한마당 행사 준비회의
- 28일 : 광주시민협 운영위원회(민연련 사무실)
 - : 광주호 독높이기 저지 기자회견(광주YMCA 무진관)
- 29일 : 호남대 어등산 골프연습장 사전환경성검토 현장답사
 - : 영화상영회/동구 -동경핵발전소
 - : 광주시민협 정치개혁 토론회

[5월]

- 2일 : NGO글로벌포럼 기획팀 회의(전남대)
- 3일 : 광주시민협 민관워크숍 추진위원회 회의(NGO센터)
- 5일~11일 : 환경미술전 해양사진 및 고래전시회(상록미술관 마당)
- 6일 : 영화상영회/남구 -동경핵발전소
- 7일 : "탈핵과 에너지전환" 워크숍(NGO센터)/에너지정의행동 공동
: 수완중학교 에너지 및 광주천 환경교육
- 9일 : 지방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광주시청 세미나실)
- 15일 : 5.18기념 시도민한마당 반핵버라이어티
- 19일 : "독일, 핵에너지정책의 전환"강연회(NGO센터)/안톤솔츠 조선대학교수
: 영산강 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회(푸른나주21 사무실)
- 21일~ 6월25일 : 광주호 독높이기 저지 천막농성 시작(광주호수생태원 입구)
- 21일 : 쓰레기 제로도시 간담회(미 샌프란시스코시 및 일본)
- 23일 : 전국핵발전소추가예정지주민간담회(대전)
- 24일 : 광주시민협 민관워크숍 추진위원회 회의
- 25일 : 광주호 독높이기사업 타당성 토론회(광주시의회 5층)
: 광주시민협 민관워크숍 도시환경교통분과위 회의
- 26일 : 광주시민협 운영위원회 회의
: 5월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27일 : 푸른광주21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 28일 : 어린이 자연나들이 '콩닥콩닥 꼬마농부'(나주 노안)
: 반핵사진전시회(운림제)
: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서울)
- 31일 : 광주호 독높이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충효동 농협)
: 영산강네트워크 영산강행정협의회 간담회(무안군청)

[6월]

- 1일 : 광주시민협 민관합동워크숍 도시환경교통분과 소위원회 회의
: SWEF모델학교1차회의(봉주초등학교)
- 2일 : 광주시 악취지역 관리방안 토론회 참석(전남대 공대)
: 동아시아 기후매거진 5월호 발행

- :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전시기획 T/F팀 회의(시청 세미나실)
- 3일 : GMO 강좌(권영근)-청소년문화의집
 - :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4개 부대행사 기획단회의
- 4일 : 수완중학교 기후천사 '물GO氣와 일촌맺기' 광주천 교육
- 5일 : 모래톱' 하천지킴이교육 및 광주천조사
 - : 물한방울 흠한줌' 모내기 행사(장성)
- 6일 : 한마음 공동체 장터 반핵사진전시회(첨단 교통공원)
- 7일 : 광주호사업 중단요구 및 항의서한 제출(서울)
- 9일 : 주민참여 예산 심의회(북구청)
 - : 4대강사업 저지 광주전남국민행동 회의(회의실)
- 9일~10일 : 푸른광주21협의회 원주 교류회-RDF 시설 답사
- 10일 : 광주지역시민사회 공동 시국토론회(YMCA 무진관)
- 14일 : 그린피스'레인보우위리워호'와공동으로해상반핵시위(영광앞바다)
- 15일 : 광주시민협 민관워크숍 추진위원회 회의
 - : 광주호 독높이기 저지 회의
- 17일~18일 : 환경운동연합 전국국처장단회의(천안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 18일 : 광주호 작은음악회
- 19일 : 영산강 조사 및 광주호 천막농성
- 20일 : 광주시민협 민관워크숍 도시환경교통분과위원회 회의
- 22일 : 기후변화대응 교육강사 양성교육(초급과정)
- 23일 :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회의(시청 소회의실)
- 24일 : 집행위원회, 자문회의 연석회의 및 세미나(장성 한마음공동체)
- 25일 : 어린이 자연나들이 '콩닥콩닥 꼬마농부'(나주 노안)
- 26일 : 디지로그' 담양 출사
- 27일 : 영산강 소송 심리(전주지법)
 - :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기획위원회 회의(DJ센터)
 - : 푸른길 공원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간담회(시의회)
- 28일 : 광주전투비행장 이전대책위 대표자회의(시의회)
 - : 호남대 골프연습장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설명회
- 29일 : 기후변화대응 교육강사 양성교육(초급과정)
 - : 민관워크숍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NGO센터)
- 30일 : 국내원전안전점검결과발표주민설명회대응(무산)

[7월]

- 2일 : 광주호 작은음악회
: 수완중학교 기후천사 '물GO氣와 일촌맺기' 광주천 교육
- 3일 : 모래톱' 하천지킴이 교육
- 6일 : 기후변화대응 교육강사 양성교육(초급과정)
: 광주시민협 민선1기 광주시장 정책평가 회의
: ngo 글로벌포럼 기획팀 회의(생명의숲 회의실)
: 광주시민협 민관위크숍 도시환경교통분과위 회의
- 7일 :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 실시설계 설명회
: ngo포럼 전문가 기획회의
- 9일 : 황룡강 생태답사교육
- 9일~10일 :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부산 청소년수련관)
- 12일 : 영산강 도보탐사 실무회의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나주)
: 광주시교육청 환경.생태교육 강사단 교육
- 13일 : 기후변화대응 교육강사 양성교육
- 16일 : 광주호 작은음악회
- 18일 :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의 날' 준비회의
: 광주시민협 민관위크숍 도시환경교통분과위원회 소위 회의
- 20일 : 기후변화대응 교육강사 양성교육
: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전시콘텐츠팀 회의(시청 세미나실)
: 푸른광주21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 21일 :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서면보고 대체
: 광주시민협 정책위원회 회의
- 22일 : 기후변화대응 교육강사 양성교육(초급과정) 수료식
- 23일 : 광주호 작은음악회
: 영산강 도보탐사 사전답사
- 25일 : 영산강 홍수피해 실태조사
: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집행위원장 이상돈교수 초청강연회(카톨릭센터)
: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의 날' 준비회의
- 26일 :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메신저회의
: ngo포럼 기획팀 회의(전남대)
: 광주시민협 민관위크숍 추진위원회 회의(ngo센터)

- 27일 : 기후변화 양성교육 수료식
: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 28일 : 광주호독높이기사업중단을위한각계선언및서명운동발대식(YMCA)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
- 30일 : 황룡강 생태답사교육

[8월]

- 1일~5일 : 2011 영산강살리기 대탐사(목포하구연~담양 용소)
- 3일~5일 : 어린이 여름캠프 '시계 밖에서 놀자'(전북 장수)
 - 5일 : 광주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 운영위원회
 - 7일 : 모래톱' 단합대회(장성 남창계곡)
 - 8일 : 히로시마-평양 공동체' 영화 상영회(전대 용봉문화관)
- 10일~11일 : 환경생태교육 담당교사 환경교육 직무연수(무등산)
 - 12일 : 영광원전 출력증강 주민설명회 대응(영광)
: 푸른광주21 4차의제 작성 환경생태분야 간담회
 - 17일 : 에너지의날' 기념 전국 소등행사 및 문화행사(쌍암공원)
 - 18일 : 광주시민협 민관워크숍 추진위원회 회의(시청)
: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기획소위원회 회의(DJ센터)
 - 19일 :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국처장단회의(충남 계룡산)
 - 21일 : 물한방울 흠한줌' 정기답사
 - 22일 : 광주시민단체 협의회 회원단체 단합대회(화순)
: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전시기획 T/F팀 회의(시청 세미나실)
 - 23일 : RDF 최적의 선택인가? 토론회(시의회)
: 에너지의날' 기념 신창지구 호반아파트 소등 및 문화행사
: 환경운동연합 녹색정치포럼 지역 간담회(대전)
 - 24일 : 전남 방사성비상계획 수립용역 주민설명회(함평 엑스포공원)
: 재활용 선별장 광역화 계획수립 연구 자문회의(광발연)
 - 25일 : 광주 도시재생정책 바람직한 방향' 민관워크숍(NGO센터)
: 광주천 수질개선 간담회(시청)
: 8월집행위원회정례회의

[9월]

- 2일 : ngo글로벌 포럼 : PRE-FORUM(ngo센터)
- : 광주야구장 건설 T/F 회의(시청)
- 1일~4일 :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일본 동경)
- 4일 : 영산강 도보답사
- : 물한방울 흙한줌' 가을채소 파종
- : 모래톱' 하천지킴이 교육
- 5일 : 4대강사업 취소소송 항소심 기자회견(전주지법)
- 6일 :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집행위원회 회의(푸른길 기차)
- : 푸른광주21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 7일 :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 재검토촉구 100인선언(YMCA 무진관)
- : 기후천사 초등학교 에너지강사 교육
- :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연대기구 논의 집담회(ngo센터)
- 8일 : 광주시민협 정책위원회 회의(환경연합)
- : 푸른광주21협의회 4차의제 작성 환경생태분야 회의
- 12일 : 추석 대명절
- 14일 : 기후천사 초등학교 에너지강사 교육
- : ngo글로벌 포럼 기획회의
- :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실행계획 보고회(DJ센터)
- 15일 : 광주시민협 민관워크숍 추진위원회 회의
- 16일 : 350캠페인 준비회의
- 17일 : 수완중학교 에너지교육 및 광주천교육
- : 황룡강 생태체험교육
- 19일 : 광주시민협 민관합동워크숍 폐막식
- 20일 : 황룡강 생태체험교육
- 21일 : 기후천사 초등학교 에너지강사 교육
- : 광주매립장 주민지원조례 타당성 토론회 참가(시의회)
- 22일 : 집행위원회, 자문회의 연석회의
- : 350캠페인 참가자 교육(수완중)
- 24일 : 350 캠페인(광주시청 광장)
- 25일 : 어린이 자연나들이(갯벌탐사-신안 증도)
- 26일 : 환경운동연합 총처장단회의(대전)
- 27일 : 한중일 기후네트워크 메신저회의
- : ngo글로벌포럼 시민단체 대표자 설명회

- : 반값등록금 1인시위
- 28일 : 녹색당 창당 가능한가' 워크숍(아모레퍼시픽 4층)
- 29일 : 광주시민협 운영위원회
- : 자원순환교육(봉주초등학교)
- : 광주호독높이기 저지 중단법회(광주호수생태원)

[10월]

- 1일 : 2011 회원체육대회(전남공무원교육연수원)
- 2일 : 모래톱' 정기답사 및 교육
- 5일 : NGO 글로벌포럼 기획회의
- : 자원순환교육(봉주초등학교)
- : 푸른길 농장다리 어번폴리 주민설명회 참가(동명동사무소)
- 6일 : 민관합동 합성세제 줄이기 추진협약
- 7일 : 4대강사업 영산강 죽산보 개방행사 성명
- : 광주시민협 민관워크숍 추진위원회 평가회의(ngo센터)
- 10일 : 광산지역아동센터 에너지 교육
- 11일~13일 :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
- 12일 :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국처장단 회의(광주)
- : 자원순환교육(봉주초등학교)
- 13일~15일 : NGO글로벌포럼"기후변화,에너지그리고식량"(전남대학교,DJ센터)
- 15일 : 수완중학교 에너지 및 하천교육
- 16일 : 물한방울 흠한줌' 정기모임-벼베기
- 19일 : 자원순환교육(봉주초등학교)
- : 영광지역 회원 간담회(법성포)
- 20일 : 10월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 기후보호포럼 '광주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있나?'(ngo센터)
- 21일 : 광산지역아동센터 에너지 교육
- 22일 : 어린이 자연나들이 '섬진강에서 희망걷기'
- : 4대강승촌보개방행사에따른기자회견(승천보입구)
- 24일 : 영산강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성과 평가 토론회(전남대) 참가
- :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성과 보고회(시청)
- 26일 : 자원순환교육(봉주초등학교)

- : 광산지역아동센터 에너지 교육
- : 광주시민협 정책위원회 지방분권 토론회(ngo센터)
- 27일 : 광주시민협 운영위원회
- : 광산지역아동센터 에너지 교육
- : 어린이 자연나들이'우리건강지킴이 콩 이야기'
- : 북구청 주민참여예산 도시교통분과 심의(평생학습문화센터)
- : ngo글로벌포럼 기획팀 평가회의
- : 백운광장 고가도로 처리방향 T/F팀 회의(남구청)
- 28일 : 2012 정치개혁 시민토론회(ngo센터) 참가
- 29일 : 황룡강 문화기행
- 31일 : 광주시민회관 리모델링 설계안 시민심사(시청) 참가

[11월]

- 1일 : 영산강네트워크운영위원회(나주)
- :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운영위원회(광양)
- 2일 : 광산지역아동센터 에너지 교육
- 3일 : 영산강한마당준비소위원회회의(담양)
- : 푸른길가꾸기 운동본부 집행위원회 회의(푸른길 기차)
- : 광산지역아동센터 에너지 교육
- 4일 : 수완중학교축제자연에너지체험마당참여
- : 후원의밤 준비소위 1차회의
- 7일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중간 보고회(시청) 참가
- 8일 :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회의(시청 소회의실)
- : '진보대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ngo센터) 참가
- 9일 : 재활용 선별장 광역화 계획수립 연구 최종보고회 (광발연)
- : 광산지역아동센터 에너지 교육
- 11일 : 후원의밤 준비소위 2차회의
- : 인화학교 대책위 천막농성 참여(터미널 앞)
- 14일 : FTA날치기통과규탄대회(YMCA무진관)참가
- 15일 : 광주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협력체 구성 및 업무협약(시청)
- 16일 : 광산지역아동센터 에너지 교육
- 17일 : 집행위원회11월정례회의

- 19일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회-영산강개발사업 현장 답사
- 21일 : RDF 출자타당성 검토 중간보고회(시청 세미나실) 참가
- 22일 : 자문회의
: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현장심의(사직공원)
- 23일 : 그린스쿨,그린캠퍼스워크숍(ngo센터)
- 24일~25일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2011 영산강지키기 한마당'(담양 청소년수련관)
- 24일 : 에너지절약캠페인-내복입기캠페인
- 25일 : 광산지역아동센터 에너지 교육
: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시국회의(YMCA 무진관)
- 26일 : 환경운동연합전국제9기임원3년평가토론회(서울노티나무홀)
- 27일 : 자연나들이
- 29일 : 동신여중 교사 대상 기후보호교육(동신여중)

[12월]

- 1일 : Change2012광주시민연대창립대회(YMCA무진관)
: 광주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 운영위원회 회의(빛고을문화관)
- 2일 : 2011 후원의밤(조선컨벤션웨딩홀)
- 4일 :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12월 정례회의
- 5일 : 폐플라스틱 고체연료(RPF) 약취 민원 현장조사(담양)
- 6일 : 광주호독높이기실시설계설명회(YMCA)
- 7일 : RDF 출자타당성 검토 최종보고회(시청 세미나실) 참가
- 9일 : 한미FTA 반대 촛불문화제
: 환경운동연합 국처장단회의 및 사무총장, 대표 후보자 정견발표회(서울)
- 10일 : 영산강 진실알기 현장답사
- 13일 : 정책간담회 '광주야구장을 저탄소녹색야구장으로!' (ngo센터)
- 14일 : 남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회의(남구청)
- 15일 : FTA 반대 촛불집회
: 영산강사업 검증 지천사업 대응을 위한 간담회
: 광주시민협 민관워크숍 평가 및 방향 토론회(ngo센터)
- 19일 : 광주시민협 총회준비위원회 1차회의(시민협 사무실)
- 20일 : 광주야구장 건설 T/F 회의(시청)
: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회의(시청 소회의실)
- 21일 : 농업저수지 증고사업 민원- 문수저수지 현장방문

- 22일 : 광주환경운동연합 임원 송년회
- 23일 : Change2012광주시민연대워크숍(ngo센터)
- 27일 : 에너지절약 캠페인
 - : 푸른영암21협의회 회원대상 저탄소 녹색생활 교육(영암군민회관)
- 28일 :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집행위원회 회의(푸른길 기차)
- 28일~30일 : 어린이 에너지캠프 '지구구출大作전, 에너지야 덤벼!'(순천청소년수련원)
- 29일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 및 회원단체 활동가 송년회(에코그린)
- 30일 : 종무식



함께하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감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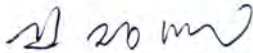
2011년 감사보고서

- 감사일시 : 2012년 1월 18일(수) 18:00~20:00
- 감사장소 : 사무실
- 감사내용 : 2011년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의
사업 및 재정
- 수감자 : 임낙평공동의장, 박미경사무처장, 김춘희국장,
오하라츠나키간사

다음과 같이 감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감사 오 원 만 

감사 김 정 민 

□ 사업부문

- 2011년에 한 해 동안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 저지활동으로 꾸준히 지역 사회에 이슈제기가 있었고, 광주호 독높이기 저지운동은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지 않고 시민사회와 정당까지 아우르며 저지운동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은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운동의 성과임을 치하합니다.

-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정애, 임낙평 의장의 지도력하에 집행위원 및 회원들이 한데 힘을 모아 회원확대 캠페인, 에코 아트페어, 후원의 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가 올해 사업비 확보를 원활하게 하였고, 창립이후 최초로 이월금을 획기적으로 마련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또한 특별사업으로 계획된 NGO글로벌포럼도 지역 환경단체들과 함께 추진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에는 집행위원, 활동가 및 사무국 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에 기인했다는 것을 회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합니다.

- 올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전 세계가 방사능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광주도 가까운 영광에 원전이 6개가 가동되고 있어 방사능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국 환경운동연합의 역사가 반핵운동의 시작지점부터 선두에 서 왔던 것을 상기해볼 때 탈 원전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가장 호기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광주환경연합이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는 반핵영화제, 강연회, 워크숍 및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핵과 원전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용 확산, 에너지 절약 등 대안적 실천운동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탈 원전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세력을 확대하고 조직화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도시 광주에서 반핵운동이 시작하다 만 듯해 아쉬움이 큼니다.

- 한편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양적으로 확대된 한 해였습니다. 초등, 중등 혁신학교와 연계해 환경교육이 연중으로 진행되었고, 사회적 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을 배려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추진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환경교육,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체험환경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마련해 우리 단체가 가장 모범적인 사회환경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임원과 활동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장 선거를 지켜보고, 또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선거를 통해 우리 모두는 SNS의 엄청난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소셜 네트워크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단체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고, 앞서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서 환경운동을 확산하고, 회원과 소통하고, 우리의 녹색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SNS가 자리매김 되도록, 필요한 내용과 시스템을 대비하고 개선해나가는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선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 드립니다.

-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등의 거대 담론에 치중하다보니 지역 내에 환경현장을 만드는 데 등한한 것 같습니다. 폐선부지에 푸른길가꾸기 운동이 있었고, 8 km 길이의 푸른길 공원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슈화 하고 현장을 제시해 운동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바로 보여 줄 수 있는 현안들을 지역사회에 계속 생산해내야 할 것입니다. 지역 현장을 만들어야 회원들도 집주변이나 직장주변에서 쉽게 결합하고 참여해 함께 성과를 만들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그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부문

1. 회계처리의 투명성.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장부는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은 계좌이체와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2. 회원확대를 위한 노력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수입구성은 회비수입, 후원금, 사업비 등입니다. 이 중 회비수입이 전체수입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회비 구성비 70%보다 대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회비 총액은 12,500천원 증가했으나 후원금과 사업비 확보의 증가로 회비 구성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회비수입]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2010년	증감
자동이체	151,137	137,614	13,523
지로납부	4,253	4,128	35
직접납부	455	890	-435
평생회원	0	2,000	-2,000
특별회비	5,060	3,620	1,440
합계	160,905	148,252	12,563

회비수입으로 경상비(139백만원)를 충당하고, 21백만원 정도를 사업자금으로도 활용하는 성장을 이루었고, 미지급금이나 부채없이 50백만원을 이월금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로도 지속적인 회원확대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재원 확보, 근무자들의 복지지원 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사업보고(안)

환경교육

□ 사업목적

- 환경교육의 체계화와 대중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2010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광주지역에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학교환경교육 즉 환경·생태건강 교육분야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이에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기반 마련 및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함.
- 환경교육의 정보와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참여의 기회 확대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풍덩이 어린이 환경학교를 통해 자연나들이, 어린이 캠프, 어린이 에너지교육을 진행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간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후교육, 하천교육, 재활용교육, 초등학교 환경담당교사 직무연수 체험마당 등을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함. 또한, 자원과 환경의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반쪽이와 함께하는 고물전을 연대사업으로 진행함.

□ 사업내용

1. 환경교육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일자 : 2월 17일(목), 22일(화) 2차례 진행

-장소 : 광주환경연합 사무실

-내용 : 환경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준비회의를 진행함.

2. 풍덩이 어린이 환경교육

1)어린이 자연나들이 “생태텃밭과 꼬마 장금”

-프로그램

일시	제목	장소
5/28(토)	콩닥콩닥 꼬마농부 (1)	나주 노안면 유곡리

	-씨앗 뿌리기, 유기농 배 농장 방문	
6/25(토)	콩닥콩닥 꼬마농부 (2) -겉절이 해먹기, 가지 수확하기	나주 노안면 유곡리
9/25(일)	자연의 보고, 생명이 넘실거리는 갯벌로 가자! -갯벌에서 사는 생명들, 소금의 비밀 알아보기	신안군 증도
10/22(일)	가을걷이 섬진강에서 희망걷이 -고구마 수확, 섬진강에서 모래찜질, 동물 알아보기	곡성 가정마을, 섬진강 모래사장
11/27(일)	우리 건강지킴이, 콩 이야기 -두부만들기, 무수확, 마을 탐험	순천 주암면 용오름마을

-내용 : 흙을 직접 만지며 씨앗을 뿌리고 키우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었음.

2) 어린이 겨울캠프 “시계 밖에서 놀자”

-일자 : 1월 27일(목)~29일(토)

-장소 : 장수군 하늘내들꽃마을

-내용 : 자연속에서 자연의 시계에 맞추어 마음껏 뛰어놀며 학원과 학교를 오가며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생명의 소중함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함. 놀이와 함께 몸과 마음 이해하기, 겨울 숲 탐방, 흙집과 장작이 만난 이야기, 눈썰매타기, 청사초롱 만들기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으로 진행됨.

3) 어린이 여름캠프 ‘시계 밖에서 놀자’

-주제 : 자연이 주는 지혜로운 삶 배우기

-일자 : 8월 3일(수)~5일(금) 2박3일

-장소 : 장수군 논실마을학교

-내용 : 자연이 주는 지혜 속에서 우리 생활의 기초인 의식주를 직접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대나무로 집짓기, 간식 만들어 먹기, 천연염색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4) 어린이 에너지캠프 “지구구출 대작전, 에너지야 덤벼!”

-일자 : 12월 28일(수)~12월 30일(금) 2박3일

-장소 ; 순천청소년수련소

-대상 : 광산구지역 어린이 80명

-내용 : 환경체험교육의 기회와 정보제공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반참여자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체험을 진행,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등 생활 속 실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에너지캠프를 진행함.

-주요프로그램:

첫째날/28일(수)	둘째날/29일(목)	셋째날/30일(금)
오리엔테이션/친구와 친해지기 (모듬이름정하기, 장점찾기, 팀별 릴레이)	겨울숲 속 이야기(얼음 속 물소리 듣기, 개울가 바윗속 엿보기,식물의 겨우살이)	모듬별 미션 발표/10평의 땅에 숲을 가꿔라
숲에서 햄버거를 찾아라 -먹을거리와 지구온난화	잔디 위를 나는 비료푸대	건강은 먹는 것에서 시작-채식 뷔페
미션전달/탄소세를 아껴라	동물들의 지구 지키기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영화와 함께 알아보는 지구이야기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센터 탐방
모듬별 미션 (계획세우기, 토론하기)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자 -태양은 청구서를 보내지 않아요 -태양열 키트 만들기	모듬별 느낌정리 및 발표, 기념사진
달마중, 별마중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개떼 축구, 미끄럼타기-	
	환경극/토토,투투 할머니의 이야기 극장	
	신나는 레크레이션	

3. 청소년 및 대학생 환경교육

1) 기후천사팀 교육

-일자 : 3월~11월 매월 1회

-장소 : 수원중학교 및 광주지역

-대상 : 수완중학교 1학년 32명

-프로그램:

일시	주제		장소
3/31	오리엔테이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담당선생님들과의 인사 및 계획논의		실내
4/16 (토)	<지구온난화의 이론>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 기상이변을 통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이해	실내, 실외
		-학교에 있는 나무는 탄소를 얼마나 먹을까? -탄소줄이기 위한 우리의 행동/ 나무심기	
5/7 (토)	<도시숲의 역할>	도시숲과 지구온난화 이야기 도시숲 푸른길 이야기	실내, 실외
		-푸른길 도보답사, 남광주시장답사/ 숲과 도시의 연결 -나만의 작품 만들기/ 자연물로 표현하기	
6/4 (토)	<신재생에너지>	대안 에너지를 찾아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실내
		-지역에너지 기후변화센터 방문 -체험을 통해 알아보는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태양열,동력, 지열 등) -3D영화로 알아보는 에너지절약 -태양광에너지 이용하기 /태양광키트 자동차 만들기	실외
7/2 (토)	<에너지원>	위험한 에너지 알아보기	실내
		-화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등 인류와 지구를 위협하는 에너지 알아보기 - O X퀴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어떤일이?, 토론 - 에너지절약 캠페인 학교 캠페인 진행	
9/17 (토)	<먹을거리와 기후변화>	햄버거왕국에서 숲을 찾아라 오카리나 연주와 함께 하는 기후변화교육	
		-식생활과 기후변화의 관계/영상과 ppt교육 -채식 샌드위치 만들어 먹기, 버섯고기기는 무슨 맛	
10/15	<현장체험>	에너지 자립마을 가능할까?	실외

(토)		견학-신 효천마을 '계량기가 거꾸로 도는 마을'	
11/4 (금)	<결과발표>	축제 때 결과 발표 및 활동전시 재활용 작품 만들기/나비, 거미 만들기	

2) 물고기 하천교육

- 일자 : 3월~11월, 매월 1회
- 장소 : 광주천
- 대상 : 수완중학교 1학년 32명
- 프로그램:

일시	주제	장소
3/31	오리엔테이션/광주천, 프로그램소개	실내
4/16 (토)	나의 물고기 정하기 -물고기 서식환경 둘러보기 -나의 일촌과 이름표 만들기	광주시청뒤 광주천 둔치
5/7 (토)	나의 일촌과 수생식물 -나의 일촌 생활알기 -먹이활동과 서식환경조사 -수생식물 생태세밀화	광천2교 두물머리
6/4 (토)	나의 일촌과 수서곤충 -먹이활동과 서식환경조사 -수서곤충 생태세밀화 -물고기 채집 관찰활동	용산교-소태천
7/2 (토)	나의 일촌과 함께 물놀이 -물놀이, 채집 관찰활동 -물고기 생태세밀화	소태천-원지교
9/17 (토)	나의 일촌과 수달, 새 -일촌을 위협하는 것 -수달, 새, 시설물 -수달과 새 생태세밀화	원지교-남광교
10/15 (토)	나의 일촌 소개하기 -나의 일촌 물고기 만들기 -내가 지켜 줄게-일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하기	태평교-광주교

4. 재활용 교육 /자원순환 이야기 ‘똑딱똑딱 그린공방’

-일자 : 10월 28일(수)~ 11월 2일 (수)매주 수요일 5차시 진행

-대상 : 봉주초등학교 4학년 30명

-내용 :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폐품과 자연물을 활용, 재미있는 만들기 시간을 통해 지구촌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 자원고갈에 대한 이해와 자원의 소중함 등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고민과 실천의식 고취하기 위함.

차시	주제	내용	유형
1	종이를 아껴쓰면 나무가 웃어요	지구를 위협하는 쓰레기, 한사람이 일생동안 쓰는 종이는 나무 몇 그루일까?	이론
		신문지를 먹는 물고기 만들기	체험
2	전자폐품은 지구 몇 바퀴?	전자제품은 어떻게 버릴까요.	이론
		전자폐품이 움직이는 동물과 사람으로 변신	체험
3	자연과 폐품이 만나면..	자연물과 폐품이 만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요	이론
		-땅콩과 콩이 거미가 되요 -과자봉지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신	
4	와~ 너무 많은 플라스틱	플라스틱(재질에 따른 분류)에 대한 분류	이론
		면장갑과 고무장갑의 변신	체험
5	작아진 옷 나눠 입어요	작아진 옷이나 현수막은 이웃도 도와요	이론
		현옷과 현수막을 활용하여 바느질하기 -내가 가장 행복할 때 표현하기-	체험
6	전시회 및 축제참여	교실이나 현관 등에 전시 및 축제 체험마당 참여	실내 및 실외

5. 네트워크를 통한 환경교육

1) 반쪽이의 고물 자연사박물관 전시회 진행

-전시 기간 : 2011.1.7(금) ~ 2. 27(일) 52일간

-전시 장소 :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주 관 : 유스퀘어 문화관

-후 원 : 광주환경운동연합

-내용 : 겨울방학 기간동안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아주 기발하고 재미있는 내용의 작품이 전시되는 “반쪽이의 고물 자연사박물관 전시회”를 염.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회원과 어린이 교육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함.

2) 광주광역시 교육청 환경·생태교육 추진위원회 활동

-일자 : 2월~ 12월

-내용 : 교육청 환경·생태교육 추진위원회 참여, 환경교육 강사단 집중교육 2월23일(수)~24일(목),기후강사 교육/3월~6월 매주 수요일 진행함.

3) 환경·생태교육 담당교사 환경교육 직무연수

-일자 : 8월 10일(수)~8월 11일(목)

-대상 : 초등학교 환경담당교사 40여명

-장소 : 광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무등산 편백 숲

-주관 : 광주교육대학교교육연수원, 광주환경운동연합

-내용 :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현재 사회환경교육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민 또한 깊어가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 환경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의 일환으로 학교사회 연계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사례 발표 및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탐구 학습인 “내 친구 꿈틀이는 어디로 숨었나?” 진행함. 자연현장에서 다양한 생태환경을 접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보물을 마음으로 정해 ‘보자기에 담기, 아름답게 꾸미기, 함께 나누기’ “순서로 아이들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봄

프로그램:

NO	내용	장소
1	서로 인사하기, 일정소개	무등산 편백숲
2	<< 숲속에서 꿈틀이 찾기 >> 1.숲 이해하기 2.오감으로 보물찾기/촉각, 맛, 향기, 소리팀 3.보물카드 작성하기 4.표현활동/말판놀이	
3	이동 및 점심식사	

	<< 물 속에서 꿈틀이 찾기 >>	
4	1.하천에 대한 이해 2.하천의 생태관찰 및 채집 3.표현활동 / 조약돌 물고기 만들기 4.시원한 계곡하천에 발 담그며 느낌 나누기	증심사천
5	주변정리 및 마무리	

6) 에너지교재 보급사업

-일자 : 12월

-대상 : 광산구지역 53개 지역아동센터

-내용 : 에너지절약 인지도서를 구입하여 광산지역 아동센터에 보급,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교재내용 :

학년	내용	비고
1~2	에너지와 놀아요	53개 지역아동센터
3~4	에너지와 친해져요	
5~6	에너지와 함께해요	
중학생	에너지와 우리생활	

※이외 기후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기후변화와 에너지란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지속적 교육을 진행할 “기후변화대응 교육강사 양성교육” 을 통해 양성된 강사들과 함께 광산구지역아동센터 29곳 6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

□ 사업평가

-그 어느 해보다 생태체험을 비롯한 에너지, 재활용, 자원 등 다양한 주제와 대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함. 특히 기후변화와 이상기후현상이 심화되어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에너지라는 주제로 진행한 교육은 참여자의 관심이 매우 높음. 교육을 통해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의식을 고취시킴.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마련되고 특히 재활용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평가가 매우 우수해 이후 다른학년까지 확대되었으며 이후 타 학교와 단체에서까지 교육요구가 이어짐.

-그러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년초 기획된 환경교육원 활성화관련 활동이 준비팀 구성에서 멈추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이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선 환경교육원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계획 대비 평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더하여 에너지, 재활용, 자원 등 다양한 주제와 대상을 위한 교육을 추가로 진행함. 또한, 학교환경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진행 학교환경교육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기반을 만들. 또한 교육정책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환경·생태교육추진위원회 활동, 환경·생태교육 담당교사 환경교육 직무연수 등은 관련기관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진행하게 됨.

-경제적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에너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교재 보급사업의 경우 광주광산구청, 에너지관리공단광주전남 지역본부의 지원으로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어 사업이 추가됨.

□ 과제 및 대안

-앞으로 주 5일 수업제가 본격화되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과의 연계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민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기후보호사업

□ 사업목적

- 기후변화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민개개인의 노력과 적응을 요구할 뿐 기후 친화적 도시 정책으로의 변화의 속도는 매우 느린 상황임. 이에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자체의 정책 대안을 모색함.
- 전지구적 과제인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 교육 등 시민들의 환경과 기후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함.

□ 사업개요

- 기후친화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광주전남의 정책을 진단하고 대안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기후보호 포럼을 총 5회 진행하고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속 시민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교육, 캠페인 을 진행함.

□ 사업내용

1. 기후보호 포럼 총 5회 진행

1) 1차 포럼/ 신재생에너지, 광주전남의 희망인가?

-일자 : 3월 18일(금)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참여 : 일반시민 120여명

-내용 :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산업의 미래와 국가정책,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실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광주전남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써의 가치, 일자리확대가 능성, 중점산업으로써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방향을 논의함.

-프로그램:

인사	이정애/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중배/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장
사회	차인수/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
기조 발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과 국가정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광주전남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실태와 잠재력 /문채주(목포대학교 전기공학과)
토론	-임영목/전라남도 녹색성장정책실 국장 -이수열/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회함/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호남지회 회장 -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2) 2차 포럼/ 광주광역시 폐기물 전처리시설(RDF)추진, 최적의 선택인가?

-일자 : 8월 23일(화)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회의실

-참여 : 100여명

-내용 : 소각장의 대안으로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가 많은 RDF 시설을 추진하는것은 적절한 선택인지, 추진과정이나 시설 자체에 논란거리는 없는지를 진단함. 폐기물전처리시설 RDF에 대해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가 많은 시설에 대해 시민에게 알려내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행정
에 요구 함.

-프로그램 :

사회	강인호(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주제발표	광주광역시, RDF 선택의 당위성 / 오순철(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장)
	RDF의 환경적 피해를 고발한다 / 김경준(원주환경연합 팀장)
	RDF 현황과 문제점 / 김종익(목포경실련 사무국장)
토론	김보현/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이성기/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3) 3차 포럼/ 광주광역시 저탄소도시의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일자 : 10월 20일(목)

-장소 : 광주NGO센터 교육실

-참여 : 50여명

-내용 : 현재 광주시는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이행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 전문가, 민간단체, 행정이 함께 모여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감축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가 됨.

-프로그램:

사회	차인수 / 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주제 발표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 프로그램/오순철(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장)
	광주광역시 저탄소정책의 허와 실 그리고 방향/이인화(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온실가스 감축대응을 위한 생활 속 시민실천방안/이한우(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토론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조성용/ 전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강은미/ 광주광역시의원 김광훈/ (준)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4) 4차 포럼/ Green School, Green Campus 만들기

-일자 : 11월 23일(수)

-장소 :광주NGO센터 대강당

-참여 : 50여명

-내용 :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공공시설이자 공간인 학교가 일반건축물이나 공간처럼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있음. 이에 도시의 대표적 공공건축물이자 공간인 학교와 캠퍼스를 저탄소녹색의 현장으로 바꾸어 갈 필요에 따라 저탄소녹색학교와 캠퍼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토론함.

-프로그램:

사회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주제발표	Green School, Green Campus 과제와 전망/이홍주(전남대학교 바이오공학과 교수)
토론	이효원/ 전남대학교 교수
	황승일/ 광주봉주초등학교 환경담당 교사
	김용주/ 전남대학교 GPS 동아리 회장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5) 5차 포럼/ 광주야구장을 ‘저탄소 녹색경기장으로 만들기’

-일자 : 12월 13일(화)

-장소 : 광주NGO센터 대강당

-참여 : 50여명

-주관 :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관리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

-내용 : 광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이던 광주야구장의 기본 설계안이 확정됨에 따라 설계안 도출이전부터 광주시민들은 광주야구장 건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광주야구장이 시민참여로 건설되기를 표명해 왔음. 이에 광주야구장의 기본 설계안을 통해 시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광주광역시의 환경정책 방향 중 최대 지향목표인 “저탄소 녹색 도시” 를 위해 광주야구장을 친환경경기장, 저탄소 경기시설로 건설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프로그램:

사회	이인화/조선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주제발표	광주야구장 기본 설계안 설명/ 전진곤(공간 건축 소장)
	친환경분야 설명 - 손원득(EAN 테크놀로지 이사)
	시민참여와 친환경 경기장의 국내외 사례/조동범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토론	건축분야/손승광(동신대학교 건축과) 건축분야/김홍식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분야/이순미(나무심는 건축인 모임) 신재생에너지/차인수(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 NGO/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NGO/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NGO/이기훈(지역문화교류재단 사무처장) NGO/김경일(광주생명의 숲 사무처장) NGO/박미경(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광주시/이 연(광주시 체육진흥과장)

2. 기후변화대응 교육강사 양성교육

-일자 : 6월22일(수)~7월22일(매주 수요일 진행)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회의실

-참여 : 광주시민 25명 수료

-내용 : 기후변화, 신재생, 에너지절약, 국제환경 등 이론교육 8강, 현장교육 1강으로 구성 진행함. 교육이후 매주 화요일 공부모임을 통해 지속적 활동을 모색하고 광산구지역아동센터 대상 에너지교육 진행에 참여함. 현재 기후변화관련 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보호 운동에 참여하고 있음.

-프로그램 :

날짜	시간	구분	내용	강사
6/22 (수)	3	개강식	교육과정 소개 및 참가자 인사나누기 격려말씀	이종배(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역센터장)
		여는 강의	한국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 -후쿠시마 교훈-	김혜정 일본원전사고비대위원장
		이론	지구촌 「기후위기」 이해 및 기후변화 충격	이인화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6/29 (수)	3	이론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과 신재생에너지-	차인수 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토론	에너지 위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춘희
7/6 (수)	4	현장	에너지 제로마을 가능한가? -녹색에너지체험관, 조대 그린빌리지-	-기후변화센터 정용균 -김광훈
7/13 (수)	3	이론	광주시 기후변화 대응시책 -기후친화적 도시를 위한 광주시의 정책 및 노력-	신광조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론	기후보호도시로의 전환 -기후보호 시범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	조진상 동신대 도시,관광계획학과
7/20 (수)	3	이론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	이한우 광주전남기후변화센터 부장
		이론	기후위기사대 에너지혁명을 위한 시민행동	임낙평 광주환경연합 의장

3. 기후변화와 에너지교육

-일자 : 10월 10일(월) ~ 11월 16일(수)

-대상 : 광산지역아동센터 29곳 600여명

-주관 :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에너지관리공단 지역본부

-내용 : 광산구지역아동센터 (용아,침단,송광,월곡, 운남, 은혜, 빛과소금, 그루터기, 푸른솔, 하남은광, 새싹, 하나교육문화, 비전, 평동, 즐거운, 목련, 디딤돌, 비아미래, 해피존멘

토, 늘사랑, 해오름, 산정, 보배, 수완, 행복나눔, 수완숲, 월계, 월곡사랑, 미래) 등 29곳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그림과 영화, 게임을 통해 지구온난화와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 프로그램

주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효과의 개념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세계의 여러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 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념과 원리 종류를 알 수 있다. 		
영역유형	강의 및 토론활동, 현장체험활동		
참여대상	초등학교	활동장 소	실내 및 실외
교육시간	실내 80분	참여강 사	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교육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변화의 이해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의 재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PPT 활용교육 2) 지구온난화 극복방법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위기의 극복, 실천을 통한 에너지절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ppt 교육 -지구를 지키는 동물이야기/ 영화 3) 놀이를 통해 심화학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플러스 놀이상자 /팀별 운영 		
준비물	노트북, 빔프로젝트, 스크린, 에너지플러스 놀이상자, 기후변화관련 영화		

4. 350캠페인

-일시 : 9월 24일(토) 오후 13:00~16:00

-장소 : 광주시청 광장

-참여 : 전남대학교, 광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수완중학교, 일반시민 등 250여명 참여

-내용 : 현재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 392ppm으로 매우 위험한 단계, 지구 안전을 위해 최소 350ppm으로 낮추자는 전세계적 실천운동인 350캠페인에 참여함. 특히 캠퍼스의

주인인 대학생과 중학생이 지구온난화와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 이후 준비위원회를 구성, 캠페인에 참여함. 또한, 온라인 카페 (cafe.daum.net/350gwangju)를 개설 시민들과 활동을 공유하고 일상 생활 속 350캠 페인 활동에 있어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함.

-프로그램:

NO	목차	내용
1	광주천을 자전거로	광주천 원지교에서 시청까지 50여명이 자전거를 타면서 350캠페인을 전개함.
2	우리들의 무대	참여한 사람들의 장기 자랑 - 태권도올동, 노래자랑 등
3	인사말	지구를 지키는 시민들의 약속 '350캠페인'
4	350을 위한 우리의 약속과 요구	지구를 지키기 위한 광주시민의 약속 그리고 요구 '7개의 약속 7개의 요구'
5	퍼포먼스	'350' 인간 글씨쓰기 퍼포먼스
6	가두행렬	광주시청에서 출발, 평화광장 한바퀴
7	마무리	마무리 인사

5. 공공대여자전거 세척 및 정비

-일자: 총4회(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6월15일(수),7월14일(목)

-하반기: 9월17일(토),10월7일(금)

-장소 : 광주지하철1호선 19개역

-주관 : 광주에코바이크(준), 광주환경운동연합

-내용: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위하여 CO2의 주범인 승용차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분기별(상반기, 하반기) 지하철역에 설치된 공공대여자전거를 세척하고 정비함. 이는 자전거활성화는 물론 지구온난화 방지와 건강지킴이로서도 작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

6. 에너지절약 캠페인

1)1차 캠페인 -내복입기 캠페인

-일시 : 11월 24일(목)11:00~ 12:30

-장소 : 지하철 상무역 역사내 그리고 세종아울렛 앞

-참여 : 반딧불이 유치원 40명, 선생님 5명, 일반시민 10명 총 55명이 참여함.

-내용 : 날씨가 추워져 에너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홍보,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으로 진행됨. 내복을 입으면 실내온도를 3℃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에너지 절약은 물론 그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함.

2) 2차 캠페인-에너지절약 캠페인

-일시 : 12월 27일(월)14:00~15:00

-장소 : 롯데백화점 정문 앞

-참여 : 기후천사팀 및 환경연합 10명

-내용 : 백화점 방문 고객 및 거리에 있는 시민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대란을 대비한 생활속 에너지절약 실천의 필요성과 적극적 실천방법 등을 홍보함.

7. 광주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 협력체 구성 및 협력사업 업무협약

-일자 : 11월 15일(화)

-장소 : 광주시청

-참여 : 광주광역시청, 광주MBC, 광주매일신문,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교육대학교, 광주환경운동연합

-내용 :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언론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대학, NGO를 망라한 강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참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고자 함. 또한, '단순 알리기' 를 지양하고 구체적 실천 활동을 통한 '직접 참여' 캠페인으로 추진하기 위함.

□ 사업평가

-지속적 활동을 함께 모색해 나갈 기후변화교육 활동가가 양성되었고, 그 기반으로 650여명에 이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에너지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음.

-기후보호포럼을 통해 많은 단체와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계획보다 많은 포럼을 진행함으로써 광주시, 관련 유관기관, NGO,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은 물론 다양한 정책을 생산해 냄. 특히 '광주야구장 지붕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자고 제안' 이 후 광주시에서 실시설계에 반영키로 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세계적인 실천운동인 350캠페인을 처음으로 전개, 기획단계에서부터 중학생부터 참여하는 준비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일반시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가 될 수 있게 함. 이를 통해 대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일반인 등 250여명에 이르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 또한, 지역의 유치원과 연계, 내복입기 캠페인과 에너지절약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형태의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이후 지속적 연대활동의 기반이 마련됨.

□ 계획 대비 평가

-기획된 프로그램 외 기후변화교육강사 양성교육, 어린이에너지교육, 350캠페인, 에너지절약 캠페인 2회, 공공자전거 정비 4회, 광주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 협력체 구성 및 협력사업 업무협약 등의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기획된 사업보다 많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 특히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남. 그러나 기획된 기후투어 프로그램은 예산마련의 어려움으로 진행하지 못함.

□ 과제 및 대안

-행정 부서, 의회, 전문가, NGO 등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의 경우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토론이 단순한 토론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결국 이것이 시정책으로 반영되거나, 시민실천으로 나타나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선 연결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속적 활동을 모색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350캠페인의 경우 이후 지속적인 시민 실천운동으로 승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형식의 행사가 아닌 일상적 생활 속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1년내내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구의 날]

□ 사업목적

-2011년 지구의 날 41주년을 맞아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미술제 진행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전문작가와 일반시민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작품으로 표현하고 작품을 통해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개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미술전 ‘지구 꽃 피우다’ 전과 어린이 재활용 공방 및 고래 사진 전시회, 기후난민 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아트페어전을 진행함.

□ 사업내용

1) 지구의 날 기념 환경미술전 “지구 꽃 피우다”

-전시기간: 4월 16일 ~ 6월 5일

-전시장소: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및 야외

-주 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환경운동연합

-작 품 수: 50여점

-참여작가: 총 8명

-내 용: 41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온난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미술작가의 작품과 시민이 함께 지구의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전시

2) 어린이 재활용 공방 및 고래사진 전시회

-일자 : 5월 5일(목)~5월 11일(수)

-장소 : 광주시립미술관 상록미술관 앞마당

-대상 : 어린이 및 성인 300여명

-프로그램 :우리의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지구촌의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어렸을때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를 통해 자원절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함.

NO	항목	내용
1	대형고래 모형전시 및 고래 사진 전시	17M 크기의 대형고래모형 전시,고래모빌 만들기
2	재생에너지 전시	재생에너지 사진전, 태양광조리기를 이용한 메추리알 삶기
3	그린공방 및 체험마당	요구르트병을 활용한 핸드폰걸이 만들기,돌 물고기 액자만들기, 풍선아트

3) 제41주년 지구의 날 기념 광주행사 ‘1,454,636 광주시민 초록행동’ 참여

-일자 : 4월 23일(토)

-장소 : 광주시청 앞 평화공원 차 없는 거리

-내용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한 국내외 탈핵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의 날을 맞아 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대안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를 위한 사진전을 진행함.

□ 사업평가

-미술과 사진, 재활용 작품 만들기 등 문화예술을 매개로 시민들에게 지구의 날의 의미, 우리의 실천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었음. 특히 후쿠시마 핵폭발로 인해 탈핵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을 때 핵에 대한 정보와 폭발로 인한 문제를 알리는 핵관련 사진전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킴.

□ 계획 대비 평가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문화, 예술인들과 함께 환경,문화,예술 축제로 진행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기획된 프로그램을 모두 진행함.

□ 과제 및 대안

-지구의 날 행사가 주로 체험행사에 머물고 있어 주제에 따른 적극적 실천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기획 집행할 필요가 있음.

[국제연대 활동]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운영사업-

□ 사업목적

-한중일 3개국 기후환경NGO 네트워크 사무국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의 네트워크 운영사업의 체계를 잡고,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한중일 3개국 NGO간의 협력 기반 마련
-각국의 기후변화정책, NGO 활동과 성과등을 공유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3개국 상호 협력

□ 사업개요

-한중일 3개국어로 3개국의 기후환경정책과 NGO활동에 대한 공유를 위해 온라인 매거진을 발행하고 공동의 캠페인과 입장 발표를 통해 한중일 3개국 공동의 입장과 활동 펼침

□ 사업내용

1. 동아시아기후매거진 발간 및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회의(온-오프라인 회의)

1) 한국 기후네트워크 회의

-일자 : 9월 3일(일본 동경 올림픽센터), 10월 4일(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 12월 31일(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참여: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춘희국장, 정찬대간사,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지연,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노승조실장, 환경운동연합 이세걸국장

-회의 진행 : 메신저 및 오프라인 회의

2)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회의

- 일자 : 2월 21일, 4월 8일, 7월 13일, 8월 12일, 10월 26일, 12월 9일(온라인 메신저 회의) 9월 3일(일본 동경 올림픽센터, 오프라인회의)

- 참여: 한국 /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춘희,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노승조,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

: 일본 /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히로세토시아, 박매화

: 중국 / 환우과학기술센터 리리, 오동건

2. 동아시아 기후매거진 발간(연 3회, 웹용, 한중일 3개국어)

1) 개요

- 발행일 : 2월 창간준비호, 5월 1호, 10월 2호 발간

- 언 어 : 한중일 3개국어

- 발행방법 : PDF 파일로 제작하여 이메일 등 웹을 활용하여 배포

- 배포단체 : 한중일 기후, 에너지관련 단체 등 1000여곳

2) 발간내용

- 창간준비호 : 이름뿐인 녹색성장, 원전후보지 선정 갈등, 단체소개, 날씨이야기

※ 한국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하여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한중일 NGO에 시범적으로 배포함

- 1호 : 일본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 중국 이상기후, 한국 방사능피해 등 3개국의 에너지, 기후현안을 중심으로 함.

- 2호 : 배출권거래제, 탈원전 가능성, 녹색성장촉진법 등 3개국의 기후정책 비교

3. 동아시아기후보호포럼 개최

- 일자 : 9월 2일(금) ~ 3일(토)
- 장소 : 일본 동경 올림픽센터 및 사이타마현
- 참여 : 한중일 3개국 30여개 단체 활동가
- 주최 :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한국 광주환경운동연합, 일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중국 환우과학기술센터)
- 내용

특별보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보고」 - 미즈다 칸나(후쿠시마지역 시민단체, FoE 일본기후변동 담당)
	「3·11사고로 알게 된 일본의 모습」 - 타나카 유(田中 優 환경운동가)
공동 발표 및 토론	에너지 안전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전환 및 향후 과제
	저탄소 동아시아를 향하여
현장답사	사이타마현 바이오매스 발전 사례

□ 사업평가

- 한, 중, 일 기후, 에너지 NGO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연대의 기반과 신뢰를 구축하고 9월 '기후보호포럼' 을 통해 한중일 기후,에너지 활동가가 함께 모이고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기후매거진을 통해 한중일 3개국의 기후, 에너지 이슈에 대해 공유할 수 있었음.
- 그러나 한중일 3개국 기후네트워크의 정착을 위한 첫해의 활동으로 기후매거진의 발행 횟수가 당초 계획의 절반(6회 계획-> 3회 발행)에 그쳤으며 3월 일본 핵발전소의 폭발로 인해 기후, 에너지운동의 변화와 단체 사무실의 이전(지진피해 등)으로 활동이 불안정했음.
- 지구의 날 공동행동은 4월, 아프리카 등지의 민주화운동 등으로 중국 정부의 NGO활동 압박 등으로 중국내 공동행동이 어려워 9월 '동아시아기후보호포럼'에서 공동행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9월 현지 사정으로 인해 공동행동 진행이 이뤄지지 못함.

□ 계획 대비 평가

-기후매거진 발행이 일본과 중국 등의 관련단체 사정으로 제때 원고 취합이 어려워 계획한 발행횟수 6회에서 3회 발행에 그침. 또한, 기후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의 날 및 공동캠페인의 경우 중국정부의 NGO 활동 압박, 일본의 핵발전소 폭발로 인한 사정으로 활동자체가 어려워 공동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함.

[핵없는 사회 만들기]

□ 사업목적

- 신규핵발전소 후보지(고흥, 해남, 영덕, 삼척) 일방적 지정철회 및 저지
- '핵발전소=핵폭탄' 라는 핵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탈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성확보 등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사업개요

- 신규핵발전소 후보지 지정철회 및 저지를 위한 지역 및 전국단위 연대활동 전개
- 후쿠시마 핵사고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탈핵의 필요성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핵을 바로 알기 위한 강연회 등 진행

□ 사업내용

1. 신규핵발전소 후보지 철회투쟁

고흥과 해남은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반대입장 표명으로 일단락됐으나, 삼척과 영덕은 유치를 희망함에 따라 지난 12월 23일 후보지로 선정됐다. 2012년 정치일정들과 맞물려 후보지 철회뿐만아니라, 전국민적인 탈핵요구와 저지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1) 핵발전소 후보지 철회요구 기자회견 및 간담회

- 일자 / 장소: 1월 25일 / 전남도청
- 내용: 전남도에 신규 핵발전소 부지 철회를 위한 도차원의 행동 촉구와 고흥-해남대책위 등과 향후 투쟁방향에 대한 간담회

2) 핵발전소 후보지 철회를 위한 긴급토론회

- 일자 / 장소: 1월 26일 / NGO센터
- 내용: 고흥과 해남지역 대책위의 현황보고와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

3) 경과

- 2010년 11월 26일: 한수원 핵발전소 유치신청 공지
- 12월 10일: 핵발전소 건설저지 해남군민연합 창립총회. 18시. 해남YMCA
- 1월 19일 4시, 해남군의회 원전반대 입장발표, 한수원 후보지선정 유감
- 2월 7일: 고흥군의회 핵발전소 후보지 반대성명
- 12월 23일: 삼척, 영덕을 신규핵발전소 후보지로 선정

2.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대응

1)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관련 논평

- 일자: 3월 15일
- 내용: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폭발사고에 대한 위로와 함께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방사능에 대한 대비와 대응 촉구

2) '광주전남은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한가' 긴급토론회

- 일자 / 장소: 3월 29일 / NGO센터
- 내용: 후쿠시마 사고가 미치는 영향, 영광원전의 안전성 및 사고대응에 대한 점검을 주제로 김승평(조선대 원자력공학과교수), 김혜정(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주제토론

3) '방사능 비 맞지 마세요!' 거리 캠페인

- 일자 / 장소: 4월 6일 / 충장로
- 내용: 후쿠시마사고이후 방사능과 방사능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거리 캠페인

4) '원전사고와 시민건강' 시민강좌

- 일자 / 장소: 4월 21일 / 아모레 퍼시픽
- 내용: 후쿠시마사고이후 일본을 방문한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의 현지답사와 방사능의 영

3. 탈핵을 위한 활동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이후 핵발전소와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핵발전소와 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캠페인과 강연회 등을 진행했다. 핵발전소의 잠재적 위험성과 탈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 '야만의 무기' 영화상영회 및 체르노빌 사진전

- 일자 / 장소: 4월 1일 / 5.18재단 대동홀
- 내용: 불안핵폐기장 투쟁과정과 핵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상영 진행, 부대행사로 체르노빌 사진전 진행

2) 지구의날, 체르노빌행동주간 사진전

- 일자 / 장소: 3월 29일 / NGO센터
- 내용: 후쿠시마 사고가 미치는 영향, 영광원전의 안전성 및 사고대응에 대한 점검을 주제로 김승평(조선대 원자력공학과교수), 김혜정(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주제토론

3) '핵없는 사회로 나가는 길' 탈핵강연회

- 일시 / 장소 : 5월 7일 / NGO센터
- 내용: '에너지전환' 과 함께 핵폐기를 위한 로드맵과 독일의 탈핵과정에 대한 강연회 진행
- 4) 광주전남 방사선수치 상승에 대한 성명
 - 일시: 5월 11일
 - 내용: 광주전남지역 등의 방사선수치가 평상시보다 높게는 10여배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상 수치에 대한 해명 요구
 - : 당국은 강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기기고장이라는 해명
- 5) '반핵버라이어티'
 - 일자 / 장소: 5월 15일 / 금남로
 - 내용: 5.18시도민한마당에서 진행한 반핵관련 사진전 및 퍼포먼스, 영화상영, 길거리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6) 안톤솔츠 탈핵강연회
 - 일자 / 장소: 5월 19일 / NGO센터
 - 내용: 독일인인 안톤솔츠(조선대 독어독문과) 교수로부터 독일의 탈핵과정에 대한 강연
- 7) 탈핵요구 해상 반핵 시위
 - 일자 / 장소: 6월 14일 / 영광해상 및 레인보우위리어호
 - 내용: 그린피스 '레인보우위리어호' 의 영광 방문에 맞춰 '핵없는 한국' 캠페인과 영광핵발전소 앞 해상시위 진행
- 8) 종합병원 방사선량 측정
 - 일자 11월 21일
 - 내용: 핵관련 블로거 임복래씨와 함께 방사능 측정기로 종합병원 2개소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진행함. 기기 및 건물로 인한 방사능 유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들로부터 10여배 이상의 방사능이 측정됨. 방사선치료 환자에 대한 관리 대책 필요

4. 영광핵발전소 대응 및 연대활동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출력증강을 반대를 위한 영광지역 단체와의 연대구축

- 1) 체르노빌 사고 26주기 문화제
 - 일시 / 장소: 4월 26일 / 영광성당
 - 내용: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과 체르노빌 26주기 문화제와 '동경핵발전소' 영화상영회 진행

2) 영광원전 안전점검 주민설명회 저지

- 일자 / 장소: 6월 30일 / 영광 한전문화관
- 내용: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안전점검 진행과 결과통보에 대한 문제제기와 주민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안전점검단 구성을 요구하며 주민설명회 무산

3) 영광원전 출력증강관련 영광군의회 원전특위

- 일자 / 장소: 7월 26일 / 영광 군의회
- 내용: 영광군의회 원전특위가 영광원전 본부장을 출석시켜 출력증강에 대한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음. 영광군의회는 출력증강반대를 천명하고 있음.

4) 영광원전 출력증강 주민설명회 저지 및 출력증강 반대 성명

- 일자 / 장소: 8월 12일 / 영광 한전문화관
- 내용: 한수원은 출력증강을 위한 전제조건인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려함. 영광원전 출력증강에 반대하는 3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설명회 무산

□ 사업평가

- 반쪽의 승리와 조직적 성과와 후속조치 한계
: 고흥과 해남지역의 핵발전소 후보지 철회투쟁은 유치반대를 이끌어 냈으나, 삼척과 영덕이 후보지로 최종 결정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승리로 일단락되었으나, 조직적 성과와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 탈핵에 대한 시민적 공론화 미흡
: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아직 핵발전소의 축소 및 점진적인 폐쇄에 대한 시민적인 공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 광주전남 지역네트워크 구축필요
: 핵발전소의 문제를 행정구역 단위로 사고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핵안전성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지역 핵안전 네트워크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지속적인 탈핵 및 핵안전 시민교육
: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핵안전 교육을 진행했으나, 지속적이지 못했다.

□ 과제 및 대안

- 광주전남 탈핵 및 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의 구성
- 핵안전을 확보하기 요구하는 시민적 요구안 마련과 핵사고시 시민행동지침과 방재 매뉴얼
-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영산강개발사업대응

[4대강사업 대응]

□ 사업목적

- 각 계와의 연대 협력을 통한 4대강사업 중단과 복원
- 4대강사업으로 표출되고 있는 토목개발의 극단적 폐해에 대한 사회 공론화와 대안 발굴
-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 조사와 대책 촉구
- 사회적 합의, 민주적 절차 등 민주주의 회복과 생태적 가치 제고 및 확산

□ 사업개요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참여 단체를 비롯 각 계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시민 답사, 현장고발, 토론, 기록 등을 통해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을 촉구해 나감
- 2011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 속도전 공사로 부실과 주민피해 발생. 이에 대한 대응활동 전개
- 정부가 말하는 사업 목적에 따른 평가가 아닌, 일방적 홍보에 집중한 정부, 막대한 예산으로 선전, 홍보, 행사 추진에 따른 대응.
- 정부는 4대강사업 후속으로 지천사업을 확대할 예정. 이에 대한 대응 모색

□ 사업내용

1.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조직 운영 - 간사단체

- 기간 : 연중
- 내용 : 4대강사업 저지활동 위한 각 계와 연대 및 조직화. 간사단체로서 제 단체의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 내고, 연대를 강화함. 4대강사업 대응을 위한 지역민, 지역단체 조직화. 각 계와의 협력 구조를 지속해 나감.

2. 영산강 홍수 피해 조사 등 현장조사 사업

- 일자 : 5월 28일~29일(토,일), 6월 22일(수), 7월 24일~25일(일,월), 11월 19일(토), 12월 10일(토) 및 수시

- 장소 : 영산강 사업 현장 (담양습지~하구둑)
- 내용 : 영산강 준설과 보 공사로 변화된 하천지형으로 인해 지천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지천을 포함한 영산강 본류구간을 조사함. 정부가 대책으로 말하는 하상보호공 등을 포함 현장 상황 그리고 피해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함. 생명의 강 연구단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고 정부측대 대책을 촉구함. 또한 홍수기에는 수시로 영산강 현장의 변화와 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현황을 발표하여 여론에 알림. 본류구간의 과도한 준설로 역행침식, 두부침식이 심각히 일어나고 있고, 지천과 수로 합류부 침식이 심함. 저수호안, 둔치 등이 무너짐 현상 반복, 복구를 하더라도 다시 무너짐 반복되고 있음. 재퇴적도 논란이 됨. 2011년말 준공목표로한 속도전공사와 무모한 준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 진행함.

3. 4대강사업 평가 및 지류지천 사업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간담회(토론회)

- 일시 : 12월 15일(목) 오후 4시
- 장소 : 광주NGO센터 강당
- 내용 : 정부는 4대강사업 후속으로 지류지천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4대강사업과 유사한 지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그리고 4대강사업의 조사결과 등의 현황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지천지킴이, 시민사회단체들 참여로 개최함. 지류지천사업에 대한 문제점 주제발표는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 영산강 사업의 현황과 문제 발표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국장,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음

4. 정보 홍보 선전에 대한 대응

- 일자 : 10월 8일(토), 10월 22일(토) 오전 11시 등
- 장소 : 영산강 승촌보 등
- 내용 : 4대강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없이, 정부의 일방적 홍보전이 전방위로 실시됨. 특히 죽산보와 승촌보 개방행사를 막대한 혈세를 들여 진행함.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의 대응활동 진행 함

5. 4대강 사업 소송

- 일시 : 연중_ 1월 18일(화) 오전11시 1심 결심, 1월 28일(금) 항소, 9월 5일(월) 오후 4시 항소심 첫 변론
- 내용 : 4대강사업국민소송단을 조직하여 4대강사업 중단 및 본안 소송 시행. 중단

소송은 대법원 기각 판결로 종료. 보안소송건은 1심 결과 패소.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취소 청구의 소 및 피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2009. 7. 1.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23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는 등의 판결이 1월 18일 내려짐. 패소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후 항소함. 9월 5일 항소심 첫 기일. 문서제출 명령 등 자료 보완, 현재도 소송 소송중임. 워크숍 등을 통해 문제점 알리고 토론하는 활동 병행(전국단위)

6. 영산강 피해조사

- 일자 : 1월 26일(수), 2월 28일(화), 3월 15일(화), 5월 6일(금), 5월 19일(목) 및 상시
- 장소 : 영산강 공사 현장과 인근 농지
- 내용 : 1월 26일 물고기 떼죽음_ 영산강사업 6공구 서창교과 극락교 사이, 수심확보를 위한 육상준설과정에서 설치한 가물막이에 갇힌 수백마리 물고기들 폐사사고. 수량부족과 탁수로 인한 산소부족 그리고 적은 수량에서 급격히 하강된 기온으로 인한 폐사로 추정. 물고기 집단 폐사는 4대강사업이 생물종들에 대한 보호나 보전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당시 9월 완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속도전으로 강행되던 과정에 발생. 현황을 언론에 알리고 성명 발표, 업체와 정부측에 해결촉구함. 준설토 토양검사 요구. 2월 지하수 고갈로 농가 피해_준설과정에 하천수위 하강. 이로 인근 농경지 지하수위 하강 문제 발생. 지하수를 이용하는 인근 미나리농가 피해 발생, 5월 19일 준설로 인한 수위하강으로 양수장 가동장애 문제가 발생. 이에 대한 조사후 성명 발표. 업체와 정부측에 해결을 촉구. 상수도관 파열, 차량침수 등 사고 다발 발생. 지속적 조사 활동. 지하수고갈로 농가 피해 부분은 현재도 진행중

7. 영암호 통선문, 영산강 인근 골프장 추진 등 영산강개발 대응 활동

- 일자 : 3월 22일(화), 11월 24일(목)
- 내용 : 영산강 뱃길을 위한 영암호 통선문 설치를 요구하는 전남도, 최인기 국회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 성명, 부당 내용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함. 영산강하구둑 혹은 영암호 방조제에 통선문을 요구하는 것은 영산강 수질개선과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 사업임. 통선문 공사비만으로 수백억 혈세가 소요될 영암호 통선문이 관광활성화,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 없는 내용임.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 역할을 해야 할 지역 정치인, 행정수장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고 사업업 부당성을 알림.

8. 기타

- 일자 : 3월 1일(일), 4월 6일(목) ~ 15일(금)
- 장소 : 승촌보, 하구둑 ~ 담양습지
- 내용 : 종교계의 4대강사업 중단과 강 복원 촉구 기도회, 순례에 참여 및 지원.

원불교 주최 생명의 강을 위한 기도회가 3월 1일(일) 승촌보 인근에서 열림. 시민사회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참여함.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4대강사업 저지천주교연대 주최로 영산강복원다짐 도보순례가 영산강 하구둑에서 담양 습지까지 진행됨. 환경연합을 비롯 시민사회단체도 일일 순례 등에 동참함.

□ 사업평가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간사단체로서의 활동 평가.
- 2008월 말 4대강사업 시작을 알리고, 2009년 마스터플랜 확정, 각종 절차 생략 및 축소 진행. 2010년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현안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음. 사업 저지운동에서 시작된 현안이 공사가 본격화와 마무리 단계 접어들면서, 사업저지와 중단을 위한 연대체의 협력구조가 상대적으로 약해졌음. 하천살리기 조직과 단체나 환경단체 중심으로 현장조사 등 구체적 평가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성과이나, 우리지역 단체들의 참여와 연대활동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졌음. -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 등으로 영산강사업현장문제를 적발하여, 4대강사업 문제를 이슈화 시켰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이 활발했음. 물고기떼죽음, 흙탕물 방류, 양수장피해, 상수도관파열, 지하수위 저하 등의 문제를 비롯한 역행침식, 재퇴적 현장 문제를 조사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 성과가 있었음.

□ 계획대비 성과

- 4대강사업 공사에 따른 문제 현장 고발 등의 활동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시민적 관심 등은 전년에 비해 후퇴했음. 4대강사업이 마무리 되어 간다는 패배의식을 극복할 시민답사 토론회 등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음. 향후 보완 추진해야할 과제가 됨

□ 과제 및 대안

- 4대강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연대 협력구조를 재 강화
- 이미 진행된 사업은 저항운동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즉 실패로 끝난 싸움이라는 시민 인식을 경각하고, 부당한 사업의 폐해를 지속 고발하여 하천 복원 촉구 운동으로

전환시켜야 함.

- 향후, 4대강사업이후 평가 및 복원촉구활동을 준비하고 난개발과 지천사업을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연대와 협력구조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하여 향후 이같은 토목식개발사업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복원과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방안 모색 에 힘써야 함.
- 4대강사업은 당론으로는 반대라는 정치인들이 지역사회에서는 4대강사업(영산강사업)을 옹호하고 사업을 키우고 있음. 이를 평가 심판하는 활동 필요.

[광주호 독높이기 저지운동]

□ 사업목적

- 정부는 4대강사업일환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을 강행함. 갈수기에 영산강 본류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광주호 독높이기는 제당 2.1m 상승. 만수위는 약 3m를 상승시키겠다는 계획임. 201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 속도전 사업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 이로 무등산 광주호 인근 가사문화, 정자문화권 등의 문화유산과 경관이 훼손이 되는 문제가 발생. 독높이기는 부당성을 알리고 중단을 목적으로 활동함. 독보강 여수토 보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함.

□ 사업개요

- 시민사회, 문화단체, 정당 등이 참여하는 ‘광주호독높이기저지연대’ 를 구성, 참여 단체 등 각계와의 연대체를 구축하여 독높이기의 문제를 알리는 성명발표, 기자회견, 문화제, 토론회, 시민답사, 현장고발, 토론, 기록 등 4대강사업 광주호독높이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을 촉구해 나감

□ 사업내용

1. 광주호 독높이기 저지연대 조직운영- 간사단체 역할

- 일시 : 4월~ 현재
- 내용 : 광주호독높이기 중단을 위한 각 계와 연대 및 조직화. 간사단체로서 참여와 활동

을 이끌어 내고, 연대를 강화함. 정당, 문화계 등 각 계와의 협력 구조를 지속해 나감.

2. 광주호 독높이기 문제와 대안에 대한 토론회

- 일시 : 5월 25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실(5층)
- 내용 : 광주시의회 4대강사업반대 특별위원회, 광주호 독 높이기 저지 연대가 공동으로 ‘광주호 독높이기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김신중교수(전남대 국어국문학과)의 ‘광주호 인근 무등산권 역사문화 자원의 의의와 독높이기가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한 발표. 조오섭시의원(특위 위원장)의 사회로 이성기교수(조선대 환경공학과), 강은미 광주시의원, 김익주소장(경담연구소), 최지현사무국장(광주환경연합)의 토론이 있었음. 토론회를 통해 광주호 독높이기의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였음. 문제점을 알리고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음.

3. 광주호 독높이기 중단 천막농성

- 기간 : 5월 21일(토) 오후 3시 발대식 ~ 6월 25일(토) 오후 3시
- 장소 : 광주호 호수생태원 앞, 왕버들나무
- 내용 : 광주호 독높이기 중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광주호 독높이기 저지연대 참여 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함. 일일 서명운동 병행, 찬성 주민들의 방해 협박 등도 있었으나, 제단체들과 책임과 역할을 나누어 천막농성 진행함.

4. 광주호 독높이기 중단 문화제

- 일시 : 6월 18일(토) ~ 7월 23일(토) 매토요일 오후 4시, 5시
- 장소 : 광주호 호수생태원 앞
- 내용 : 광주호 호수생태원과 인근 왕버들나무 등에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찾고 있음.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작은 음악회를 매 토요일 오후에 진행함. 가수와 지역인사들이 참여함. 문화제를 통해 연대 활동 단체들의 결속을 다지고, 4대강사업 농어용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의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인식 공유함. 광주호 독높이기의 영향과 문제점을 문화제를 통해 공감할 기회를 만듦.

5. 광주호 독높이기 중단 서명운동

- 일시 : 7월 28일(목) 오후 2시 (발대식) ~ 10월
- 내용 : 광주호 독높이기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동참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함.

상시 진행함. 천막 현장 등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함.

6. 광주호 독높이기 중단 100인 선언

- 일시 : 9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주YMCA 무진관
- 내용 : 광주전남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광주호 독높이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100인 선언에 서명하고 9월 7일 기자회견을 가짐. 농어촌공사측에 전달.

7. 광주호 독높이기 중단 시민대회

- 일시 : 6월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 광주호 호수생태원 앞
- 내용 : 광주호 독높이기 중단 천막농성을 40여일 진행하고 천막농성 마지막 날 시민대회를 개최함. 국회의원을 비롯 정당인, 시민, 단체 회원들이 참여함.

8. 광주호 독높이기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법회

- 일시 : 9월 30일(금) 오후 2시
- 장소 : 광주호 호수생태원 앞
- 내용 : 광주호 독높이기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법회를 광주전남 전법단 소속 스님들과 함께 진행함.

9. 기타

- 주민공청회, 간담회, 기자회견, 성명발표 등을 통해 독높이기 부당성을 알리고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함.

□ 사업평가

- 연대를 통해 독높이기 중단활동 전개함. 시민 관심과 여론 확대 성과 있었음. 그러나, 반대 주민들이 찬성으로 돌아서고, 반대운동을 압박하는 등의 갈등도 발생함.
- 결과적으로 정부는 연말에 애초 계획 2.1m 증고에서 1.6m 증고 계획으로 수정함. 그러나 독높이기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물의 양, 수위 상승 정도 등은 변화가 없음. 반대여론을 의식해 축소하는 것이긴 하나, 부당한 계획은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 정부는 4대 강사업의 일환인 만큼 독높이기를 취소않겠다는 입장을 고집. 독보강 수문보강을 통해 홍수조절 효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독을 높이지 않고 현재의 재원으로 수위 조절을 통

해, 즉 물 수요 관리로 대안을 낼 수 있다는 주장과 활동 전개 필요

□ 과제 및 대안

- 독 높이는는 본래 계획보다 축소되긴 했으나, 거의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대로 추진되고 있음. 농어촌공사측은 반대와 우려여론을 반영하여 수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위를 높이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하나, 애초 사업결정에서부터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당성, 비합리성, 반민주적, 반문화적 내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님. 4대강사업의 폐해가 지천 상류, 문화유산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한 평가와 수정을 요구하는 활동 지속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영산강 수계지역 환경단체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기구.

회원단체: 광주환경연합, 녹색전남21, 그린장성21, 생태도시 담양21, 목포환경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주암호 보전협의회, 푸른광주21, 푸른목포21, 푸른무안21, 푸른영암21, 광주전남녹색연합, 푸른화순21

1) 운영위원회 회의- 월 1회

2) 세계물의날 기념 “영산강 사랑 실천대회”

- 3/22(화). 광주 송정교. 1천여명

3) 제6회 영산강살리기 대탐사 “물길따라 마을따라”

- 8/1(월)~5(금). 목포청소년수련원 집결해 영산강 하구에서 상류로 탐사. 100여명

4) 영산강 답사 “영산강 사업 현장조사”

- 11/19(토). 영산호저층수배제시설 현장, 죽산보· 승천보 및 광주호 독높이기 현장

5) 제3회 영산강 한마당 “자연과 생명이 함께하는 영산강”

- 11/24(목)~25(금). 담양 청소년수련관. 300여명

회원조직화 사업

□ 사업목적

- 환경운동의 대중화 및 대중조직화를 위한 회원 확대
- 회원확대를 통해 “회원 중심” 의 조직구조 구축 및 재정 안정화
- 각종 회원 대상 프로그램을 통한 조직 활성화 및 역량 확대
- 각종 회원 사업을 통한 환경이슈의 대중화 및 홍보활동

□ 사업개요

- 전국 회원확대캠페인을 통한 회원배가활동
- 회원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회원 대상 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각종 회원모임 활성화를 통한 회원의 활동참여 기회 확대 및 회원 조직화
- 환경현안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를 이끄는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1. 회원 현황 및 회비현황

<회원현황_2011.12.31 현재>

회원구분	회원수	회비납부 방법	회원수
일반회원(회비:5,000원)	1490	자동이체	1,649 (89.8%)
일반회원(회비:10,000원)			
가족회원(회비:20,000원)	62	지로	49 (2.7%)
단체, 기업회원(회비:50,000원)	12		
어린이청소년회원(2,000원~3,000원)	155	통장/직접납부/기타	138 (7.5%)
평생회원(1백만원/1회이상)	39		
기타	79		
계	1837	계	1837 (100%)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회비/원	13,865,000	12,345,000	13,937,000	13,642,000	12,858,000	14,650,000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비/원	13,473,000	13,190,000	12,831,740	14,145,000	13,002,000	12,967,000
*후원금을 제외한 순수한 회비 총액 : 160,905,740						

■ 회원확대캠페인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나, 그리고 모두를 위한 보험”

-기간 : 4월1일(금)~5월31일(화)

-일시 : 4월4일(월) 회원확대발대식

-평가 : 2010년도에 이어 전국 회원확대 캠페인 형식으로 실시. 광주는 회원확대 목표를 500명으로 설정, 광주의 독자적인 캠페인 슬로건을 “좋기도 참좋은 가입하면 더좋은우리 (1)번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소를 가지세요” 로 하고,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회원을 주거별로 나누어 회원확대 활동을 전개했다. 기존의 임원 및 활동가 중심의 회원확대를 넘어 각 구별 지역에서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한 회원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캠페인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지 못했고 기간 동안 회원 가입자는 불가 75명에 그쳤음. 전국적으로도 회원확대캠페인에 집중하지 못해 2010년도만큼의 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음.

2. 위원회 및 회원조직 사업

1) 집행위원회 및 자문회의

■ 정례회의

: 1월 13일, 2월 23일, 3월 24일(연석회의), 5월 26일, 6월 24일(연석회의), 8월 28일, 9월 22일(연석회의), 10월 20일, 11월 22일, 12월 22일(연석회의)

■ 워크숍

1) 집행위원 및 활동가 단합대회

: 3월 19일(토) 09:00~18:00. 장성 남창계곡 전남대수련원

2) 녹색정치 워크숍

: 6월 24일(금) 19:00~23:00. 장성 한마음공동체

■ 후원의 밤

- 일시 : 12월 2일(금)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 장소 : 조선컨벤션웨딩홀 2층 강당
- 내용 : '초록썩, 광주 물들다' 를 주제로 하여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함. 기후보호 운동의 일환인 350캠페인과 사진전도 병행함. 150여 내외빈과 회원이 참석. 후원금은 31,060,000원, 소요경비는 약 3,000,000원이었음. 상반기에 아트페어전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후원액이 확대된 성과가 있었음.

[지도위원회]

: 연 2회의 보고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제반 현안에 밀려 개최하지 못함.

2) 회원위원회/미디어위원회

- 일자 : 1차 : 2월 8일(화), 2차 : 3월 9일(수), 3차 : 5월 9일(월), 4차 : 9월 8일(목)
- 내용 : 환경운동의 대중화와 조직화, 다양한 회원 대상 프로그램을 통한 조직 활성화와 역량 확대를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와 실행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위원회로, 회원확대캠페인 기획 및 운영, 회원체육대회 기획 및 실무보조 등 회원조직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맡았음. 또,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고민하는 미디어위원회를 회원위원회와 함께 진행했음.

3) 회원모임 운영

<녹색감시단>

- 13명의 회원이 참여
- 택시 운전사를 중심으로 한 회원들의 모임으로 고발엽서를 통한 자동차 매연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현장 감시활동
- 각종 회원사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회원모임 확대 및 활성화로 이끌어가지 못했음.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 회원 20여명 참여. 인터넷 카페에 활동내용 기록 및 공유
- 광주천 모니터링 : 1월 ~ 12월
: 광주천 전구간 대상 모니터. 구간별 담당을 정하여 매월 1차례 이상 모니터 실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후 하천생태 변화에 대한 평가. 개선 및 대안제시 활동

- 광주천 생태문화학교(3월~12월)_수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천환경교육 정기적 실시.
- 하천 및 환경교육 심화교육 참여
- 광주천 4계 사진기록, 광주천 사진전을 위한 사진공모
- 광주천 시설물 현황 조사

<물한방울 흙한줌>

-11년 동안의 생태문화답사와 함께, 농사를 직접지어 내 손으로 재배한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곳에서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지혜를 느껴보는 주말 농장을 진행.

-기존회원 외에 추가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이 늘어 모임 참여자가 늘었음.

-주요활동

NO	내 용
1월	총회
2월	담양습지 답사, 유기농 딸기농가 방문
3월	밭작물 파종 / 가족나무 심기 / 닭장 만들기
4월	옥수수심기
5월	고구마 심기 / 고추, 토마토, 오이, 가지 등 모종심기
6월	감자, 상추, 알타리, 열무 등 수확 / 모내기
7월	풀매기, 상추, 고추, 등 수확 / 1박2일로 진행
8월	풀매기, 각종 채소 수확
9월	김장채소(배추모종,무씨)심기
10월	고구마, 콩, 땅콩, 토랑 등 수확, 쌀 수확
11월	무등산옛길 2구간 걷기
12월	김장

<환경통신원>

-총 72명의 회원이 참여

-버스 운전사를 중심으로 한 회원들의 모임으로 고발엽서를 통한 자동차 매연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현장 감시활동.

-정기모임을 통한 유대강화, 각종 회원행사에 다수 참여했고, 지속적으로 회원확대에 기여했음.

<사진반 디지로그>

- 총 18명의 회원이 참여
- 사진을 매개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보존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기록하고 알리는 활동 전개
- 매주 1회 공부모임과, 매월 1회 정기출사 진행
- 푸른길 및 광주천 사진기록 작업

NO	내용
1월	총회, 덕유산 설산 1박2일
2월	제주 한라산,
3월	섬진강, 해남 송호리 1박2일
4월	마이산
5월	섬진강 장구목, 남광주시장, 폐선부지 푸른길공원
6월	광주호 바람소리 모델촬영, 화순 둔동마을, 앵남역 인물촬영
7월	선유도 1박 2일
8월	영암 월출산
9월	보성 삼베 1박2일, 350 캠페인 참여, 강원도 홍릉 소나무 숲
10월	고흥 다랑이논, 선운사 단풍, 담양 만남제, 경북예전 회룡포
11월	국사봉

3. 회원만남행사 및 회원참여 프로그램

1) 반핵영화 “동경핵발전소” 상영회

-일시 및 장소

구	일시	장소
광산구	4/8(금) 19:00~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북구	4/15(금) 19:00~	광주 북구 문화의집
서구	4/22(금) 19:00~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동구	4/29(금) 19:00~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남구	5/6(금)	봉성동 고백교회

-평가 :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핵에너지에 대한 위험

성과 그 대안에 대한 관심과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핵”에 대한 경고를 쉽고 재미 있는 언어와 배우들의 코미디적인 연기로 전하는 영화 “동경핵발전소”를 광주지역에서 순회 상영했음. 5주에 걸쳐 상영한 결과 참가자가 분산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각 지역마다 회원 및 일반인들과 함께 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데 일정정도 효과가 있었음.

4) 2011 전국회원대회 “태양과 바람 -핵없는 세상을 꿈꾸다”

-일시 : 7월9일(토)~7월10일(일)

-장소 : 부산 일대

-평가 :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회원 약 500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운데, 각 지역 조직의 활동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4대강사업 대응활동, 탈원전과 대안에너지로의 전환활동에 집중할 것을 결의하는 회원총회를 개최. 그 위에도 부산 일대에서 반핵 퍼포먼스 및 반핵평화거리행진을 진행했음.

5) “히로시마 평양” 영화 상영회

-일시 : 8월8일(월)

-장소 :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4층

-평가 : 북한에 사는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찍은 다큐영화로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함께 원폭피해를 통해 핵의 위험성을 호소하는 영화. 부대행사로 반핵 사진전, 일본인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를 언급하여 참여한 회원과 시민들에게 핵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일조했음. 각종 단체와 공동주최로 진행.

6) 회원체육대회 “ 함께 놀자, 독하게 놀자, 하나되는 우리 ”

-일시 : 10월1일(토)

-장소 : 전남공무원교육원 잔디운동장

-평가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원과 회원, 회원과 사무처 간의 유대감 형성과 동시에 회원의식 향상을 목표로 하는 회원대상 참여 프로그램으로, 약 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즐겁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 행사 진행.

4. 홍보사업

1) 회보 ‘밝은삶 맑은터’ 발행 및 발송

-기간 : 1.2월호, 3.4월호, 5.6월호, 8월호, 9월호, 10월호, 11월호, 12월호

-내용 : 광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과 회원소식을 알리는 소식지로 발행. 5.6월호까지 격월로 발행했으나, 8월호부터 회원서비스 확대와 우편요금 삭감을 위해 월간지 '함께사는길' 부록 형태로 매일 발행했음. 소식지 규격과 형태에 대해 향후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

2) 월간 '함께사는길' 구입, 발송

-기간 : 1월~12월 총12회

-내용 : 환경운동연합 부설 '함께사는길' 편집국에서 발행하는 월간 환경전문지를 월1만원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중 구독을 원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발송함.

3) 웹메일 발송

-기간 : 연중, 월2회 발송

-내용 : 활동소식 및 활동계획을 회원에게 알리고, 환경현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회원들에게 매월2회를 원칙으로 발송.

□ 사업평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회원에게 핵의 위험성과 동시에 반핵과 대안 에너지에 대한 제시를 위해 영화상영회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에너지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일정정도 회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음.

-다양한 회원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회원조직화와 조직 역량 확대에 여전히 성과를 이끌어낼 수 없었고, 기존 프로그램 진행에 머물렀음.

□ 계획 대비 성과

-회원위원회 재구성을 통한 회원 조직화 사업 활성화를 도모했음. 회원확대캠페인과 회원 체육대회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전개했으나, 회원대상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확대에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음.

-미디어위원회 구성을 통해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새로운 홍보방법을 모색했으나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음.

-회원확대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했음

□ 과제 및 대안

-환경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활동에 대한 공감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회원사업 개발 및

실천

- 각종 회원모임,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활동참여 기회 증진
- 소셜네트워크 이용확대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생태도시만들기사업

[주민생활 환경위해요인 대응활동]

□ 사업목적

-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과정 등에 적극 관여하여 견제와 감시를 통해 친환경적인 도시-광주를 견인해 나감
- 유해환경 개선 생명안전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함

□ 사업개요

- 주민생활 환경위해요인 분석 및 대응활동 : 도시 녹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활동, 개발에 대한 감시활동, 유해폐기물에 대응해 생태문화도시를 위한 활동 전개.

□ 사업내용

1. 광주시 쓰레기 중간처리시설(RDF) 설치 대응 : 광주시가 생활쓰레기를 에너지원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RDF 시설을 설치하는 절차를 진행. 최초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하겠다고 발표해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다가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함.

1) 원주 RDF 시설 답사

- 일자 : 2011년 6월 8일

2) 토론회

- 제목: 광주광역시 폐기물 전처리시설(RDF) 추진, 최적의 선택인가?
- 일시: 2011. 8. 23.(화) 14:00~16:00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5층 회의실
- 내용: RDF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RDF시설의 반환경적 실태를 원주 시설을 통해 알려 광주시가 RDF 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를 토론함.

※사회- 강인호(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주제발표 1) 광주광역시, RDF 추진의 당위성 / 오순철(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장)

주제발표 2) RDF의 환경적 피해를 고발한다 / 김경준(원주환경연합 팀장)

주제발표 3) RDF 전국적 현황과 문제점 / 김종익(목포경실련 사무국장)

토론- 김보현(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이성기(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2.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작성과 현장조사 활동

- 1) 호남대, 어등산 골프연습장 / 5월
- 2) 광주 서창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고향의 강 실시설계 / 4월
- 3) 영광 대마농공단지 조성계획 / 5월
- 4) 화정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 5월

3. 생활주변지역 환경위해요인 조사 및 주민 대응 지원

- 1) 나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부지 형질변경 주민반대 갈등 / 1월
- 2) 본덕동 시설하우스 지하수 오염 / 1~3월
- 3) 담양군 수북면 RPF시설 가동으로 인한 지역주민 악취피해 / 12월
- 4) 구례군 토지면 문수저수지 독높이기 사업 주민반대 갈등 / 12월

□ 사업평가

- 주민들의 환경민원에 대한 대응활동으로 현장 답사와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활동으로 주민들 환경피해 구제와 환경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임.
- 지역적 사안이어서 광역 현안으로 확대하지 않음.
- 지역주민들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지원요구 받고 있으나 대응하는 민원마다 필요한 전문성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자문팀 구성이 쉽지 않음. 그러나 전문가들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푸른길가꾸기사업]

□ 사업목적

- 푸른길을 통한 도시재생
- 시민자치관리 토대구축

- 폐선부지운동의 전국화 제안
- 푸른길 전구간의 완공

□ 사업개요

-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 폐선부지운동의 네트워크 구축과 전국폐선부지 현장 답사를 통한 지원입법 추진
- 남광주푸른길과 도시철도 2호선의 중첩문제 해결로 푸른길 조성 마무리와 시민참여관리체계 구축

□ 사업내용

1. 푸른길주변 도시재생 프로젝트

- 일시: 3월~12월
- 광주시와 광주발전연구원 등과 함께 푸른길주변 도시재생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등 진행
- 국토해양부 활력증진사업(5년간, 100억규모) 확정
- 푸른길운동본부가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계획

2. 푸른길 식생-시설물 조사

- 일시: 7월 ~ 12월
-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푸른길 조성이후 식생 및 시설물 현황조사
- 푸른길시민참여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

3. 푸른길 관리조례 제안 및 시민참여관리 체계

- 일시: 6월~12월
- 시민참여관리의 법적인 근거마련을 위한 관리조례 초안을 제안(손재홍 시의원 배당)
- 공원 및 녹지관리의 시민참여관리 전국 최초의 사례로 추진 중

4. 전국 폐선부지 현장답사

- 일자: 10월~12월
- 폐선부지의 푸른길로의 조성을 지원하는 법제안을 위한 현장답사 및 지역조직과의 연대 틀 마련
- 부산 동해남부선, 여수 전라선, 양평 중앙선, 정선 정선선 폐선부지 현장답사 및 지역조

직과의 연대

5. 남광주 푸른길 조성

- 일시: 1월~12월
- 2011년 3월 착공이후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결정 등이 늦어짐에 따라 공사중단 상태였으나,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과 건설방식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승인함에 따라 2011년 12월 착공, 2012년 8월중 완공예정

6. 어반폴리

- 일시: 1월 ~ 12월
- 계획 3개소중 농장다리 1개소 설치중
- 설치장소에 대한 협의 및 방식에 대한 협의 등 진행
- 농장다리 어반폴리의 재질(코르텐강)로 인한 건강 및 안전성 문제제기

□ 사업평가

- 푸른길주변 도시재생 및 생태문화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도가 부재
-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토대가 되는 관리조례의 신속한 제정이 요구됨.
- 푸른길내 시설물 난립(어반폴리, 운동기구 등)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시민참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미비

□ 과제 및 대안

- 도시재생관련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 푸른길 식생 및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 필요
- 푸른길공원내 추가 설치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광주천 살리기 운동

□ 사업목적

-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 이후 생태변화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올바른 하천복원 방향 제시
- 하천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하천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주민이 주체가 되는 하천살리기 전개
- 하천지킴이 활성화와 역량강화. 네트워크 및 연대 강화
- 하천개발 및 유지유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댐 개발 등에 대한 대응활동과 대안 모색

□ 사업개요

- 광주천지킴이 모임 모래톱이 주축이 되어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이후 생태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평가하고 광주천의 문제와 과제를 분석, 풀뿌리단체들과 연대하여 하천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책제안활동을 펼쳐나감. 하천지킴이 양성 및 확대. 그리고 연대를 모색하고 도심하천 살리기에 대한 활동 폭을 확대해 나감.

□ 사업내용

1. 광주천 정기 모니터링.

- 기간: 2월 ~12월 매월 한차례 이상.
- 장소: 광주천 상류~ 영산강합류점
- 내용: 광주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하천 정비사업이 종료된 이후, 광주천의 변화와 주민들의 이용 실태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광주천 전 구간에 대한 생태현황 등 조사하고 기록함. 평가, 광주천 현재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전개

2. 하천지킴이 활성화 및 양성 교육

- 일자: 3월~11월 매월 첫 번째 일요일 오전 실시
- 장소: 광주환경연합 교육실 및 광주천과 영산강 현장
- 대상 : 광주지역 하천 지킴이 모임 회원 대상 30여명
- 방법 :

- 하천 지킴이 모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내용을 수립함.
- 하천 지킴이 회원들과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하천현장활동과 함께 교육을 실시함.
- 하천지킴이 회원들이 함께하여 하천해설, 정화활동, 조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하천활동의 역할과 방법을 공유함.
- 하천 교육 자료집을 제작함(현장활동 교육자료)

- 내용 :

구분	강사	교육주제	장소
제 1강 (3월 13일 10시~12시)	장미정 (환경교육센터 실장)	환경교육의 실제 및 이해	환경연합 교육실
제 2강 (4월3일 9시~12시)	박철웅 (전남대학교 교수) / 이채연	- 하천과 문화 - 샤프터 이야기 _ 강 이 이야기	환경연합 교육실, 광주천
제 3강 (5월 8일 9시~12시)	최종욱(수의사)/ 홍기창	발자국 등 흔적으로 알아 보는 하천 동물	환경연합 교육실, 광주천
제 4강 (6월 5일 10시~12시)	이병님	하천모니터링 실습	광주천
제 5강 (7월3일 10시~12시)	고재근 (영산강물환경연구소)	하천 어류 채집 및 생태 알기	광주천
제 6강 (11월6일 10시~12시)	함순아 박사	하천 저서생물 채집 및 생태알기	광주천
특별수업1 (9월4일 9시~12시)	최지현	영산강 분류 답사	영산강, 황룡강
특별수업2 (10월2일 9시~12시)	박태규, 김희련 (화가)	세밀화그리기	광주천 함평잡월드미술관

□ 사업평가

- 하천 심화교육사업을 통해, 풀뿌리 환경지킴이 모임의 활성화와 하천 보전 및 지속적 인 환경감시 등의 일꾼 역할 기대됨 . 그러나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회원 중심으로 교 육이 진행되고, 타하천 지킴이 참여가 예상보다 미흡했음. 지속적 교류와 활동공유로 건강한 풀뿌리 하천지킴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필요. 우리 단체 소 모임 역량과 인적 확대도 필요함.
- 광주천 하천 현황 자료 구축, 하천모임들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정책에 수립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의 기초자료로 활용기대. 참여회원들이 지속적 조사, 기록을 하 고 있어 광주천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구축은 성과라 할 수 있음.

□ 계획대비 성과

- 하천 및 환경 교육에 대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향후 교육 지속에 대한 요구도 높음. 현장활동에 이론교육이 보완되어 현장 활동 회원들의 만족도와 성과가 높았음.
- 광주천개발 정책에 대한 대응 및 대안 마련활동 등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음. 주암호 도수문제, 광주시의 수달관련 광주천활동 등에 대해 공론화 하지 못하고 향후 과제로 남게됨.
- 광주천 생태문화학교 진행을 계획하였으나, 우리 연합이 주도하여 기획 추진하지 못함. 황룡강 등 타 하천환경교육사업이 추진되었음. 학교와 연계되어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환경강사(기획포함)로 참여하는 내용으로 광주천 생태학교가 진행됨.

□ 과제 및 대안

- 광주천 지킴이 회원 및 활동범위 확대
- 광주시의 광주천 대책에 대한 평가와 판단 이에 따른 개선촉구활동. 광주시는 지속가능한 하천 복원 대안 보다는 유량확대 등 단기적 성과 그리고 보여주시기 정책에 앞서고 있음, 2수원지 댐 확대. 주암호 도수 등을 비롯한 여타 계획에 대한 평가 필요
- 광주천 인근 시민 학생들의 지속적 참여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생태문화학교 운영 필요

연대사업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 회원단체로서의 역할

- 광주지역 진보적 시민운동단체 22개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로서 광주시의 예산감시, 정책제안 및 견제, 지방자치 감시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
- 상임공동대표: 임낙평 공동의장 참여
-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사무처장 참여
- 회비 월 100,000원 납부
- 시민협 진로모색 워크숍, 활동가 단합대회 등 추진

2. 지역내 시민협을 매개로 한 제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 1)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 2) 5.18민중항쟁 31주년 기념행사(주먹밥나누기, 헌혈, 한마당)
- 3) 민선5기 1주년 기념 정책평가(환경/지방자치/경제/복지/여성분야)

3. 민관합동 정책워크숍

- 1) 추진위원회 참여 활동
- 2) 대중교통분과 위원회 간사단체 활동
- 3) 대중교통분과 정책워크숍 “광주 시내버스 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 2011. 6. 29(수) 16:00~19:00 / 광주NGO센터 교육실

안실련, 에코바이크, 경실련, 환경연합, 장애인총연합, 해병대전우회, 녹색교통, 광주시(교통시설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좌장: 이준영(광주녹색교통 대표)

: 4개분야 패널 토론

- 대중교통 구조 및 시스템 개선
- 제도 개선
- 서비스 개선
- 시민참여

4) 공통의제 정책워크숍 “광주 도시재생 정책, 바람직한 방향”

: 2011. 8. 25(목) 15:00~19:00 / 광주NGO센터 대강당

※좌장: 이상준(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

- 기조강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송인성 (전남대 경제학부 지역개발학과 교수)
- 보 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추진상황- 박남주 (광주시 도시재생과장)
- 주제발표: 광주 도시재생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이명규(광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지정토론: 김기홍(경실련 사무처장), 류영국(지오게이트 대표), 정성구(광발연 도시환경연구실장), 권순국(복지공감+ 공동대표), 임낙평(환경연합 공동의장)
- 종합토론: 참석자 60여명

4. 2012 선거개혁특별위원회 활동 : “Change 2012 총선·대선 광주연대” 발족

: 광주시민협, 광주진보연대, 광민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참여

(임낙평 의장-상임공동대표, 박미경 처장-홍보위원장)

목적- 2012년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와 혁신을 추구

- 2012 시민적 힘으로 현 정권의 집권연장을 저지하고 민주·진보·평화세력으로 의 정권교체활동 전개
- 광주(호남)의 새로운 정치지형 형성을 위한 노력
- 한국에서 광주가 지녀왔던 민주 개혁정치의 리더십과 광주의 자존심 회복

5. 평가

- 회원단체간의 연대감·소속감은 어느때보다 높았으나, 단체들의 활동에 집중하다보니 공동활동이나 협력활동에는 참여가 적었음. 어느해보다 정책위원회, 정치개혁위원회 등 상설위원회가 활성화되었음.

[먹을거리 관련 지역 연대사업]

구제역 사태를 시작으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과 그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 먹을거리, 식량, 소비자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함께 현안 문제에 대응하고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연대활동을 펼치기로 함.

1. 구제역 토론회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대안은 없는가?”

-일시 : 2월15일(화) 광주청소년문화의집

- 내용 : 광주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구제역사태 대안모색을 위한 광주시민모임' 을 구성해 진행
- 참여단체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icoop빛고을생협, 참교육합부모회광주 지부, 초록세상을 위한 희망급식연대, 진보신당광주광역시당, (사)한살림, 평화행동 한거름 더,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광주YMCA생협

2. 강연회 “유전자조작 식품이 초래하는 위험한 미래”

- 일시 : 6월3일(금) 광주청소년문화의집
- 내용 : 유전자조작식품 위험성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고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키는 활동을 소개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목적으로,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기획 및 진행.
- 참여단체 : iCOOP빛고을생협, iCOOP시민생협, iCOOP자연생협, 전국여성농민회 광주 전남연합, 진보신당광주시당, (사)한살림,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YMCA생협, 광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광주시당, 식생활네트워크광주지부, 행복한에벌레생협,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가톨릭농민회 광주대학교구 연합회

3. 평가

토론회와 강연회 기획 및 개최를 중심으로 지역의 각 단체가 함께 준비했고, 각 단체 회원 및 일반인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음. 일시적인 활동에 머물러 지속적 연대 방향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음.

[전국환경운동연합]

1. 전국대표자회의 / 분기별 1회
2. 전국국처장단회의 / 월 1회
3. 광역처장단회의 / 격월 예정이나 필요시 개최함
4. 광주, 전남 사무국회의 / 연 2회
5. 활동가 동계 수련회-2/19(토)~21(월) (무주 자연환경수련원)
6. 회원대회-7/9(토)~10(일) (고리핵발전소, 부산 해운대)

특별 사업

NGO 글로벌포럼

-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식량 -

□ 사업목적

- 2011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부대회의의 일환으로, NGO 국제회의를 개최함.
- 국내 및 세계 각국의 도시에 활동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NGO들의 활동경험을 포럼을 통해 공유하면서, 인간과 도시, 지구촌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정책적 대안과 행동을 모색해보고자 함.
- NGO 포럼을 통해 전 세계 환경NGO들과의 소통과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함.

□ 사업 개요

- 광주지역 환경단체들과 함께 기획팀을 꾸리고, NGO 글로벌포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 준비, 실행함
- 기후변화와 에너지, 그리고 식량을 주제로한 다양한 논의와 한국의 활동상황을 정리하고,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사례를 공유함.

□ 사업 내용

1. 기획팀운영

○ 기획팀 운영

- 일자 : 3월 16일(수), 3월 28일(월), 4월 25일(월), 8월 23일(화), 9월 19일(월)
- 장소 : 전남대학교, 환경연합, 생명의 숲 등
- 내용 : NGO글로벌포럼 기획 및 진행상황 점검

○ 기획팀 구성

- 기획위원장 : 조길예(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
- 기획위원 : 김경일(광주생명의 숲 사무국장), 박필순(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미경(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실무총괄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

2. 간담회, 자문회의 등

○ 지역환경단체 실무자 간담회

- 일시 : 3월 3일(목) 12:00
- 장소 : 왕자관
- 참여자 : 불교환경연대 등 10개 환경, 시민단체 실무책임자
- 내용 : 도시환경정상회의 부대행사에 대한 공유, 기획팀 구성

○ 전문가 자문회의

- 일자 : 7월 7일(목) 11:00
- 장소 : 가족회관
- 내용 : NGO글로벌포럼 진행상황 보고 및 기획 자문

○ 환경단체 실무책임자 및 대표자 간담회

- 일시 : 9월 27일(화) 11:30
- 장소 : 신성식당
- 참여자 : 각 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10여명
- 내용 : NGO 글로벌포럼의 취지 보고 및 홍보 협조

3. 워크숍, PRE-포럼

○ NGO 글로벌포럼 길찾기 워크숍 1차

- 일시 : 5월 18일(수) 15:00
- 장소 : 무각사 사랑채
- 주제 : “소통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NGO 워크숍”
- 내용 : 광주 및 전국 NGO 활동가들이 함께 포럼의 내용을 공유, 의견제시를 통해 기획서 수정, 보완

○ PRE-NGO 글로벌포럼 “도시의 에너지, 식량에 대한 활동가의 고민을 함께 비비다.”

- 일시 : 9월 2일(금) 15:00~18:00
- 장소 : 광주 NGO 센터 4층 교육실
- 참여자 : 단체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회원 등 30여명
- 프로그램
 - 사회 : 박승옥(한겨레 두레공제조합연합회)

- 주제발표 1. 도시에서 에너지운동의 고민과 활동 / 안병욱(기후행동연구소 소장)
- 주제발표 2. 도시에서의 식량문제, 먹거리운동의 고민과 활동/ 조길예(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
- 토 론 자 : 김광훈/에코바이크, 이희안/빛고을생협,이현민/부안시민발전소,최시영/흙살림, 이종국/광주귀농학교, 윤봉란/광주YMCA,이근행/모심과 살림연구소, 김용우/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조성돈/환경정의,김영란/강남서초환경연합, 정원갑/I-coop생협연구소, 옥성애/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안철환/전국귀농운동본부, 오영애/울산환경운동연합, 김대희/여수YMCA, 임혜원/대전 녹색소비자연대

4. NGO 글로벌포럼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식량”

- 일자 : 10월 13일(목)~14일(금)
- 참여자 : 국내외 NGO 활동가 및 일반시민, 학생 등 700여명
- 장소 :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용지관), 김대중컨벤션센터(201, 202호)
- 프로그램

■ 기념식

사회 : 박미경(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환영사 / 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축사 / 영조스님(송광사 대표, 광주전남녹색연합 대표)
- 축사 / 김윤수(전남대학교 총장)

■ 기조강연

사회 : 이인화(광주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도시인의 삶이 변해야 지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최열(환경재단 상임이사)
- 벼랑끝에 선 지구/ 레스터 브라운(지구정책연구소)

■ 섹션별 토론

- ▶ 도시, 시민의 힘으로 에너지를 전환한다

좌장 : 안병욱(기후행동연구소 소장)

- I. 에너지 혁명 /잔 버라넥(그린피스 반핵팀장)
- II. 우리나라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분석 /박년배(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연구교수)
- III. ‘탄소제로도시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독일 뮌헨의 사례

/디터 자이프리트(부퍼탈연구소)

- IV.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도시와 에너지운동의변화 / 우에조노 마스터케(CASA 이사)
- V. 그린빌딩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 LEED 사례 / 마크팔머(샌프란시스코시 그린빌딩 코디네이터)
- VI. 140만 도시, 광주에서의 에너지운동 성과와 고민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

▶ 도시의 먹거리 선택, 지구의 운명을 바꾼다

좌장: 조길예(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

- I. 지속가능한 식량체계를 위한 제안 / 로버트 굿랜드 박사(전 세계은행 수석 환경자문 위원)
- II. 유기농업: 생태계보존, 먹거리 안전의 해법 / 앙드레 뒤(세계유기농운동연합 부회장)
- III. 세계 채식의 날 실천 도시들과 그 성과 / 토비아스 래너르트(벨기에 EVA 회장)
- IV. 한국 지역식량체계에 대한 성찰 / 김용우(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지역농업위원장)
- V. 하바나의 유기농 도시농업 / 페르난도 푸네 박사(쿠바 GAO 회장)
- VI. 광주 먹거리 운동의 성과와 도전들 / 박필순(광주전남녹색연합사무처장)

■ 환영만찬

■ 종합토론 : 지구의 미래, 도시에서 희망을 찾다.

좌장: 박승옥(한겨레두레공제조합 연합회 공동대표)

- 에너지섹션 토론결과 발표/ 안병옥(에너지섹션 좌장)
- 식량섹션 토론결과 발표/ 조길예(식량섹션 좌장)
-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식량을 위한 광주 선언" 제안 및 토론

■ 공동 행동

- 최병수 작가와 함께 하는 탈핵 포퍼먼스 “핵플, 핵똥”
-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식량을 위한 광주 선언” 발표

□ 사업평가

- NGO 글로벌포럼에 국내외 NGO 50여개 단체와 700여명의 환경활동가, 시민등이 참여 함.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공동으로 기초강연과 식량섹션의 발표내용을 촬영, 편집하여, 지역 방송 CMB등에 방영함으로써 포럼의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홍보
- 해외 초청자 8인중 2인(그린피스 잔버라넥, 세계유기농협회 안나위스만)은 자체 경비를 지출하여 토론회에 참여함으로써 초청비 절약
- 환경NGO의 공동 기획으로 약 7개월가량 협력을 통한 준비가 이루어짐.
(채식을 중심으로 점심식사와 만찬을 제공함으로써 포럼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먹거리 배치)
- F1 경기등의 일정과 겹쳐 도심 외곽의 숙소를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되었으나 접근성이 불편하였음.
- 도시환경정상회의 기간에 진행되어, 시의회, 시행정 담당 공무원등의 참여가 부족하였음.

□ 계획 대비 평가

- 포럼을 통해 새로운 활동가 발굴과 훈련을 계획하였으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과제 및 대안

- 전국단위의 국제행사 등의 진행시, 새로운 홍보방식의 접근이 필요함(SNS, 중앙지 신문광고 등)
- NGO 글로벌 포럼의 주제로 선정된 “에너지”, “식량” 부분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대안운동이 펼쳐져야 하며, 탄소제로도시, 에너지혁명 시나리오의 사례에서 제시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후,에너지운동의 집중화를 통해 광주의 에너지전환시나리오 작성.

특별 사업

에코 아트페어

□ 사업목적

- 지구의날 41주년 기념하며 환경 이슈제기
- 기후변화에 대한 미술인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동기부여와 참여유도
- 기후온난화,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에 따른 기후난민들을 위한 기금 마련

□ 사업개요

- 4/22 지구의날을 기념하는 “기후재난 기금 마련을 위한 에코 아트페어” 를 롯데백화점 갤러리와 공동으로 4/20~27 동안 개최함.
- 81명의 작가가 참여해 91작품을 출품. 42작품 판매.
- 방글라데시의 환경단체인 '방글라데시 환경변호사협회(지구의벗 방글라데시, BELA)'에 5,000달러(당시 환율로 680여만원)를 기후재난지역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지원함. 애초 2,500달러(한화 300만원 예측) 지원을 계획했으나 아트페어가 성공해 그림판매가 잘 이뤄져 기금액을 2배로 하게 됨.

□ 사업내용

1. 기후재난 기금 마련을 위한 '에코 아트페어'

- 일시: 2011. 4.20(수)~27(수)
- 장소: 롯데갤러리
- 내용 : 강남구, 고근호, 김광철 등 81인의 작가 91작품(소품 위주)을 롯데갤러리에 8일간 전시하고 판매된 42작품에 대해 해당 작가들은 20~40%의 작품료를 기후재난기금으로 기부함.

2. 아트페어 기념식

- 일시: 2011. 4.20(수) 18:00
- 장소: 롯데갤러리
- 내용: 아트페어 개막식을 기념해 오프닝 기념식을 개최함
· 백금렐 회원의 사회로 임낙평 공동의장의 인사말, 롯데백화점 고광후 점장 환영

사, 황영성 작가의 격려사, 장찬홍 작가의 축사와 함께 참여작가 소개. 방극만 씨의 오보에 연주가 축하연주로 이어짐.

□ 사업평가

- 롯데갤러리에 의해 기획력과 기본 경비가 제공되어 작가 섭외 등이 무난하게 이뤄졌고, 공동의장, 집행위원들의 노력으로 그림판매가 50% 정도 달성되어 성공적인 수준으로 평가됨.
- 개막 기념식을 제외하고는 참여 작가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환경운동연합을 소개하고, 기후재난 기금 모금에 대한 설명과 당위성 등을 구체적으로 공유할 기회를 마련하지 못함.
- 소품 위주의 전시를 기획하다 보니 청년작가나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취지에는 적절한 의미를 가지나 기금모금을 충족하기에는 노력에 비해 확보금액이 적어 추후 아트페어를 기획할 때는 작품 사이즈를 적절히 혼합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 지구의벗 인터내셔널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국제네트워크 조직으로서 광주가 최초로 지구의벗 네트워크를 통해 기후재난국인 방글라데시의 지구의벗에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기금전달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임.

□ 과제 및 대안

- 기후재난기금 확보 방안으로도 의미있는 기획이었으나, 작가들과의 유대, 환경운동을 매개로 한 예술인들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성, 지역 미술인들의 지구온난화 문제 극복을 위한 실천적 동기부여 등이 기획단계에서 함께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함.

2011년 재정결산(안)

일반회계 (안)

수입부			지출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8,616,202	차기이월금		50,510,739		
회비	자동이체	151,137,740	경상비	공과금	전화통신비	1,953,880	
	지로납부	4,253,000			건물관리비	2,972,530	
	직접납부	455,000		소모품 및 수선비		2,157,500	
	평생회원	0		비품구입		0	
	특별(임원)회비	5,060,000		후생복지	식사비		4,116,400
	소계	160,905,740			퇴직적립금		10,188,220
후원금	회보광고	0	보험료		5,937,810		
	후원금 등 기부금	54,153,440	인건비		112,288,440		
	소계	54,153,440	경상비소계		139,614,780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44,386,620	중점사업	기후보호운동		23,832,835	
	교육참가비	18,596,600		영산강 개발사업 대응		555,470	
	특별사업	NGO포럼		105,320,000	광주천살리기		2,132,900
		ECO아트페어		42,480,000	생태문화도시		16,082,800
	소계	210,783,220		환경교육		34,600,310	
기타	자료대여및 판매	65,000		소계		77,204,315	
	이자수익	61,339	회원사업	정기간행(회보,잡지)		14,851,000	
	기타수익	514,170		홍보물제작,발송		9,327,510	
	차입금	5,000,000		회원만남행사		2,212,900	
	소계	5,640,509		회원모임 지원		1,500,500	
사업비	기타	기타		홈페이지, 자료실운영		43,000	
				소계		27,934,910	
			조직 및 특별사업	정기총회 등 회의		2,356,920	
				후원의 밤		3,403,440	
				중앙/지역연대		5,760,900	
				NGO 글로벌포럼		101,142,602	
ECO 아트페어		26,990,624					
소계		139,654,486					
사업비 소계		244,793,711					
기타	기타	기타	차입금 이자		179,881		
			차입금 상환		5,000,000		
			기타		0		
			소계		5,179,881		
수입	431,482,909	지출		389,588,372			
수입계	440,099,111	지출계		440,099,111			

2011년 결산(안)

항목/2010/2011/실적/달성율

수입부					지출부						
항목	2010	2011	실적 ¹⁾	달성율(%) ·	항목	2010	2011	실적	달성율(%)		
이월금					차기이월금						
	6,654,672	8,616,202	1,961,530	29.48		8,616,202	50,510,739	41,894,537	486.23		
회비	자동이체	137,614,000	151,137,740	13,523,740	9.83	경상비	공과금	6,576,690	4,926,410	-1,650,280	-25.09
	지로납부	4,128,000	4,253,000	125,000	3.03		정기구독료	120,000	2,157,500	-251,460	-10.43
	직접납부	890,000	455,000	-435,000	-48.88		소모품 및 수선비	2,288,960			
	평생회원	2,000,000	0	-2,000,000	-100.00		비품구입	733,000	0	-733,000	-100.00
	특별(임원)회비	3,620,000	5,060,000	1,440,000	39.78		후생복지	12,613,280	14,304,620	1,691,340	13.41
	소계	148,252,000	160,905,740	12,653,740	8.54		보험료	5,700,560	5,937,810	237,250	4.16
후원금	회보광고	2,000,000	0	-2,000,000	0.00	인건비	103,018,120	112,288,440	9,270,320	9.00	
	후원금 등 기부금	32,613,265	54,153,440	21,540,175	66.05	소계	131,050,610	139,614,780	8,564,170	6.54	
사업비	소계	34,613,265	54,153,440	19,540,175	56.45	사업비	중점사업	21,278,045	58,988,615	55,926,270	262.84
	민간협력사업	12,000,000	44,386,620	32,386,620	269.89		연속사업		18,215,700		
	교육참가비	4,626,000	18,596,600	13,970,600	302.00		회원사업	33,319,210	27,934,910	-5,384,300	-16.16
	특별사업	0	147,800,000	147,800,000	100.00		조직 및 특별사업	11,520,330	139,654,486	128,134,156	1,112.24
	소계	16,626,000	210,783,220	194,157,220	1,167.79		소계	66,117,585	244,793,711	178,676,126	270.24
기타	자료대여및 판매	40,000	65,000	25,000	62.50	기타	차입금 상환	10,000,000	5,000,000	-5,000,000	-50
	기타수익	7,780	575,509	567,729	7,297.29		이자	409,320	179,881	-229,439	
	차입금	10,000,000	5,000,000	-5,000,000	100.00						
	소계	10,047,780	5,640,509	-4,407,271	-43.86						
수입	209,539,045	431,482,909	221,943,864	105.92	지출	207,577,515	389,588,372	182,010,857	87.68		
수입계	216,193,717	440,099,111	223,905,394	103.57	지출계	216,193,717	440,099,111	223,905,394	103.57		

1) 실적 = 2011-2010 2)달성율 = 실적/2010*100

2011년 예결산 실적비교

수입부					지출부		
항목	2011년예산	2011결산	실적 ¹⁾	달성율(%) ²⁾	항목	2011예산	2011결산
이월금					차기이월금		
8,616,202					-		
회비	자동이체	160,200,000	155,845,740	▽4,354,260	97.28	공과금	7,560,000
	지로납부					소모품 및 수선비	3,000,000
	직접납부					비품구입	2,000,000
	평생회원	3,000,000	0	▽3,000,000	0.00	후생복지	15,580,000
	특별(임원)회비	5,400,000	5,060,000	▽340,000	93.70	보험료	6,500,000
	소계	168,600,000	160,905,740	▽7,694,260	95.44	인건비	114,231,000
후원금	회보광고	2,000,000	0	▽2,000,000	0.00	소계	148,871,000
	후원금 등 기부금	40,000,000	54,153,440	14,153,440	135.38	중점사업	35,000,000
소계	42,000,000	54,153,440	12,153,440	128.94	연속사업	10,000,000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15,000,000	44,386,620	29,386,620	295.91	회원사업	38,340,000
	교육참가비	15,000,000	18,596,600	3,596,600	123.98	조직 및 특별사업	115,000,000
	특별사업	100,000,000	147,800,000	47,800,000	147.80	소계	198,340,000
	소계	130,000,000	210,783,220	80,783,220	162.14	차입금이자	0
기타	자료대여및 판매	783,798	65,000	▽718,798	8.29	차입금상환	0
	기타수익	0	575,509	575,509	100.00	예비비	2,789,000
	차입금	0	5,000,000	5,000,000	100.00	소계	2,789,000
	소계	783,798	5,640,509	4,856,711	719.64		
수입	341,383,798	431,482,909	90,099,111	126.39	지출	350,000,000	350,000,000
수입계	350,000,000	440,099,111	90,099,111	125.74	지출계	350,000,000	440,099,111

1) 실적 = 결산 - 실적

2)달성율 = 결산/예산*100

[자산 및 부채현황]

■ 현금 및 예금명세(단위: 원)

예금종류	은행	계좌번호	잔액
보통	광주은행	010-107-3****7	₩ 2,115,932
보통	광주은행	053-107-3****2	₩ 3,602,284
보통	광주은행	053-107-3****1	₩ 7,291,399
보통	광주은행	001-107-3****3	₩ 1,254,305
보통	광주은행	001-107-3****2	₩ 1,780,579
보통	광주은행	055-107-0****5	₩ 995
보통	광주은행	003-107-3****0	0
보통	광주은행	003-107-3****1	0
보통	광주은행	003-107-3****5	64
보통	광주은행	001-107-3****8	₩ 16,441
보통	농협	617-01-1****6	₩ 3,775,310
보통	농협	301-0**4-7**7-21	0
보통	신협	131-014-3****9	₩ 751,783
보통	신협	08022-12-0****9	₩ 56
보통	신협	150-217-9****1	₩ 20,000,000
보통	신협	150-218-0****1	₩ 10,000,000
	현금		₩ 161,891
일반회계 총계		예수금 (240,300포함)	₩ 50,751,039

■ 출자금 명세 (단위: 원)

은행	계좌번호	금액
북동신협	3-004661-****	1,074

■ 임대보증금 명세 (단위: 원)

임대인	기간	금액
북동신협	2003년 3월~(2년씩 연장)	50,000,000

■ 예수금 (단위: 원)

구분	금액
4대보험	240,300

■ 집기 및 비품 명세 I

(단위 : 원)

NO	품 명	수 량	취득년도	구입금액	비고
1	컴퓨터 1	1	2005	1,500,000	하드 폐기(2011)
2	컴퓨터 2	1	2002	1,100,000	폐기(2011)
3	컴퓨터 6	1	2005	400,000	폐기(2011)
4	컴퓨터 8	1	2005	1,000,000	하드 폐기(2011)
5	컴퓨터 10	1	2007	1,120,000	
6	컴퓨터 11	1	2007	1,151,000	
7	데스크탑 하드 1	1	2011	670,000	
8	데스크탑 하드 2	1	2011	670,000	
9	노트북 1	1	2011	888,000	
10	노트북 2	2	2011	845,000	
11	레이저 복합기	1	2011	170,000	
12	전기주전자	1	2011	26,600	
13	모니터 1	1	2005		
14	모니터 2	1	2005		
15	프린터 2	1	2000	200,000	
16	프린터 3	1	2001	200,000	
17	복사기	1	2003	1,560,000	
18	스탠드스크린	1	1995	600,000	
19	필름스크린	1	2005	600,000	
20	노트북	1	2005		기증/폐기(2011)
21	키폰	2	2003	560,000	
22	사무용책상	11	1995		기증
23	사무용의자	11	2003	490,000	
24	철재 유리 책장	2	2003		기증
25	교육용 책상	11	2002	110,000	
26	앵글형 책장	3	2002	60,000	
27	백색 5단 책장	2	2002		기증
28	목재 6단 책장	11	2001	950,000	
29	목재 3단 책장	6	2007	1,050,000	
30	파일박스 4단	1	2003	140,000	
31	원형탁자(대)	1	2003	200,000	
32	원형탁자(소)	1	2003	30,000	
	소계			16,290,600	

■ 집기 및 비품 명세 II

(단위 : 원)

NO	품 명	수 량	취득년도	구입금액	비고
33	원탁용 접의자	6	2002	200,000	
34	회의용 탁자	1	2000		
35	월계획 백색칠판	1	1998	50,000	
36	강의용백색칠판	1	2000	60,000	
37	접의용의자	42	1997	420,000	
38	슬라이드 프로젝터	1	1995	300,000	
39	OHP 환등기	1	1998	200,000	
40	칼라TV	1	2003		
41	핸드마이크 대	1	2002	50,000	
42	핸드마이크 소	3	2003	140,000	
43	비디오꽃이 책장	2	2003	20,000	중고구입
44	잡지꽃이	1	1996		
45	철재 캐비닛	2	2003		
46	팩스 받침대	1	2003	100,000	
47	파티션	36	2003	1,780,000	
48	이동용 책상	4	2003	120,000	
49	짐수레	1	2004	37,800	
50	앰프	1	2005	600,000	
51	이젤	22	2003	264,000	
52	레이저 포인터	1	2007	87,000	
53	냉난방기(RAS-11)	1	2007	1,100,000	
54	냉난방기(505FX)	1	2007	2,300,000	
55	냉반방기(355F)	1	2007	1,850,000	
56	난방기(REH-221S)	1	2007	140,000	
57	잉크젯프린터	1	2009	115,000	
58	냉온수기	1	2010		무상임대
59	레이저팩스	1	2010	375,000	
60	기부금함	2	2010	120,000	
61	외장하드(1테라)	2	2010	238,000	
	소계			10,666,800	

특별회계(안)

구 분	잔고	구분
퇴직 적립금	7,747,590	신협계좌 172-020-8****0-9249***
	26,237,071	신협계좌 150-194-6****2-9249***
4대강사업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	3,290,579	광주은행 003-107-3*****
소 계	37,275,240	

퇴직금 재정 (1월~12월)

수입부		지출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46,933,870	차기이월금	33,984,661
퇴직금	9,498,600	퇴직금중간정산	23,745,215
이자수익	1,783,981	기타지출	486,575
소계	11,282,581	소계	24,231,790
수입계	58,216,451	지출계	58,216,451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재정 (1월~12월)

수입		지출	
전년이월금	660,166	이월금	649,639
분담금	650,000	활동경비- 주유	30,000
기부금	300,000	영사강사업 소송	11,000
기타수입-차입	1,500,000	광주호독높이기 중단 음악회	1,621,500
기타수입-이자	413	광주호독높이기 중단 천막농성	800,500
기타수입- 티셔츠 판매	180,000	영산강 홍수기 조사	90,000
		광주호독높이기중단 기자회견 3회	87,940
수입총계	3,290,579	지출총계	3,290,579

2011년 조직구성안

<조직도>

임·위원 인선(안)

■ 고문 : 정철웅(상임), 전홍준, 정구선, 장두석, 안행강, 송인성, 성진기, 이근우

■ 감사 : 오원만, 김정민

■ 공동의장 : 이정애(임기만료), 임낙평(임기중), 이인화(신임)

■ 집행위원회 : (정관상 30인 이내이나 효율성 위해 20~25인 수준으로 선임)

※ 집행위원장 - 정용식(신임)

- 당연직 :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사무처 국장, 소모임 회장)

회원위원장 _ 선세근

미디어위원회 _ 정두호

기후보호포럼 _ 차인수

녹색감시단 _ 정영남

물한방울 흙한줌 _ 박태규

모래톱 _ 홍기혁

환경통신원 _ 김미수

디지로그 _ 박시중

사무처장_박미경, 국장_김춘희, 국장_최지현, 국장_이경희

- 선임직 : 정용식, 진재영, 정두호, 최기호, 최홍엽, 선세근, 김태중, 송창영,
조경숙, 송형일, **박덕희(신임)**

■ 부설기관

- 시민환경연구소_ 이사장(윤장현), 소장(이인화), 연구원(최지현 *겸임)

- 환경교육원 _ 원장(김양현), 코디네이터(김춘희 *겸임)

■ 사무처 : 사무처장(박미경), 국장(김춘희), 국장(최지현), 국장(이경희)

- 박상은, 오하라즈나키, 유성연

▶ 회원조직국 : 회원관리, 재정, 총무, 환경교육, 회원모임

▶ 기후보호국 : 에너지, 생태도시(도시숲·도시재생), 반핵

▶ 국토보전국 : 물·하천, 생활환경, 주민지원, 지역연대

※ 푸른길운동본부 파견 : 박상은

2012년 사업계획(안)

□ 배경 및 전망

-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격랑의 해. 진보진영의 정권교체를 위한 노력으로 야권대통합으로 총선과 대선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진보신당과 녹색당도 총선과 대선국면에서 진보적 사회의제를 제시하며 나름대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임.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세계각국의 탈핵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의 탈핵 분위기가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의 총선, 대선과정에서 탈핵 의제화 할 것이어서 올해는 복지 의제와 더불어 탈핵의지가 사회적 이슈와 될 것임.
- 기후재난 빈번할 것으로 예측,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을 것. 선거 국면에서 지구온난화 이슈가 묻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특히 6월에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열릴 RIO+20회의가 개최되고, 한국에서도 민간위원회가 구성. 리우+20회의를 통해 지구온난화나 생물종다양성협약 등 지구촌 환경의제가 부각될 것임.
- 건설 속도전으로 물이 새거나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4대강의 16개 댐(보)의 처리가 총선과 대선에서 주요 의제로 제기되어야 함. 그러나 총·대선 선거국면에서 돌발적인 현안들에 묻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제 선점 노력이 필요함. 한편 선거이슈에 휩쓸릴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 회원교육과 회원모임 확대 등 회원 프로그램과 조직관리에도 집중해야 할 것임.
- 초·중·고교 5일제 전면수업 시행에 따른 사회 교육 수요 요구 높아질 것임.

□ 사업기초

- 총선·대선을 통한 정권교체, 합리적인 사회 창출 기여
- 탈도건, 탈핵, 탈화석연료 의제를 사회 주류의제로 형성
-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한 사회환경교육 강화
- 생태적 감수성으로 무장한 시민활동가 및 지도자 양성

□ 추진사업

- 참여와 소통의 회원사업
- 환경교육
- 기후보호운동
- 핵없는 사회 만들기
- 영산강 및 지천 개발사업 대응
- 광주천, 황룡강을 자연하천으로 만들기
-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 생태도시만들기(푸른길, 도시재생)
- 지역 연대활동

□ 중점사업

1. 기후보호 현장 만들기

- 1) 햇빛 발전소 만들기
- 2) 따뜻한 마을, 시원한 마을 만들기

2. 환경교육 매뉴얼 만들기

- 1) 자원순환교육 ‘도깨비 방망이’ ,
- 2) 기후보호교육 ‘지구 구출대작전, 에너지야 덤벼!’

3. 회원모임 조직

- 1) 에코 서포터즈 - 환경이슈 현장을 지원하거나, 에너지 빈곤층, 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회원모임.
- 2) 지역모임 ‘운암산에서 영산강으로’ - 북구지역 회원모임 (운암동모임, 양산동모임)

기후보호운동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발전시설의 확대, 보급을 위한 활동전개
-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해 탄소제로도시, 에너지 혁명의 시나리오 만들기

□ 사업 개요

- 기후보호, 에너지 절약을 일상에서 응용, 활용가능한 사례 및 현장을 발굴하고 자치구, 기업 등과 공동으로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실험하고 성과를 홍보

□ 사업 내용

1. 광주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그린 빌딩)를 위한 사업

“그린빌딩 찾고, 에너지 모으고”

1) 광주 그린빌딩 조사 및 홍보활동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례를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배포,
- 일반 개인 사무실, 기업, 행정기관의 투자사례,
- 옥상녹화, 창호, 단열재 등 구체적인 정보와 관련 제도, 외국 사례 등을 정리하여 안내 책자 제작
- 관련 분야 전문가, 기업, 학계와 공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상반기 조사활동 진행하여 소책자 및 웹 홍보.

2) 광주의 그린빌딩 적용 및 확대를 위한 대안 정책 개발

- 기후보호포럼의 주제로 선정하여 국내외 사례 발표, 지자체의 조례 제정방안 등을 제시
- 기술적 지원을 통한 그린빌딩 확대방안 제시

2. 자치구와 함께 “따뜻한 마을, 시원한 마을” 사례 만들기

- 일자 : 연중
- 장소 : 1안) 북동, 2안) 백운동
- 내용 :
 - 자치구 내의 소규모의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실험.
 -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주민 주도형으로 사업진행

- 조경 등을 통한 마을 녹화 및 주택녹화 방안 제시
- 에너지 복지사업을 통해 마을내 저소득층의 단열 강화사업

3. 시민 태양광발전소 1, 2호 만들기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 시민들이 직접 출자하는 시민발전소를 통해 시민들이 탈화석, 탈핵을 위한 활동에 동참
-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저해하는 제도 및 인식을 개선
- 지역내 태양광발전소 설치 붐을 조성

1) 시민햇빛발전소 1호

- 현재 중단된 광산구 시민태양광발전소의 재논의를 통해 실현시킴

■ 장소 : 광산구 유스호스텔 지붕

2) 시민햇빛발전소 2호

■ 장소 : 현재 미정(북구지역의 학교,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

4. 생생 기후투어

- 시민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이야기하고, 다양한 생태계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면서 기후 보호를 위한 실천의 방안을 모색
- 가족단위의 참여를 통해 주말 가족프로그램으로 정착

■ 참여자 : 가족단위 40여명

■ 일자 : 짝수달 셋째주 토요일

■ 프로그램

날짜	주 제	장 소	내 용
2월	텃새가 된 철새	동림동 백로서식지	여름철새 백로가 겨울이 되어도 서식지를 지키고 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찾는다.
4월	곤충이 사라진다.	구례 지리산 벌 사육지역	토종 벌이 사라지는 이상기온, 그리고 곤충의 감소가 미치는 영향을 벌사육농가를 방문하여 듣는다.
6월	한반도에 열대과일이 자란다.	해남 열대작물 재배지역	열대지역에서 보았던 파파야, 망고 등이 자라는 농원을 방문해서 실제 기온의 변화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8월	북방한계선의 변화	지리산 국립공원	수목의 북방한계선이 점점 북상하면서 구상나무의 서식지가 변화가 있다.
10월	민감한 바다, 그 변화의 속도로	여수 남해수산연구소 등	해파리의 습격, 열대 산호초의 서식, 근해에서 사라진 대구, 명태 등 바다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현장을 살펴본다.
12월	에너지 농부	전북 부안 화정마을, 등용마을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농부들의 마을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 에너지 농부가 되는 길을 배운다.

□ 기대효과

- 기후보호를 위한 다양한 현장을 구축함으로써 일상에서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기후보호운동을 펼침.
- 기후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영역 중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건축물 에너지효율성 강화부분의 전문화, 체계화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 사업목적

- 한중일 3개국 기후환경NGO 네트워크인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운영 2년차인 2012년 네트워크의 체계와 정착을 위한 사업 발굴

□ 사업개요

- 한중일 기후네트워크 참여단체간 연대사업 활성화와 정보 공유, 소통을 위한 동아시아 기후매거진 제작과 제 3회 동아시아기후보호포럼 개최

□ 사업내용

1. 동아시아 기후매거진 제작

- 발행일 : 봄, 여름, 가을, 겨울 계간지로 연 4회 제작
- 발행 언어 : 한중일 3개 국어
- 배포방법 : 웹진으로 제작하여 웹에서 배포
- 내용 : 한중일 기후정책 및 기후운동 사례 소개

2. 제 3회 동아시아기후보호포럼

- 일자 : 10월 중순
- 장소 : 중국 흑룡강성
- 주제(안) : 미정
- 참여자 : 한중일 기후, 에너지 NGO 활동가 및 시민 100여명
- 내용 : 한중일 기후정책의 점검 및 활동 사례 공유

3. 기타

□ 기대효과

- 기후보호를 위한 한중일 3개국의 기후정책의 감시활동과 연대활동을 통해 기후보호를 위한 아시아 연대의 초석을 마련
- 한중일 기후보호, 에너지 운동 NGO간의 네트워크 정착을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 진행

[서남해안 화력발전소 유치 저지운동]

- 지난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핵발전소 후보지에서 해제된 고흥, 해남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유치로 인해 화력발전소 반대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음.
- 대책위와 공동으로 신규화력발전소 건설을 막아내고, 화력발전소 및 화석에너지의 문제점을 홍보함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 <리우+20>]

- 1992년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브라질 리우 회의) 이후 20년이 지난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지난 20년의 지구환경의 변화를 평가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됨.

- 리우+20 한국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 국제환경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현장 캠페인 진행

[지구의 날 42주년 기념행사]

■ 일자: 4월 22일(일)

■ 장소: 광주시 전역

■ 내용: 지구의 날 국제네트워크에서 올해 '지구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모아 보자'라는 의미의 'Mobilize the Earth'를 슬로건으로 선정 함. 이에 우리의 활동도 함께 모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체험교육, 홍보활동, 캠페인 등을 NGO, 기업, 행정 등과 함께 공동연대를 통해 진행함.

[핵없는 사회 만들기]

□ 사업목적

- 핵발전소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확대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행동” 발족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 연대 사업 진행

□ 사업개요

- 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탈핵 사회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을 전개함. 전국적인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고리, 월성 등 노후원전 폐쇄 활동, 신규 원전부지 취소운동을 추진함. 특히 2012년 총선, 대선에서의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주요 의제로 부각시킴.

□ 사업내용

1.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전남공동행동 조직

- 1) 발족 : 3월 11일, 후쿠시마 1주기
- 2) 구성 :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시민
- 3) 활동 :
 - ① 핵 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탈핵 시나리오 만들기
 - 점진적 폐쇄를 위한 시나리오 마련 및 요구
 - 영광핵발전소 출력증강, 스마트원자로 저지 등을 위한 지역연대활동 강화
 - 광주전남 지자체의 방사능 방재대책 등에 대한 점검 및 방재시스템 구축요구
 - ② 총선, 대선 후보자 탈핵 의지 점검 및 탈핵 공약 반영 요구
 - 탈핵 및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요구안 정리
 - ③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과 전국적 탈핵 연대활동
 - 신규 핵발전소 저지, 핵안보정상회의, 한미원자력협정 대응

2.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전남 ‘탈핵학교’

- 일시: 3월 12일~4월 9일
- 내용:

일시	주 제
3월 19일	후쿠시마는 지금?
3월 26일	생활 속 방사능과 건강
4월 2일	광주전남은 핵사고로부터 안전한가?
4월 9일	탈핵버스(영광핵발전소 답사)

- 아직 진행중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1주년을 돌아보고 광주전남의 핵안전 지수 점검
- 탈핵, 탈화석 에너지 강사양성 프로그램으로 확대해나감

3. 핵없는 세상을 위한 캠페인 '나도 알지, Nuclear Bomb!'

- 일시: 3월 11일, 4월 26일
- 내용: “핵발전소=핵폭탄” 핵과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 및 사진전 등

4.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탈핵선언

- 3.11 1주기를 맞아,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탈핵선언 조직
- 2050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입법, 제도 마련 요구

5.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전국 연대사업진행

- 전국 사안인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철회운동, 경주 핵폐기장의 안전성 문제 등 핵관련 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역내에서 홍보하는 사업진행

□ 기대효과

- “핵발전소=핵폭탄” 인식 확산으로 탈핵 시나리오 기반 다지기
- 전국 탈핵 공동행동 등을 통한 조직적인 탈핵 및 핵안전 확보 초석마련

참여와 소통의 회원사업

□ 사업목적

-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운동 실현을 위한 다양한 회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매개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환경이슈 확산을 통한 환경운동의 대중화
- 회원확대를 통한 재정적 자립도 향상과 회원중심의 건전한 조직운영

□ 사업개요

- 회원위원회를 통한 회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미디어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
- 회원확대캠페인을 통한 회원확대 및 안정적 재정확보
- 회원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사무실에 회원방 개설
-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환경문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각종 회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1. 회원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 일시 : 연중 (월1회)
- 내용 : 회원들의 관심과 필요성에 맞춰서 회원 참여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회원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등 회원조직화 사업을 이끌어가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월1회 정례회의를 통한 위원회 안정화와 구성원 보충을 통한 위원회 활성화를 목표로 함.

2. 회원확대캠페인

- 일시 : 5~6월
- 내용 : 회원확대를 통한 조직의 재정적 안정화와 환경문제의 대중적 관심 확대를 위해 올해도 기간과 목표를 둔 형태의 회원확대캠페인을 실시함. 2011년도 회원확대캠페인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올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임.

3. 사무실 내 회원방 개설

- 시기 : 3월중~4월
- 내용 : 사무실 내에 회원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회원을 위한 공간을 마련, 각종 회원 모임, 회원참여 프로그램의 거점으로 활용함. 환경관련 서적, 각종 홍보물, 활동사진 등을 전시하고, 회원과 회원, 회원과 사무처의 돈독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함.

4. 회원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1) 건강강좌 “건강한 몸 지키는 것, 어렵지 않아요~”

- 시기 : 5~6월
- 내용 :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기후변화, 일상생활에서 받는 각종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 위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각 분야 전문가에게 배움.

1차	대체의학, 생명의학의 길
2차	환경변화와 중년여성의 건강관리
3차	직장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기
4차	요가와 치유명상으로 내 마음의 건강 챙기기
5차	한의학, 오장육부를 다스리자

2) 회원모임 “에코 서포터즈” 조직

- 시기 : 연중
- 내용 : 일상생활에서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실천하면서, 환경이슈 현장을 지원하거나, 에너지 빈곤층, 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는 회원모임을 조직하기 위한 프로그램 추진.
- 프로그램 : 각종 재활용품으로 아이디어 생활용품 만들기 / 공정무역 초콜릿으로 어린이 간식 만들기 / 친환경 건강 재료로 만드는 추석 송편, 이웃 나누기 / 에너지 빈곤층에게 연탄 나르기 / 북한 어린이를 돕는 목도리 뜨기 등

3) 회원모임 단합, 회원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 시기 : 분기별 2회
- 내용 : 회원의 단합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촌에서 계절별 농사 일손 돕기와 생태답사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결합시킨 가족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

4) 신입회원 만남의 날

- 시기 : 연2회
- 내용 : 분기별로 신입회원을 초대해 환경연합 활동과 회원모임 소개 등 단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속감을 부여해 회원간의 소통과 환경실천에 대한 동기부여 계기를 마련함.

5) 회원체육대회

- 시기 : 10월 20일 (토)
- 내용 : 회원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원들 간의 친목 형성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6) 지역별 회원모임 만들기

- 시기 : 연중
- 내용 : 지역별 회원 모임 구성. 시범적으로 북구 지역 (운암동, 양산동) 회원 모임을 구성. 회원들간의 유대강화 및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실천적 활동 모색

5. 홍보사업

1) 회보 '맑은삶, 맑은터' 발행

- 일시 : 매월
- 내용 : 지역의 환경이슈와 현황에 대해 회원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고 회원모임을 비롯한 회원들의 활동과 소식, 연재기고 등 지역의 특색과 활동을 담은 회원 소식지로 회보의 구성 편성.

2) 월간지 '함께사는길' 발송

- 일시 : 매월
- 내용 : 환경운동연합 부설기관 '함께사는길' 에서 매월 발행하는 환경전문지 '함께 사는 길' 을 구독 신청한 회원에게 발송.

3) 웹 홍보활동

- 웹메일 '자연지기' 발행
- 일시 : 격주
- 내용 : 활동에 대한 일정과 내용에 대해 빠른 속도로 회원에게 홍보하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 회원소식, 행사안내, 꼭 필요한 정보 등 읽을거리로 구성.

· 홈페이지 활성화

- 광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자료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홈페이지 기능 강화
- 회원간 소통, 회원모임 활동 공유 등을 보완하여 회원들의 홈페이지 이용 확대

· 소셜네트워크 활용

- 실시간 정보공유, 쌍방향 소통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활용 확대
- 미디어위원회 구성, 활동 확대

· 회원의 집 소개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시기 : 연중 (월2회 기준)
- 내용 : 각종 가게 등 사업하는 회원들의 집을 지역별, 업종별로 소개하고 회원들과 공유
회원의집을 방문해서 인터뷰 내용을 홈페이지, 웹메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함.

□ 기대효과

- 각종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 간의 유대관계 형성과 소통 강화
- 다각도로 접근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환경이슈에 대한 관심확산과 참여의식 향상
- 주부모임, 동네모임 등 풀뿌리 회원조직 구성 확대

[회원모임 운영]

<녹색감시단>

- 오염원 감시활동 및 환경오염 개선활동
-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지속화
- 녹색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물한방울 흠뻑>

- 지난 해 처음 시도한 ‘주말농장 운영’ 을 올해도 지속.
- 내 손으로 재배한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활동
-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통해 회원 유대 강화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 모래톱 역량 강화와 화합, 광주천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

- 하천 심화교육 및 회원확대
- 광주천 전 구간 모니터링 (구간별 담당제)
- 광주천 생태현황과 하천환경 사진 기록
- 광주천 사진전(문화제), 광주천을 살리기 위한 개선 및 제안 활동 등

<환경통신원>

-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사례 신고 및 계도 등 환경지킴이 활동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 회원모임 회원대상 환경교육 실시

<사진모임 디지로그>

- 매주 화요일 사진에 대한 이론과 실기 공부 및 회원유대 강화
- 매월 1회 이상 정기 출사
- 환경운동연합 활동 지원
- 1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사진전시회

[위원회 운영]

1. 집행위원회

- 환경이슈에 대한 토론, 중장기적 비전 수립. 매월 정례회의 진행
- 정기회의: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 내용: 사업 및 활동내용에 대한 검토와 추진방향 논의
- 사업: 미디어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상설 위원회의 활성화, 후원의 밤 등

2. 자문회의

- 고문, 공동의장, 감사, 부설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정례회의
- 정기회의: 매월 1회 진행
- 내용: 사업 보고 및 자문

3. 지도위원 정례보고회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계 인사를 중심으로 지도위원 위촉
- 상하반기 각 1회씩 활동보고 및 자문

환경교육

□ 사업목적

- 사회환경교육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으로 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연계 활성화 방안 모색
- 생태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실천적 삶으로의 변화시킴

□ 사업개요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체계화, 전문화를 위한 환경교육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팀 운영, 교육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교와 연계한 에너지, 하천, 자원 등을 주제로 하는 체험환경교육을 진행함. 또한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매뉴얼화를 통해 학교와 단체에 보급, 지속적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함.

□ 사업내용

1. 환경교육원 활성화

1) 환경교육 운영팀

-일시: 3월~12월

-대상: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내용: 환경교육의 대중화, 전문화, 지속화하기 위한 환경교육 지역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및 진행할 인적자원 발굴.

2) 환경교육원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일시: 3월~12월

-내용: 에너지, 하천, 재활용 등 생태 중심의 체험환경교육을 위한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적인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교육공간을 확보, 장기적인 운영 및 센터 건립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2.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화

- 일시: 3월~12월
- 대상: 환경교육 운영팀 및 자원봉사
- 내용:
 - 어느 때보다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가고 있으나 환경교육교재 및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 그동안 진행해왔던 교육이 체계적으로 자료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음. 프로그램 매뉴얼화와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 환경교육의 영역과 주제를 세분화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인착시키고자 2종류의 환경교육 매뉴얼을 만들.
 - 1) 자원순환교육용 “도깨비 방망이(가제)”
 - 2) 기후보호교육용 “지구 구출대작전, 에너지야 덤벼!”

3. 환경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공부모임 구성

- 일시: 4월~6월
- 대상: 환경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및 환경교육 담당교사
- 내용: 주5일제 수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환경교육의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나 전문 환경교육 진행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 환경교육 전문 운동가를 양성하고 발굴함.

NO	내용	기타
기초 교육	환경교육의 철학적 과제	교사, 해설가, 활동가, 일반시민 등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현황과 과제	
	사회환경교육 우수사례	
	사회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 연계방안	
	올바른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연계 사례 만들기	
분야별 교육	에너지, 하천, 자원 등 분야별 전문 교육강사 양성교육 진행	사업과 연계

4.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일시: 4월~11월
- 장소: 광주전남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 내용: 초·중·고 학교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먹을거리, 물 등을 주제로 하는

체험환경교육을 진행하고 학교교사, 시민단체 활동가, 자원활동가 등이 참여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매뉴얼화 함.

<자원순환이야기>

NO	주제	내용	기타
1	종이를 아껴쓰면 나무가 웃어요	지구를 위협하는 쓰레기, 한사람이 일생동안 쓰는 종이는 나무 몇 그루일까?	이론, 체험
2	전자제품은 지구 몇 바퀴?	전자제품은 어떻게 버릴까요.	
3	자연과 폐품이 만나면..	자연물과 폐품이 만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요	
4	플라스틱 쓰레기 섬	쓰레기섬이야기 /플라스틱 재질에 따른 분류	
5	전시회	학교 교무실 입구 및 복도 전시	

<에너지 이야기>

NO	주 제		기타
1	오리엔테이션		이론, 체험
2	<지구온난화의 이론>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 기상이변을 통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이해	
3	<도시숲의 역할>	도시숲과 지구온난화 이야기 /도시숲 푸른길 이야기	
4	<신재생에너지>	대안 에너지를 찾아서	
5	<에너지원>	위험한 에너지 알아보기	
6	<먹을거리와 기후변화>	햄버거왕국에서 숲을 찾아라	
7	<현장체험>	에너지 자립마을 가능할까?	

5. 풍뎡이 자연학교 운영

1)어린이 자연나들이

-일시 : 4~6월, 9~11월 매월 넷째주 토요일 총 6회

-내용 :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보존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2)어린이 캠프 “시계 밖에서 놀자”

-일시 : 여름과 겨울, 각 2박3일

-내용 : 자연 속에서 2박3일을 땀 흘리며 마음껏 노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 속에서 친환경 시골밥상을 통한 식습관을 바로잡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을 기르며, 자연에 대한 감수성과 생태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담음.

6. 청소년 환경대사

-일시: 3월~12월

-내용: 청소년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환경대사를 모집,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 실천활동을 계획 스스로 활동해 갈 수 있도록 함.

시기	내용	기 타
3월	청소년 환경대사 모집	총 30여명
4월~11월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교육	기후변화, 에너지, 하천, 물, 국제 환경이슈 등
4월~11월	실천 및 홍보활동 /매월 1회	350캠페인 /무등산, 영산강, 푸른길 등 주요 이슈 및 지역의 상징적 장소
12월	청소년 환경대사 발족	1년의 활동이후 청소년 환경대사 발족
청소년 환경대사는?		-각종 환경관련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물, 기후 등 청소년 국제행사 관련 활동 -환경현안 및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 활동 -다양한 환경체험교육 참여 활동

□ 기대효과

- 환경교육원 활성화 및 전문 환경교육강사 양성을 통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체계화에 기여함.
- 주5일제 수업으로 늘어나는 환경교육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환경교육 기관으로서의 책임 강화
- 환경체험교육을 위한 교육메뉴얼 개발 및 보급

- 환경교육 메뉴얼 개발 및 보급, 인적자원 지원 등을 통해 환경교육 소외계층에게 정보와 교육기회제공 등 환경교육의 공평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생태적 가치관 형성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실천의식 고취

영산강개발 및 지천사업 대응

□ 사업목적

- 준설과 보건설 그리고 둔치를 인공공원화하는 사업이 하천살리기가 될 수 없다는 것과 향후 유지관리의 막대한 부담과 부작용 등을 객관적 평가과정을 통해 증명해 나감.
- 영산강 영암호 통선문 설치, 강변 골프장 등 관광과 수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부당한 사업 저지
- 총선과 관련하여 영산강사업 주변 지역의 난개발공약 남발이 우려됨. 헛공약에 대한 객관적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지역민이 영산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대응함.
- 4대강 사업식 지원정비 및 개발 저지

□ 사업개요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조직을 강화하고 연대 협력구조를 구축하여 총선 예비 후보 및 후보자 대상으로 4대강사업 관련 후보 검증활동을 비롯하여 영산강 조사사업, 영산강사업 검증 토론회, 영산강 답사, 4대상사업 책임자에 대한 대응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지천사업 대응과 영산강 복원(살리기)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

□ 사업내용

1.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조직 강화 및 연대 협력구조 구축

- 기간 : 연중
- 내용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강화. 집행위원회 재구성, 활동과 역할 구분 등 조직 구성과 책임을 재정비하고, 연대 협력 구조를 강화함. 특히 조사사업과 대안 발굴 등에 있어 학계, 종교계, 지역민 등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구체화 시켜나감.

2. 총선 예비후보 및 후보자 대상 4대강사업 관련 후보 검증활동

- 기간 : 2월~4월
- 내용 : 4대강사업이 당론으로는 반대라고 하지만, 영산강 유역 자치단체의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이를 저지하거나 개선하기위한 활동이 아닌 4대강사업에 힘을 싣고 키우는 행보를 벌려왔음. 저수지사업, 통선문, 준설, 보 설치에 대한 주장을 해왔음. 이에 대한 내용이 유권자들에 전달되도록 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함. 또한 입후보자 대상으로 현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향후 대책에 대해 입장을 묻고 발표하는 활동 전개.

3. 영산강 조사사업

- 기간 : 연중. 갈수기, 홍수기 전후를 집중 조사시기로 설정
- 내용 : 속도전 공사로 인한 보 누수 및 부실, 준설영향으로 인한 역행침식, 호안 침식, 보호공 유실, 수질, 생태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활동을 연중 실시함. ① 수질 및 생태현황 ②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영향(농지 침수 등) ③ 지형변화- 역행침식, 보호공 상황 등의 조사를 비롯 애초 정부가 목적으로 제시한 내용에 부합한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조사함. 학계 및 전문가들과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회를 개최함.

4. 영산강사업 검증 토론회

- 일자 : 3월, 10월
- 내용 : 영산강공사 종료 시점에 맞춰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과 향후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운하반대교수모임 등 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개최함.

5. 영산강 사업 현장 시민답사- 4대강사업 진실알기 영산강 답사

- 일자 : 물의 날 주간 등
- 내용 :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선전에 대한 대응_ 4대강 사업의 진실이 현장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설과 기록이 함께하는 시민답사를 기획하여 추진함.

6.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평가

- 내용 : 객관적 평가나 여론수렴이 아닌 토목개발의 당위성을 부당하게 강조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사업이 시행 되도록 한 지역 주요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활동 전개. 이후 유사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

7. 지천개발사업 저지 운동

- 내용 : 수질개선 홍수피해 대책 등의 목적을 제시하며 4대강사업과 유사한 지천사업을 위해 하천기본계획, 정비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 높음. 공사 전 하천 기본계획수립 단계 이전

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풀뿌리 하천지킴이 모임과 지역 환경단체 및 주민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응해 나갈.

8. 광주호 등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대응

- 내용 : 4대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이 2012년 완공 목표로 광주 전남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과정에 타당성 논란, 지역민 갈등 유발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음. 문제점 (여론) 고발,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부당한 사업이 중단되고 개선되도록 함.

□ 기대효과

- 4대강사업의 심판, 복원 촉구 운동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객관적 검증없이 정치적 사업 결정과 추진에 따른 폐해 공론화
- 토목개발식 하천 정책 종지부를 찍고 바람직한 하천 정책, 지속가능한 하천 살리기 실현 기대
- 지속가능한 사회와 생태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제고시키고 민주적 절차, 과학적 검증 등 객관적 협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갈등 최소화 교훈 확산.
- 바람직한 영산강 살리기, 지천 살리기 실현

광주천살리기·황룡강, 지천 보전운동

□ 사업목적

- 광주천 지킴이 등 하천 지킴이 활동 역량 강화,
- 광주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광주천 살리기와 문제점 개선
- 지속가능한 광주천, 황룡강 살리기 방안이 실현되도록 함.
- 빗물활용 및 물순환을 위한 제반 여건이 활성화 되고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인식 제고 및 정책 실행이 되도록 견인

□ 사업개요

- 광주천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이후 광주천 개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광주천 살리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사업, 시민참여 사진전(문화제), 생태학교 운영, 정책 제안활동을 펼쳐 나감. 광주천 지킴이 회원모임과 하천지킴이 자원활동가의 주도적 참여로 활동 역량 및 범위를 확대해 나감.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해 빗물활용과 물순환 사회 제반 여건이 정착되도록 사회적 인식제고와 구체적 정책 실행이 유도되도록 견인하는 활동 전개

□ 사업내용

1. 하천지킴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회원 확대

- 기간 : 연중(3월~11월)
- 장소 : 광주천 등 하천현장, 환경연합 교육실
- 내용 : 광주천지킴이 모래톱과 풀뿌리 하천지킴이 활동이 활성화가 되도록 정기적 교육 및 회원확대를 추진해 나감. 전년 교육 평가를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현장 및 이론 교육을 병행함

2. 광주천 등 지역 하천 사진 기록 및 사진전시회

- 기간 : 2월~10월
- 장소 : 광주천, 광주천 인근 시민교류의 공간
- 내용 : 광주천의 일상, 생태환경 등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광주천 사진전을 개최함. 사진전을 통해 시민들이 광주천에 대한 관심과 광주천 살리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함. 또한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통해 광주천의 오늘이 기록되도록 함.

3. 광주천, 황룡강 생태문화학교

- 기간 : 5월~9월
- 장소 : 광주천, 황룡강, 하천 인근 학교
- 내용 : 우리 주변의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 생태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광주천과 황룡강을 주제로 생태문화학교를 추진함. 하천에 대한 지속적 주민관심을 동반 유도하고 구체적 광주천 등 하천 체험활동, 정화활동,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 하천 살리기를 실천함.

4. 빗물활용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 기간 : 4월~11월
- 내용 : 빗물 활용, 물 순환 정책이 구체화 되고 실천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감. 시민인식 현황 파악, 빗물활용 방안 모색과 시범사업을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추진. 민관 거버넌스 구축. 광주천 살리기의 방안으로써 빗물활용, 지하수 함유율을 높이는 등의 제안 활동도 병행함.

□ 기대효과

- 풀뿌리 하천지킴이 시민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 광주천, 황룡강 및 하천 살리기에 대한 시민적 관심 제고
- 광주천에 대한 지속적 기록과 하천 정책에 대한 평가
- 하천복원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

생태도시만들기

□ 사업목적

- 도시공간의 환경적 질을 높이고, 광주를 생태도시로 전환
-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공원화 및 미조성 공원의 조성계획 견인
- 구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저지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미조성 공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공원화 계획을 촉구하고, 도시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하는 활동을 전개함. 특히 광주역과 푸른길 공원 주변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과 구도심 원주민이 참여해 자투리 땅 공공활용(텃밭, 정원 등)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참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

□ 사업내용

1.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 마을과 푸른길

1) 푸른길 주변의 도시재생 방향 찾기 워크숍

- 광주역~남광주역까지의 푸른길공원 주변 마을은 구도심으로 택지가 조성된지 50여년이 경과함
- 좁은 골목길, 녹지공간 부족, 문화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부족 등으로 생활 환경이 열악함.
- 푸른길 주변의 도시재생을 주민이 직접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방향찾기 워크숍을 진행

■ 대상 마을 : 신수동

■ 참여 주민 : 푸른길주변 주민

■ 사업내용

- 주민이 꿈꾸는 마을 그림 그리기
- 마을내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기
- 도시계획, 주거계획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마을 모형 만들기

- 기타

2) 푸른길 주변의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설문

- 푸른길을 매일 이용하고,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푸른길주변의 도시 재생에 대한 설문을 진행

■ 기간 : 3월 10일~ 3월 30일

■ 대상 : 동구, 남구 지역 주민 400여명

■ 내용 : 주변 지역의 개발의 방향, 정주를 위한 필요시설

3) 삶의 질을 높이는 푸른길과 마을 재생

- 푸른길 공원내의 마을별 거점을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기간 : 4월~11월

■ 참여자 : 지역내 문화예술 집단, 외부 단체, 지역 주민

■ 프로그램

: 푸른길 부영이시장(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텃밭 작물의 거래)

: 골목 영화관(마을 담벼락을 이용한 영화상영)

: 푸른길 카페(음악과 차를 나누는 프로그램)

: 나도 푸른길의 명가수(주민이 직접 노래하고 공연을 진행함)

: 기타

2. 도시재생의 거점공간 - 광주역 활용방안 찾기

- 호남선 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광주역 부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도시 재생을 견인하는 거점으로써의 광주역의 공간적 의미를 평가하고 지역내 전문가, 시민 등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광주역 부지의 활용방안을 수립

1) 전문가 좌담회 “광주역, 이전이나 존치나”

■ 일자 : 2월 중

■ 내용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광주역의 활용방안 모색
고속철과 광주역의 경제성 비교

2) 현장답사

■ 일자 : 3월 중

■ 내용 : 광주역의 이용현황과 송정리역~광주역 구간의 선로 주변의 환경조사와 주민 생활환경 조사, 주민인터뷰 등

3) 정책제안

- 2-3월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
- 도시재생의 거점 공간으로 광주역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모음.

3. 미조성 공원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원화 계획 마련

- 미조성 공원의 쓰레기 투기 등의 영향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미조성공원에 대한 피로감이 높음. 국가공원으로의 지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미조성 공원들에 대한 조성 일정이 수립되도록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세부 방안을 모색함.

□ 기대효과

-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계획에의 개입
- 도시 균형발전 도모
- 구도심 원주민의 이탈 방지

[푸른길 운동]

□ 사업목적

- 푸른길 시민관리 시스템구축- 푸른길관리조례 제정
- 올바른 남광주푸른길 조성 및 푸른길기차의 안정적 운영
- 푸른길을 통한 도시재생모델 만들기

□ 사업개요

- 푸른길관리 조례를 통해 시민참여 푸른길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참여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남광주 푸른길의 조성에 대한 참여와 및 푸른길기차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결정, 조성, 관리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새로운 도시공원의 모델을 마련함.

□ 사업내용

1.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사업

-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를 위한 조례 발의 및 푸른길공원 전구간 준공에 맞춰 푸른길 공원 시민참여 관리를 제도화함.

1)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 조례 발의

- 지난해 푸른길공원 관리조례를 위해 구체적 조례 문안작성

■ 일자 : 상반기 조례 발의 및 제정

■ 조례발의 : 푸른길공원 주변지역 시의원 공동

2) 푸른길공원 시민참여관리 제도 마련

- 남광주역 푸른길공원의 조성완료 시점에 맞춰 “시민참여관리의 첫 모델” 로 푸른길공원을 만들기 위한 제도 구축

2. 푸른길공원 사랑모임 “칙칙폭폭 푸른길”

- 푸른길공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시민동아리 결성

■ 모집기간 : 집중기간 2월~3월,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모집

■ 참여대상 : 푸른길공원 주변 지역 주민, 푸른길공원 내 나무 헌수자, 푸른길을 사랑하는 시민

■ 활동내용 : 푸른길공원의 변화에 대한 기록, 푸른길공원 청소, 공원 안내 등

3. 푸른길공원 그랜드오픈 기념행사

- 푸른길공원 전구간 조성완료를 기념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 진행

1) 기념식

■ 일자 : 10월 경(남광주푸른길공원 조성공사 완료 시점에 맞춰 진행)

■ 내용

: 푸른길공원 그랜드 오픈 기념식

: 푸른길공원 시민참여에 대한 기념 조형물 설치

: 문화공연

: 내가 기억하는 남광주역 전시 및 발언대회

2) 기념전시회

■ 일자 : 10월 한달

■ 주제 : 광주 푸른길, 전국의 푸른길을 이끈다.

■ 내용 : 전국 폐선부지의 활용 사례와 푸른길로 조성한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전시함.

3) 다 함께 걷자, 푸른길

■ 일자 : 10월 둘째주 토요일

■ 내용 : 푸른길공원 전구간을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푸른길공원의 의미를 되새김.

4. 남광주푸른길 공원 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 푸른길공원에 현재 유일한 미조성구간인 남광주역일대의 조성공사가 1월부터 8월까지 전개됨에 따라, 공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 기간 : 1월~8월

■ 내용 : 남광주푸른길 조성과정 모니터, 설계변경 요구 및 협의

5. 생태 및 시설물 모니터링

- 일시: 3월~ 10월

- 생태 및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 푸른길 시민참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

6. 푸른길운동본부 조직 재정비 및 회원 모집

- 다양한 활동을 위해 푸른길운동본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확대함.

- 푸른길운동본부의 취지와 활동에 공감하는 회원을 모집, 확대함

□ 기대효과

- 푸른길공원의 과제였던 시민참여의 제도 마련의 원년으로 2012년을 설정하고 그간 부족하였던 제도 정비

- 다양한 시민참여, 봉사의 장으로 푸른길공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동본부를 정비함으로써 지속적인 시민참여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촉발시킴.

- 시민참여의 도시공원의 모델로써 푸른길공원을 정착하여, 시민참여 도시공원을 확대하는 기반이 됨.

- 푸른길관리조례는 시민참여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지속적인 시민참여관리를 보장

- 생태 및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시민참여 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 사업목적

- 유해환경 및 생활상의 환경위해요인에 대한 대응과 개선노력으로 건강한 도시 조성
- 쾌적한 환경을 위해 환경정의와 주민 환경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민지원

□ 사업개요

- 주민들의 거주지역과 일상생활 영위 과정의 환경위해요인을 파악해 분석하고 제거 위한 대응활동 전개함. 특히 방사능 계측기를 통해 대기 중 방사능 농도, 거주지 및 식재료, 생활재료 등에 대한 계측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일상적으로 공개해 시민들에게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함.

□ 사업내용

1. 주민생활 환경위해요인 대응

1) 생활속 방사능 피폭요인 개선

- 최근 아스팔트, 식기건조대, 벽지 등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것들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와 시민들의 일상적인 방사능 피폭 우려가 높은 실정. 방사능 계측기를 구입하여 대기중의 방사능 농도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시민건강을 위협할 방사능 오염 요인 조사하고 제거토록 활동.
- 주 1회, 월 1회, 분기별 1회 등 원인별로 생활속 방사능 오염여부와 농도를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하여 시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 부여.

2) 생활속 환경위해 요인 대응 및 개선 운동

- 석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생활속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과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지원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연중으로 추진함.

2. 환경권 및 환경정의 수호를 위한 주민지원활동

- 1)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장조사 활동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환 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

- 2) 각종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주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견제, 감시활동 지속.
- 3) 주민들의 각종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주민상담, 법률정보 제공으로 환경정의 실현

□ 기대효과

- 환경권에 대한 인식 확대
-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주민과의 연대, 지원을 통해 환경운동의 저변을 확대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 및 전국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 회원단체로서의 역할
 - 광주시의 예산감시, 정책제안 및 견제, 지방자치 감시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
2. 지역내 시민협을 매개로 한 제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 5.18 기념행사 등
3. “chang 2012 총선·대선 광주연대” 활동
 - : 광주시민협, 광주진보연대, 광민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참여
 - 목적- 2012년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와 혁신을 추구
 - 2012 시민적 힘으로 현 정권의 집권연장을 저지하고 민주·진보·평화세력으로의 정권교체활동 전개
 - 광주(호남)의 새로운 정치지형 형성을 위한 노력
 - 한국에서 광주가 지녀왔던 민주 개혁정치의 리더십과 광주의 자존심 회복

[전국환경운동연합]

1. 전국대표자회의 / 분기별 1회
2. 전국국처장단회의 / 월 1회
3. 광역처장단회의 / 격월 예정이나 필요시 개최함
4. 광주, 전남 사무국회의 / 분기별 1회
5. 활동가 동계 수련회 / 연 1회. 2월중
6. 회원대회 / 연 1회. 하계

[푸른광주21협의회]

1. 분과활동 참여
2. 지구의날 기념행사 참여
3. 교류회, 워크숍 등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의 연대활동 참여

2012 1 예산안

2012년 예산(안)

※단위 : 원

수 입 부		지 출 부				
전년도 이월금	50,510,739	경 상 비	공과금	6,000,000		
회 비	어린이·청소년회원		5,400,000	소모품 및 수선비	2,400,000	
	일반회원		144,000,000	비품구입비	2,000,000	
	가족회원		19,200,000	후생복지	18,169,010	
	단체회원		9,000,000	보험료	6,700,000	
	평생회원		2,000,000	인건비	152,987,970	
	특별(임원)		5,400,000	계	188,256,980	
	계		185,000,000	사 업 비	환경교육	35,000,000
후 원 금	후원의밤 등 기부금		48,000,000		기후보호운동	30,000,000
	회보광고		1,000,000		생태도시	25,000,000
	계		영산강광주천		10,000,000	
사 업 비	민간 협력사업	40,000,000	회 원 사 업 비		정기간행물(회보,잡지)	20,040,000
	교육참가비	25,000,000			홍보물제작,우편,수수료	12,000,000
	계	65,000,000			회원모임 지원	1,500,000
	기 타	자료대여, 판매 등			489,261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계		489,261			홈페이지, 자료실 운영	3,600,000
총 계	총 계	350,000,000			조 직 등	정기총회 및 회의
			후원의밤	5,000,000		
			중앙/지역 연대	6,000,000		
			계	159,640,000		
기 타			기 타	예비비	2,103,020	
				계	2,103,020	
			총 계	350,000,000		

2011년 결산 대비 2012 예산안 비교

수 입 부			지 출 부									
항목	2011결산	2012 예산안	항목	2011결산	2012예산안							
전년도 이월금	8,616,202	50,510,739	경 상 비	공과금	4,926,410	6,000,000						
회 비	어린이·청소년 회원	164,845,740		177,600,000	소모품 및 수선비	2,157,500	2,400,000					
					비품구입비	0	2,000,000					
					후생복지	14,304,620	18,169,010					
					보험료	5,937,810	6,700,000					
	가족회원				인건비	112,288,440	152,987,970					
단체회원				계	139,614,780	188,256,980						
평생회원	0	2,000,000		사 업 비	주요사업(연속사업)	환경교육	34,600,310	35,000,000				
특별(임원)	5,060,000	5,400,000				기후보호운동	23,832,835	30,000,000				
계	169,905,740	185,000,000				생태도시	16,082,800	25,000,000				
후 원 금	후원의밤 등 기부금	54,153,440	48,000,000			회원사업	영산강광주천지킴이	2,688,370	10,000,000			
							회보광고	0	1,000,000	정기간행물(회보,잡지)	14,851,000	20,040,000
					계		54,153,440	49,000,000	홍보물제작,우편,수수료	9,307,510	12,000,000	
사 업 비	민간 협력사업	44,386,620	40,000,000		비	조직비	회원 모임 지원	1,500,500	1,500,000			
							교육참가비	18,596,600	25,000,000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2,212,900	8,500,000
							(특)NGO글로벌포럼	105,320,000		홈페이지, 자료실 운영	43,000	3,600,000
							(특)에코아트페어	42,480,000		정기총회 및 회의	2,356,920	3,000,000
				계			210,783,220	65,000,000	후원의밤	3,403,440	5,000,000	
기 타	자료대여, 판매	65,000	489,261	특별사업	특	중앙/지역 연대	5,760,900	6,000,000				
						NGO 글로벌포럼	101,142,602	0				
						ECO 아트페어	26,990,624	0				
						계	244,773,711	159,640,000				
						이자수익	61,339		기 타	기타	차입금 이자 및 상환	5,179,881
기타수익	514,170		예비비		2,103,020							
차입금	5,000,000		계	5,179,881	2,103,020							
계	5,640,509	489,261										
총 계	440,099,111	350,000,000	총 계	350,000,000	350,000,000							

예산 세부(안)

■ 예상수입(안)

※단위 : 원

관	항 목	금 액	내 역
전년도 이월금		50,510,739	
회 비	어린이·청소년회원	5,400,000	3,000×150인×12개월
	일반회원	48,000,000	5,000×800인×12개월
		96,000,000	10,000×800인×12개월
	가족회원	19,200,000	20,000×70인×12개월
	단체·기업회원	9,000,000	50,000×15곳×12개월
	평생회원	2,000,000	1,000,000×2인
	특별(임원)	5,400,000	30,000×15인×12개월
	소 계	185,000,000	(2011년 대비 13% ↑)
후 원 금	후원·기부금	48,000,000	연중
	회보광고	1,000,000	100,000×10곳
	소 계	49,000,000	
사 업 비	민간협력사업	40,000,000	10,000,000×2개(환경교육, 생태도시) 20,000,000×1개(기후보호)
	교육참가비	25,000,000	2,500,000×10회
	소 계	65,000,000	
기타	자료판매	489,261	
	소 계	489,261	
수입총액		350,000,000	

■ 예상지출(안) I

※단위 : 원

관	항	목	금 액	내 역		
경 상 비	운 영 비	통신, 관리	전화, 통신비	2,400,000	200,000×12월	
			건물관리비	3,600,000	300,000×12월	
		소모품 및 수선비	2,400,000	200,000×12월		
		비품구입비	2,000,000			
		후생복지	중식 6,720,000 퇴직11,449,010 소계18,169,010	중식 4,000×7인×20일×12월 퇴직적립금 : 기본급 100%		
			4대보험	6,700,000	8.38%(4대보험)	
		운영비 계		35,269,010		
	인 건 비	기본급	공동의장	23,216,400	1,934,710×12개월	
			사무처장	22,570,320	1,880,860×12개월	
			국장	59,421,960	1,650,610×12개월×3인	
			간사	28,808,880	1,420,030×12개월 1,165,200×8개월 1,165,200×70%×3개월(수습)	
				소계	134,017,560	
		직책수당	7,800,000	공동의장 200,000×12개월 사무처장 150,000×12개월 국장 100,000×12개월×3인		
		상여금	11,170,410	기본급 50%×2회(명절)		
		인건비 계		152,987,970		
		※ 간사 1인, 2011년 결원에 대한 총원(2월부터 근무) ※ 상여금 100%(50%, 2회지급) ※ 직책수당 : 책정된 수당의 50% 지급				
		경상비 합계		188,256,980		

■ 예상지출(안) II

※단위 : 원

관	항	목	금 액	내 역
사	중점 및 연속 사업	환경교육	35,000,000	교육프로그램2,500,000×10회 환경교육 매뉴얼10,000,000
		기후보호운동	30,000,000	책없는 사회만들기10,000,000 햇빛발전소 5,000,000 따뜻한 마을, 시원한 마을 15,000,000
		생태도시	25,000,000	푸른길과 도시재생20,000,000 안전한 생활환경 5,000,000
		영산강· 광주천지킴이	10,000,000	4대강개발사업 대응 : 특별계정 광주천,황룡강 등
		소 계	100,000,000	
업	회원 사업	정기간행 (회보, 함께사는길)	14,040,000	(합·길) 1,800×650부×12월
		홍보물 제작, 우편료	6,000,000	(회보) 500,000×12회
		회원모임 지원	12,000,000	1,000,000×12월
		회원조직 및 참여사업	1,500,000	300,000×5개
		홈페이지,자료실, SNS운영	8,500,000	회원만남행사 1,000,000×2회 회원강좌 2,000,000 회원사랑방개설 3,000,000 소모임 조직 500,000×3개
		홈페이지,자료실, SNS운영	3,600,000	홈페이지 리뉴얼 3,000,000 관리비 등 50,000×12월
		소 계	45,640,000	
비	조직 및 연 대 사업	정기총회 및 회의	3,000,000	정기총회 등 회의
		후원의밤	5,000,000	1회
		중앙/지역 연대	6,000,000	500,000×12월
		소 계	14,000,000	
사업비 합계			159,640,000	
기타	예비비		2,103,020	
	소 계		2,103,020	
(사업비+기타) 계			161,74,020	
지출총액(경상비+사업비)			350,000,000	

[부록]

- 성명서, 논평 발췌
- 언론보도로 보는 우리의 활동
 - 회원 생활수칙
 - 정관

성명서,

논평 받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핵발전소 후보지 일방적인 선정통보에 대해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전남고흥과 해남, 경북영덕, 강원삼척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는 2월 28일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왔다.

한수원과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고흥과 해남지역 주민들은 시민·사회단체, 농·수산단체, 종교계 등을 망라하는 지역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한수원의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의 근거제외와 군수와 군의회의 핵발전소 유치요청에 대한 입장표명, 지역주민 간담회 등의 대응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고흥과 해남 등 4개 지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핵발전소 건설 반대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1982년 전두환군사독재시절 고흥과 해남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이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되었다가 주민들의 강위력한 저지투쟁으로 1998년 해제된바 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한수원과 정부는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과 진행과정을 통해 고흥과 해남주민들의 ‘핵 악몽’을 되살리고 주민을 찬반으로 나눠 갈등과 혼란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후보지 선정의 근거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이고 밀실행정의 산물인 한수원과 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한수원과 정부는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의 근거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4개지역에 핵발전소 유치의 가부(可否)를 결정할 것을 무책임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수원에 지난 2008년 발주한 ‘신규원전 입지확보 정책수립 종합용역’ 결과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묵살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과정 등의 명확한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짜맞추기식 통계수치와 부풀려진 지원금 액수 등 숫자놀음만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지역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수원과 정부는 후보지 선정근거, 부지안전성, 대상지역, 환경영향, 추진일정과 방향, 보상 등의 일련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강 건너 핵 구경은 이제 그만!!’

전남도는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과 유치과정에 책임있는 참여와 역할로 지역내 갈등과 혼란 확산을 막아야 한다.

고흥과 해남의 도민들이 핵발전소 문제로 찬반으로 나뉘어 지역 내 갈등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강 건너 핵 구경’ 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핵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영향은 고흥과 해남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전남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책임행정을 위해서라도 고흥과 해남지역 내 갈등과 혼란의 확산을 막고, 전남도가 표방하는 ‘녹색의 땅 전남’ 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핵에너지 정책 포기만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한다!!

이번 핵발전소 문제는 핵 산업위주의 전력수급계획인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핵발전 전력생산을 현재 36%에서 2030년 58%까지 확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2030년 40여기의 핵발전소를 보유해 ‘핵공포 공화국’ 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한계를 안고 출발하는 근시안적인 에너지 확보방안인 핵발전을 당장 포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1년 1월 25일

고흥핵발전소저지대책위원회/핵발전소건설저지해남군민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순천,목포,보성)/광주시민단체협의회/전남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진보연대(민주노총,농민회,공무원노조,전교조,목포신안민중연대,민주노동당)

4대강사업 영산강 준설공사현장 물고기 떼죽음과 준설토 오염 우려에 대한 성명

- 9월 공사완공을 향해 질주할 것이 아니라,
- 공사를 중단시킨 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산강사업 준설공사 현장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 당한 일이 발생했다.

1월 26일 오전 10시경 영산강사업 6공구 준설공사현장인 광주시 서구 서창동 서창교 500여 미터 상류에서 물고기 수백마리의 사체와 이의 몇배로 보이는 물고기들이 폐사 직전인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수심확보를 위한 육상준설과정에서 설치한 가물막이에 갇힌 물고기들로, 수량부족과 탁수로 인한 산소부족 그리고 적은 수량에서 급격히 하강된 기온으로 인한 폐사로 추정되고 있다.

물고기 집단 폐사는 4대강사업이 생물종들에 대한 보호나 보전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9월 완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속도전으로 강행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일어날수 밖에 없는 사고였다.

이로, 4대강사업 공사과정에 생물종들에 대한 보호나 보전 대책이 졸속이고 사건 발생 후의 대처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 4대강공사현장에 생물종 보호 대책과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매뉴얼이 없거나,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가물막이를 설치하고 물을 빼내는 과정에 물고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으며, 이로 집단 폐사 사고가 26일과 이전에도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조차 못했고 대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 환경청은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생된 문제를 축소시키는 등 졸속으로 대처하고 있다.

폐사 현장에서 어떤 중들이 얼마나 피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본 확인 절차도 없었었다. 공사현장에서 오염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백마리가 폐사한 사실이 현장에서 바로 확인 되는데도, 20여마리가 죽

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있는 환경청은 피해상황을 축소시켜가며 공사가 그대로 강행되도록 협조 하는 있는 꼴을 보이고 있다.

- 현장에서 보이는 준설토가 색깔과 냄새로 확인해 보면 오염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준설토를 가물막이용으로 활용하거나 농지리모델링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등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토양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준설토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공사 시행전 계획단계에서 토양검사를 한 것 외에 공사 진행중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준설토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심확보를 위해 하천 바닥을 대량으로 준설하는 사업을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선전하기에 급급할 뿐 준설토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은 반생명사업이다. 물고기 폐사뿐만이 아니다. 영산강 전 구간에 동시다발로 강행되고 있는 공사로 자연습지는 거의 파괴되고 생명이 살수 없는 강으로 변해가고 있다.

대통령의 의중대로 준설과 보 공정은 9월 완공이라는 목표향해 오로지 질주할 뿐이다. 부작용과 폐해를 부를 것임이 자명하다. 집단 폐사된 물고기들이 그 피해를 증명하고 또 경고하는 있는 것이다.

공정물을 앞세워 기 시작된 사업은 마무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생명·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다. 4대강사업이 강살리기인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 전면 검토해야 한다.

2011년 1월 27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는 안전한가?

3. 11 일본 토호쿠 대지진과 초대형 쓰나미 희생자 애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과 방사능 위협 핵은 악(惡)일뿐! 핵발전소 확장정책은 폐기돼야...

일본열도를 삼켜버린 토호쿠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등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수만의 사람과 못 생명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일본 대지진은 인간의 과학에 대한 과신과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배우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라 할 것입니다.

우리정부 “다르다”, “안전하다” 만

세계 6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으로 21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인 우리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과 방사능 유출을 보고도 ‘다르다’, ‘안전하다’ 만을 강조하고 하고 있다. ‘다르다’, ‘안전하다’ 는 우리정부의 자신감(?)은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지진에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체르노빌 등의 핵발전소 사고가 보여주듯 지진 등의 외적인 요인보다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보다 주요한 원인임을 주지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녹색성장’, ‘원자력 르네상스’ 등의 장밋빛 구호를 우선하며, 핵에너지 확장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도 삼척, 울진, 영덕 등에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을 위한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지역 고흥과 해남이 포함되었던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선정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부지선정제 1원칙은 안전이 아닌 공사의 편의와 민원의 최소화였다. 예정부지의 지질, 환경 등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자료나 발표도 없이 진행되었다. 안전불감증 말기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영광핵발전소는 안전을 자신할 수 있는가?

영광핵발전소는 1986년 1호기를 시작으로 총 6기가 상업운전 중이다. 지난 10년새 규모 5에 가까운 강진 두 차례를 비롯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58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관측되고 있으며, 지진의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결코 영광핵발전소도 지진 등 외적요인에 의한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를 대비해야하는 영광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 은 발생확률의 희박함을 강조하며, 주민보호조치에 있어서도 사고의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표현들만이 강조되

고 있다. 만에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 비상계획이 과연 사고시 대책으로써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 폭발로 유출된 방사능이 120km거리에서도 측정된다고 한다. 40여 km 내에 위치한 광주를 비롯한 전남·북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 대전과 충남일부, 경남일부가 영향권에 들게 된다. 자만과 과신이 아닌 안전대책에 대한 재검토와 보다 겸손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D 에너지 핵발전소는 폐기되어야 한다.

9.93kw/ha로 원전밀집도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원전밀집도는 안전과 연계되는 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핵발전소를 2030년까지 40여기로 늘리는 핵에너지 확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기후변화의 대안인양 포장하고 프로파간다(propaganda)식으로 선동하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의 성과로 UAE원전 등 80여기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하기도 했다.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성을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등은 핵공포를 더욱 키우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는 수명연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월성원전 등의 수명연장 논의와 현재 수명연장을 통해 가동되고 있는 고리원전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지역의 영광원전도 2016년 1호기를 시작으로 수명을 다하게 된다. 수명연장은 언급조차 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핵발전소를 폐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위험하고(Dangerous), 더럽고(Dirty), 곤란한(Difficult) 3D에너지. 핵발전소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핵공포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생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

2011. 3. 15.

광주환경운동연합

영암호에 20m 통선문 설치 발표에 따른 운하사업 규탄 성명

영암호 20m 통선문 설치, 결국은 운하사업! 운하사업인 4대강공사 즉각 중단하고 정부와 박준영전남지사는 국민앞에 사죄하라!

○ 3월 22일 전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암호에 20m 규모의 통선문 설치공사가 곧 착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선문이 2012년 까지 완공되면 1천톤급 여객선과 500톤급 관광유람선, 황포돛배, 요트 등이 죽산보를 거쳐 승촌보까지 70여km 구간을 자유롭게 왕래 할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20m 통선문은 5000톤급 배도 왕래가 가능한 규모이다.

○ 그간 정부는 통선문이 없다는 것을 4대강사업이 운하사업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준설과 보가 완공되어 간다는 시점에 영산강 영암호에 통선문을 반영시켜 운하사업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얼마든지 4대강 모든 보에 통선문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 이 영산강 통선문 계획이 증명하고 있다.

○ 자연 평균수심이 1~2m 이내인 구간까지 수미터 파내는 준설공사, 수위유지용 댐인 보건설, 수위조절을 위한 상류댐증고는 최소 수심 5m이상, 수로폭 200m이상이 되도록 강을 개조하는 것이다. 수천톤급 배가 다니도록 하기 위한 운하건설사업인 것이다.

○ 망국적 운하사업 때문에 영산강 인근 주민들은 생존과 생명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공사중에는 지하수 고갈, 공사후는 지하수 침수, 홍수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습지가 다 파괴되어 영산강 생물종 들은 서식처를 잃었고 댐增高로 주민들의 삶터가 수몰될 위기에 있다.

○ 정부와 박준영전남지사는 영산강에 수천톤 관광선이 다니는 것이 영산강의 옛모습을 복원하는 것이고, 지역민의 숙원이라는 거짓 주장을 해왔다. 4대강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민여론을 왜곡해 온 것을 지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거짓 선전에 앞서 국민의 혈세로 목포에서 광주까지 최소 10~1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관광유람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 국민의 식수원이며 생명줄인 강을 볼모로, 정부와 지방정부 수장이 국민을 기만하면서 운하건설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국민앞에 사죄하고 4대강사업 운하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를 최소화 하고 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년 3월 22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광주호 독높이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문화유산과 생태경관을 훼손하는 광주호 독높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광주호독 높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해대책, 하천수 확보를 위해 광주호 독을 2.1m를 높이고 수위는 2~3m를 높인다는 것이다. 독높이기 사업으로 589만m³물을 추가 확보하여 매일 23,600m³ 물을 영산강으로 흘러 보낼 구상이다. 많은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말 실시설계 완료, 11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 광주호 독높이기는 타당성이 없다. 현재 광주호물이 부족하기는커녕 오히려 연간 약 1,600만m³ 물이 남는다. 이런 광주호 독을 높여서 물을 채우고 또 하류의 홍수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의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광주호 상류쪽은 오히려 홍수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광주호 독을 높여서 물을 더 흘러보내야 한다는 객관적 근거와 타당성 또한 없다.

정밀안전진단결과 여수토가 D급이어서 시설보강이 시급하다면 이 여수토를 보강하면 될 일이다. 독 전체를 높여야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기어코 독을 높여 물을 더 채우려는 의도가 4대강사업의 주목적인 영산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광주호 주변 무등산 경관과 시가문화권, 호수생태원이 훼손될 위기에 있다. 무등산권 광주호 주변은 우리나라 15~16세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현장이다. 시가문화권, 가사문화권, 사림문화권, 누정문화권으로 표현되는 역사문화 자원의 보고이다. 식영정 20영, 소쇄원 48영 등으로 명명되어진 생태·문화경관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자원이다. 이런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인간의 삶과 세상을 노래한 현장이 훼손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정자 등의 문화재가 수몰되지 않는 것으로 훼손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주호 수위 상승이 독 인근의 문화재인 수남학구당, 호수 상류부근인 식영정 일대, 환벽당, 소쇄원 등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지형변화를 불러 문화역사자원의 가치 하락이 명백하다. 노자암 완전 수몰, 호수생태원 수몰, 광주시 지정 기념물인 왕버들나무의 영향 등의 피해 또한 크다

○ 문화가 흐르는 4대강은 허구이다.

광주호 독높이기사업은 이명박정권이 대형 국책사업으로 강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문화가 흐르는 4대강을 만들겠다는 선전해왔다. 우리나라 대표

적인 역사문화 자원과 생태경관을 훼손해 가며 강과 문화를 살린다는 논리는 이미 허구임을 입증하고 있다.

○ 주민들이 반대하는 광주호 독높이기. 정부는 중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

광주호 독높이기가 부당하다고 광주시, 광주시 북구, 광주시의회, 그리고 지역민, 학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장해왔다. 지자체가 반대하고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독높이기를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대로 완료하려 하고 있다. 홍수와 가뭄대책을 사업 이유로 내세우지만 주요목적은 영산강 유지용수 확보 즉 영산강 수위유지이다. 4대강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강 상류 독높이기를 강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분명 지탄 받을 일이다.

○ 반민주적이고 반문화적인 4대강사업 독높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하더니 막대한 예산을 편법으로 전용하여 4대강 사업을 홍보 해온 현 정권에 대한 염증과 분노가 어제 재보선 결과로 나타났다.

반대 여론에도 타당성 없는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업을 추진한 모든 주체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독높이기 저지를 위해 모든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11. 04. 28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4대강사업 영산강 준설로 인한 농민피해 또 발생

- 준설로 수위 낮아져 양수장 기능 못해
- 본격적 벼 파종(직파), 모내기 준비철임에도 물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농가 피해 발생

속도전 무대책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평균 2~3m이상 하상을 낮추는 영산강사업 준설공사로 하천 수위가 낮아져 기존 양수장 취수탑에 수위가 미치지 못해 벼농사 물공급에 장애가 발생했다.

영산강 6공구 해당 지역인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양수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여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5월 18일 저녁 양수장 취수탑에 물이 닿지 않는 상황에 양수기 모터가 운전되어 과열되고 고장이 나기까지 했다.

벌써 싹틔우기, 논고르기, 파종(직파), 모내기 등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나, 물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농사일에 장애가 발생하여 농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백마양수장의 경우 임시 양수기를 동원하여 물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6공구 시공업체인 한양건설측은 가물막이를 설치하여 수위를 높여 양수장도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인근 서창동 농민은 한양건설측에 준설로 인한 양수문제를 지난 2월부터 언급하고 대책을 요구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대대적 준설공사가 진행된 광주천 합류점 이후 영산강의 30여개가 넘는 양수장에서 양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준설공사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대책은 없었다. 공사를 위한 구간별 임시가물막이가 일정 수위를 유지해주는 기능을 했었으나 지난 주 가물막이를 철거된 이후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서 양수에 문제가 불거졌다. 공사업체들은 일괄 수위가 낮아질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준설공사로 지난 12월부터는 지하수고갈 문제, 지난주에는 수도관이 파손되어 식수 등 물공급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어 본격적 농사철인 현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지경이다.

4대강사업이 졸속임이 계속 증명되고 있고, 피해 역시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지시한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는 속도전이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을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된다. 재난을 키울 뿐이다. 6월부터는 우기가 시작된다. 4대강공사로 몬류 뿐만이 아니라 지천에 까지 피해가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와 공사업체는 무리한 속도전을 중단하고 피해 조사와 대책수립,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은 피해조사와 함께 홍수시기를 앞두고 하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1. 5월 19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기자회견문]

광주호 독높이기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망국적 4대강사업이 온 산하를 흔들고 있다.

이곳 무등산 자락에 까지 4대강사업 망령이 뻗쳐 우리나라에 다시없는 역사 문화 현장을 수몰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정권 4대강사업으로 시작된 광주호 독높이사업이 홍수·가뭄·안전대책이라는 포장을 하고, 지역발전이라는 허울을 쓰고 기어코 삽을 들려하고 있다.

광주호 독높이기는 재난대책도 생명안전 대책도 아니다. 강바닥을 파헤친 영산강에 물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다. 보에 가로막혀 썩어 버릴 영산강 물을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4대강사업에 궤를 맞추고 영산강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을 만든다며 화려한 그림과 말로 선전을 해왔다.

이 문화로 지역이 잘살게 될 것이라고 호언해 왔다. 이런 4대강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독높이기를 강행하며 문화유산을 수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타당성 없는 망국적 사업을 두고 문화와 지역발전 운운하는 것은 허구다.

4대강사업을 포기해야만 최선의 재난대책을 세울 수 있다. 문화가 살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 완성하기 위해 속도전으로 강행하고 있는 광주호 독높이기는 권력의 폭압이다.

우리는 오늘 돌입하는 천막농성과 함께 반문화적 반민주적 독높이기 사업으로부터 국토와 역사문화 유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다.

광주호 독높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2011. 5. 21

광주호 독 높이기 저지 연대

영산강이 홍수에 강해진 것이 아니라, 홍수해를 가중시킬 위험이 커졌다!

- 여전히 4대강사업 홍보, 선전에 급급한 정부.
- 사실과 진실은 영산강이 홍수에 강해진 것이 아니라, 급격히 변화된 영산강이 홍수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 가당치 않는 홍보 선전을 중단하고, 홍수·장마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대비를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는 4대강사업 준설공사로 수위가 낮아져 영산강이 홍수에 강해졌다고 홍보 선전하고 있으며, 정부의 선전 내용이 지역 일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된 바 있다.

속도전 토목공사로 영산강 지형을 급격히 변화시켜 영산강과 지천에 그간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 적은 비에도 두드러지고 있다. 본격화될 장맛비에 어떤 변화와 영향, 이에 따른 피해가 생길지 우려되는 상황에, 다목적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으로 4대강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정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준설과 제방보강, 보 건설 등으로 홍수해에 안전해졌다는 정부 주장은 틀렸다. 수미터 굴착과 준설로 수위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준설로 홍수피해가 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4대강사업 이전에도 영산강의 하상은 이미 낮아져 있었다. 그간 영산강권역의 홍수피해는 영산강 본류의 하상과 수위가 높아져서가 아니었다. 배수펌프장 미가동, 제방부실(특히 지천), 상류댐 방류로 급격히 늘어난 유량에 취약한 제방 유실과 지천 범람, 지천 배수장애, 좁게 만든 수로가 주요 문제고 원인이었다.

더욱이 보를 완공한 후 수위는 현재 평수위보다 상승시켜 관리한다는 것이 4대강사업의 목표이다. 준설로 수위가 낮아진 것을 두고, 또 최근 그리 많지 않은 비의 결과로 피해가 없고 홍수에 강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오히려 준설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적지 않았다. 준설공사로 수위가 낮아져 지하수가 고갈되어 1년 미나리 농사를 망친 농가가 한둘이 아니다.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주민들 고충도 적지 않았다. 역시 수위가 낮아져 양수장이 가동이 안되 벼파종, 모내기시기를 놓치기도 했다. 막무가내식 준설로 상수도 관로가 훼손되어 용수공급이 안되었고, 안전장치없는 준설로 탁수 발생, 물고기 집단폐사, 암반 굴착과 폭파로 물고기 집단폐사,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습지 파괴, 준설토 먼지피해, 가축폐사 등등 준설로 인한 피해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사업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특히 더 우려되는 것은 막대한 준설 결과 최근 적은 비에도 하상 보호공이 일부 유실되고(지석강 등), 지천과 수로 하류부터 무너지듯이 깎이고, 호안이 무너지고, 둔치가 주저앉는 현상이 너무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홍수피해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4대강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소홀하고 홍보선전에 급급하다. 4대강사업이 마치 모든 홍수피해를 방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선전해 왔다. 그러면서 4대강공사로 일어난 불안한 변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별일이 아니란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4대강 사업 홍보에 수궁할 국민은 없다.

정확한 사실과 진실은 영산강이 홍수에 강해진 것이 아니라, 급격히 변화된 영산강이 홍수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이다.

홍수·장마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우선이다. 4대강사업 선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 재산보호가 먼저다.

가당치 않는 홍보 선전을 중단하고, 홍수·장마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대비를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7월 6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MB 한반도대운하 실현에 전남도가 앞장서나? 영암호 통선문 추진 중단하라!

- 전남도 영암호 통선문 요구는 목포~광주 영산강운하 건설 완성하려는 의도
- 타당성 검증 없이 4대강사업 설계변경으로 통선문 건설은 명백히 법위반
- 타당성 없는 통선문반영은 운하사업 공식화. 기만적인 운하 건설을 강력 저지해 나갈 것임.

박준영 전남지사는 현재까지도 영산강운하건설을 고집하고 있고 4대강사업으로 완성하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 임기내에는 운하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4대강사업으로 운하형 수로를 건설하고, 운하는 다음 정권이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긴 했으나, 통선문 터미널 등은 본인 임기내에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국민선언을 했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4대강사업이 운하사업이 아니라는 변명을 해왔다.

그러나, 운하건설 마침표라 할 수 있는 통선문을 영산강 영암호에 반영시켜, MB 영산강운하 건설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 박준영 지사가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 박준영지사는 4대강사업인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에 통선문을 반영 시켜달라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영암호 방조제에 통선문을 반영시켜기 위해, 논리적 근거가 엉터리인 내용을 배경 설명으로 설문조사까지 했다.

영산강운하는 타당성이 없다. 광주에서 목포까지 12시간(영산호 영암호 연락수로를 포함하면 그 이상), 영산포에서 목포까지 7시간 이상 소요될 뱃길이다. 영산포에서 출발한 관광유람선이 다도해 해상까지 연계되어 관광유발효과가 클것이라고 하는데, 십수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뱃길로 어떻게 관광이 활성화 된다는 것인지, 영암호 통선문이 어떻게 영산호에 해수를 유통을 시켜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타당성이 있건 없건 전남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왔다는 것을 두고 준비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

70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이런 통선문 건설을 위해 마치 타당성이 있고 준비된 사업인양 포

장하고 있는 것이다.

통선문은 건설 비용만의 문제 아니다. 운하사업을 하게 되면 영산강은 하천이 아니라 운하형 수로로 영원히 전락한다. 하천은 악화되고 낭비성 유지 관리비용을 계속 쏟아부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영산강운하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영산호 해수유통 등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이다. 하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주민의 생명안전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영산강은 용수 공급처이자 홍수기에는 주민 재산과 생명안전과도 밀접한 공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타당성 없는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혈세 낭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할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만일 중앙정부가 타당성 검증절차 없이 현재의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 설계 변경만으로 통선문을 반영한다면, 4대강사업이 운하건설이라고 공식화 한 것이다.

정부가 이 수순을 밟았을 때는 운하를 공식화한 전남도와 정부를 규탄하고 운하저지를 위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다.

2011년 7월 21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기자회견문 _4대강사업 승촌보 개방 행사에 대한 기자회견>

‘4대강 복원 촉구 기자회견’

가짜 강살리기 선전 중단하고, 강물을 흐르게 하라!

정부는 4대강사업 본류공사가 마무리 되어 간다는 현재, 100억이 넘는 혈세를 들여 4대강사업이 성공적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사업, 특히 영산강사업이 성공적이고 지역의 여론도 긍정적이라며 각종 매체를 통해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내세운 영산강 사업의 목적은 수질개선, 물부족과 홍수 대비, 지역경제 발전이었다. 그러나 영산강 수질과 생태계는 정부 검토 결과에서도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지, 지난 홍수기 직후 보 수문을 닫고 몇일 지나지 않아서 심한 녹조현상이 발생했다. 보건설로 인한 정체수역의 증가로 서식 어종도 단순화 되고 생태적 다양성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도 파악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정작 물부족 문제와 홍수 피해를 걱정했던 지역과 무관한 영산강 본류공사로 본류 그리고 지천 지역까지 홍수와 재난 문제를 걱정해야할 판이다.

영산강 사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던 주장도 거짓이었다.

영산강 뱃길이 열려 지역이 발전되고, 영산강 문화가 되살아 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산강 물길을 가로막아 호수로 만들고 인공수로화한 기초 위해서는 영산강 문화살리기도 지역 발전도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살리기와 무관한, 물길을 막아 물을 채우고, 자전거도로에 인공공원을 만들어서 강이 살아났다고 막대한 혈세를 들여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전방위로 광고하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화려하게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4대강 사업의 허구를 감출 수는 없다.

체대로 된 정부라면 4대강사업을 엄정히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 검증과 증명도 못하면서, 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정부의 실체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계획을 밝힌다.

1. 오늘 오후 이곳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곳곳에서 진행될 정부의 4대강사업 선전행사 역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전방위로 펼치고 있는 거짓 강살리기 선전과 선전행사를 중단해야 한다.
2. 준설과 보건설, 인공 공원 조성 등 영산강 본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영향과 피해도 본격화 될 것이다. 지천에까지 미치는 비정상적인 침식과 준설구간 재퇴적, 보로 인한 영산강 수위 상승으로 주변 지하수위 상승과 침수도 예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4대강사업이 영산강 자연습지를 파괴하고 인공 수로로 만들어 강의 생명력을 상실시켰다. 이런 4대강사업 완공을 위해 본류 공사 뿐만이 아니라 농업용 저수지增高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영산호 수질대책과 무관한 하구둑 구조개선사업과 통선문 논란까지 계속되고 있다. 4대강 공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4대강사업 완공을 위해 이 모든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강을 회생시키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4. 우리는 영산강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을 검증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강 복원을 촉구하는 대안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1년 10월 22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광주·전남(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1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은 매년 말 한 해를 되돌아보고 이후 지속가능한 녹색 광주전남의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환경현안으로 부각되는 사안 중에서 10개를 선정,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2011년 올해는 ▲4대강사업 영산강공사로 인한 피해 확산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갈등 ▲후쿠시마 핵사고로 방사능 공포 확산 ▲고흥, 해남군 핵발전소 후보지 신청포기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감소 등 농어민 피해 ▲전남도내 지리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도시환경정상회의 광주시 개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청신호 ▲환경시설 부실 및 비리 논란 ▲영산강하구둑 저층수배제시설 논란 이 선정되었다.

4대강사업,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등의 난개발 문제 가 지난해에 이어 2011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에도 선정되었다.

이명박정권에 들어서면서부터 현재까지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규제완화와 타당성 검증이 결여된 토목사업, 핵발전소 확장정책을 강행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도 부작용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등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환경정상회의 개최 등 우리 지역의 자연자원에 대한 가치 부각과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도시에서 제기하는 등의 뉴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대강사업의 일환인 영산강 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해 확산 / (광주·전남)

4대강 영산강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속도전 공사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준설과정에 상수도관이 파손되어 급수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준설로 수위가 낮아져 양수장이 취수를 못해 모내기철 농민피해도 있었다. 물고기 떼죽음, 녹조 현상 등 환경피해도 컸다. 역행침식, 재퇴적 등 사업의 부실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런 과정에 정부가 검증안된 4대강사업 성공을 알리고자 막대한 예산으로 보 개방행사를 비롯한 무리한 광고와 홍보를 펼쳐 비난을 사기도 했다. 지천에 까지 4대강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과 4대강 관리 예산을 확보한다는 근거로 강 주변 난개발 계획도 드러나고 있어,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을 보인다.

2. 광주댐 등 광주전남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갈등 / (광주전남)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이 광주전남에서만 23개, 총사업비 6,000억원에 달한다. 영산강과 섬진강에 일정한 물을 흘려 보낼 목적으로 영산강 7천만톤, 섬진강 1천만톤을 추가 담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납득할만한 타당성 검증 없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독높이기 사업을 동시다발로 강행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광주호 독높이기사업의 경우, 주변에 문화 유산이 산재하고 있고 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독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이 컸다. 독높이기는 취소하고 독을 보강만 하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4대강사업의 일환인 만큼 독을 높여 추가 담수해야만 한다는 정부와의 입장 충돌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3. 후쿠시마 핵사고로 방사능 공포 확산. 그러나 정부는 안전불감증 핵발전소 확장 정책으로 비난 불러 / (광주전남)

3월 11일, 일본 쓰나미의 여파로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붕괴 되면서 핵발전소 안전 신화가 무너지고 핵사고 인한 방사능 공포까지 겪는 한해였다. 정부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방사능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핵사고 이후 불과 몇 일 지나지 않아 비 등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안전대책이 비난을 샀다. 핵사고 이후 영광발전소가 위치한 광주전남지역에도 핵발전소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런 정서와는 반대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핵발전소 1, 2호기 출력증강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영광핵발전소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라며 주민의 생명안전을 고려치 않은 영광핵발전소 출력증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고흥, 해남군 핵발전소 후보지 신청 포기 / (전남)

지난해(2010년) 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신규 원전입지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용역의 결과나 선정이유, 안정성 관련 내용, 최종 결정과정 등 어떠한 내용도 밝히지 않고 원전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해남, 강원 삼척, 경북 영덕 등을 일방적으로 선정, 관련 지자체에 유치신청을 요청해 논란과 반발을 샀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즉각 핵발전소저지 대책위를 구성, 핵발전소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올해 초 보성군에 이어 전남 고흥과 해남군이 핵발전소 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5.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감소 등 농어민 피해 계속 / (전남)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감소 등 농어민 피해가 계속되고 범위도 커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영향으로 장성의 특산물인 단감 생산량도 대폭 감소하였고, 토종별이 폐사하는 등 한봉농가의 피해도 큰 한해였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남 남서안 해수면이 상승하고 갯벌 환경이 변하는 등 변화와 영향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상기상 대응 농작물 재배관리 백서' 를 발간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아직 역부족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책마련과 조사 및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6. 전남도내 지리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 (전남)

MB정권이 개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어느때 보다 컸다. 결국 올해 말, 환경부가 지리산과 월출산권 4개 시군의 후보지 7곳을 대상으로 검토한 후 내년 6월까지 케이블카 설치 시범지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립공원과, 생물종 다양성을 보전해야 의무를 갖고 있는 환경부가 지역발전과 관광활성화 명분으로 한 국립공원 개발 요구에 굴복한 결과로, 이후 갈등과 논란은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

7. 도시환경정상회의 광주시 개최 / (광주)

200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루어진 도시환경협약 이후 처음으로 개최 되는 도시환경정상회의가 올해 광주시에서 있었다. 국내외 113개 도시와 12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였고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환경도시의 기준과 그 목표달성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광주선언을 발표했다. 온난화 및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의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각한 것은 긍정적이나,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 같은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협의 되지 못한 아쉬움과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8.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청신호, 무등산 주상절리대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 (광주)

2010년 말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하고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무등산보호단체 등의 지속적인 국립공원 승격운동 등을 비롯한 광주시 노력의 결과, 12월 1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였고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을 크게 두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7월 문화재청에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를 신청하면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무등산의 생태환경과 지형지리적 가치, 역사 문화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9. 환경시설 인허가 및 선정과정에 부실과 비리 논란 / (광주)

광주에서 환경처리시설 인허가 및 선정 과정에 부실과 비리 논란이 있었다. 광주시 남구청이 건축 허가한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잘못되었다는 남구 양과동 주민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광주시가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광주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남구청에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 건설사들이 총 사업비 982억원에 달하는 광주광역시의 총인(TP)처리시설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설계심의위원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있었다. 부실한 허가절차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과정에 공무원들까지 연계된 비리 부정 의혹이 있어 광주시민들의 실망이 컸다.

10. 다시 대두된 영산강 저층수배출시설 / (전남)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영산강 하구둑구조개선사업에서 철회했던 저층수배출시설이 사실상 시공중임이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어민 및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저층수를 배출할 수 있는 관로를 설치 할 것이라며, 하구둑 공사 이후에 신규 설치 시 329억의 사업비가 필요하게 됨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저층수배출시설의 일부인 지하매설시설을 28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0년 출범한 영산강목포앞바다살리기 범시민대책위는 영산호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는 저층수배출시설은 설치되어서도 안되며 당초 사업비 28억을 포함한 101억을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1. 12. 27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

언론보도로 보는

우리의 활동

[고흥] 군의회, '원전 유치 반대'...환경연합 '지지'

2011년 02월 07일 (월) 16:50:13 김누리 기자 ✉ knr8608@hanmail.ne

고흥군의회, '원전유치 반대' 입장 발표 광주환경운동연합 "고흥군의회 반대, '환영'"

한국수력원자원(주)(이하 한수원)이 지난해 11월 26일 고흥, 해남, 삼척, 영덕 등 4개 지역을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일방통보 한것에 대해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신태균)가 '원전유치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고흥군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원전유치를 반대한다” 고 밝혔다. 고흥군의회는 " '고흥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청정이미지' 와 '군민화합과 발전' 을 위해 고흥군의회 의원 전원이 '원전유치를 반대한다' 는 신중한 결론을 내린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아래 고흥군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전문 참조)

또 고흥군의회는 “원전유치로 인한 청정이미지 훼손은 주력 산업인 농·수·축산물의 선호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청정 과학시설이 랜드 마크가 되어 부상할 관광수요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흥군의회는 “의견을 달리했던 서로의 갈등과 반목을 용해시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열정과 힘을 함께 실어 주시기를 소망한다” 고 당부했다.

이 같은 고흥군의회 반대 성명에 대해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임낙평, 이하 환경련)이 환영의사를 밝혔다.

환경련은 이날 환영논평을 내고 “고흥군민에게 신묘년 새해 선물로 '원전유치 반대' 선물을 안겨준 고흥군의회 신중하고 현명한 결단에 뜨거운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고 말했다.

환경련은 또 “고흥의 결정이 한수원이 검증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핵발전소 행보가 전면철회 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고흥, 해남, 삼척, 영덕 등 4개 지역을 신규핵발전소 후보지로 일방통보하고 해당 지자체에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 을 오는 2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유치신청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영광원전 안전대책 재검토를"

기사등록 일시 : [2011-03-15 15:55:31]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지난 10년 사이 규모 5에 가까운 강진 두 차례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58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관측되고 있으며, 지진의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결코 영광핵발전소도 지진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하는 영광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은 발생확률의 희박함을 강조하며, 주민보호조치에 있어서도 사고의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표현들만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만에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 비상계획이 과연 사고시 대책으로써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자만과 과신이 아닌 안전대책에 대한 재검토와 보다 겸손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 6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으로 21기의 핵발전소를 운영 중인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과 방사능 유출을 보고도 '다르다', '안전하다'만을 강조하고 하고 있다"며 "'다르다', '안전하다'는 우리정부의 자신감(?)은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지진에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체르노빌 등의 핵발전소 사고가 보여주듯 지진 등의 외적인 요인보다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보다 주요한 원인임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도 삼척, 울진, 영덕 등에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을 위한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흥과 해남이 포함됐던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부지선정 제1원칙은 안전이 아닌 공사의 편의와 민원의 최소화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는 수명연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월성원전 등의 수명연장 논의와 현재 수명연장을 통해 가동되고 있는 고리원전 또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영광원전도 2016년 1호기를 시작으로 수명을 다하게 된다"며 "수명 연장은 언급조차 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핵발전소를 폐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 누구도 핵공포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며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생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등 그에 맞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rsevere9@newsis.com

공감언론 **NEWSis.** () 국내 최대
민영 뉴스통신사
2001-2012

광주환경운동연합 "영광원전 안전대책 재검토를"

| 기사입력 2011-03-15 15:55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지난 10년 사이 규모 5에 가까운 강진 두 차례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58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관측되고 있으며, 지진의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결코 영광핵발전소도 지진 등 외적요인에 의한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하는 영광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은 발생확률의 희박함을 강조하며, 주민보호조치에 있어서도 사고의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표현들만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만에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 비상계획이 과연 사고시 대책으로써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자만과 과신이 아닌 안전대책에 대한 재검토와 보다 겸손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 6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으로 21기의 핵발전소를 운영 중인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과 방사능 유출을 보고도 '다르다', '안전하다'만을 강조하고 하고 있다"며 "'다르다', '안전하다'는 우리정부의 자신감(?)은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지진에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체르노빌 등의 핵발전소 사고가 보여주듯 지진 등의 외적인 요인보다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보다 주요한 원인임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도 삼척, 울진, 영덕 등에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을 위한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흥과 해남이 포함됐던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부지선정 제1원칙은 안전이 아닌 공사의 편의와 민원의 최소화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는 수명연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월성원전 등의 수명연장 논의와 현재 수명연장을 통해 가동되고 있는 고리원전 또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영광원전도 2016년 1호기를 시작으로 수명을 다하게 된다"며 "수명연장은 언급조차 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핵발전소를 폐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 누구도 핵공포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며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생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등 그에 맞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rsevere9@newsis.com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시급”

日 원전사고로 국내 ‘에너지 정책’ 논쟁 점화 … 광주서 토론회

2011년 03월 21일(월) 00:00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쟁은 정치권에서도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 에너지기후변화센터 공동 주최 ‘신재생 에너지, 광주·전남의 희망인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광주·전남지역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주 목포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실태와 잠재력’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광주·전남지역은 풍력 해상 에너지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고, 태양열 흡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1일 수평면 전일사량도 높기 때문에 풍력·태양광 에너지 산업의 잠재력이 풍부하다”며 “현재 원자력이 전력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지만 태양·바람·지열·해양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점차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전망과 국가정책’에서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지만 답보상태에 있다”면서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풍력·태양광 등 발전 잠재력은 높으나 실질적 투자와 발전량은 타 시도에 비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기술경쟁력 강화와 금융·인력·세제 등의 기업성장 기반을 확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제안했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전 세계 핵발전소 용량은 1990년 329Gw(기가 와트)에서 2000년 349Gw, 2010년 376Gw로 20년동안 47Gw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반면 태양광 에너지는 10년 동안 40배 이상 성장했고, 풍력의 경우 30배 이상 신장된 만큼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정부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말하지만,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 르네상스 시대”라며 “2050년을 장기적 목표로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정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원전의 안전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국내 에너지 수급상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원전의 안정성 제고와 대국민 홍보를 정부 당국에 당부하는데 주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확산하고 있다”며 “유언비어 유포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치명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위험한 행위”라며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방사능 피해가 우려되고 이것이 현실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 발전을 기본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원전이 친환경적이라는 궤변을 중지하라”고 말했고, 국회 지식경제위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은 ‘트위터’ 글에서 “원전 건설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댐 독높이기 반대" 환경단체 커지는 목청 "호수생태공원 환경영향평가 할 필요 없어"

입력시간 : 2011. 03.22. 00:00

광주댐 독 높이기 사업과 관련, 광주시가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환경영향평가를 독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가 실시할 예정이어서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하나마나 한 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21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댐 독 높이기 사업 반대 추진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댐 독 높이기 사업을 통해 광주댐 상류에 135억원을 들여 조성한 호수생태원에 환경파괴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이와함께 공사 전제조건으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했고, 농어촌공사는 사업비 7억원을 들여 다음주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독 높이기 사업 주체인 농어촌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데 따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측은 "4대강 사업 추진에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업 주체인 농어촌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지 미지수"라며 "독 높이기 사업으로 발생할 환경변화를 고심해야 할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설득 작업에만 힘을 쏟아왔다"고 비난했다.

환경연합측은 이어 "최근 금강 일원 총북지역 3곳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독 높이기 사업이 취소되거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의 틀러리로 전략해 줄속으로 추진되는 독 높이기 사업은 전면 백지화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반대서명운동 등을 통해 독 높이기 사업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댐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 댐 독 높이기 사업 반대 추진위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종현 반대위 위원장은 "독 높이기 사업을 할 경우 수위상승으로 지하수 수위도 함께 올라가 인근 재배농가의 농작물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갈수기에도 단 한 번의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굳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명분없는 독 높이기 사업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sskim1@jnilbo.com

"원전정보 투명 공개해야"...전문가 토론회 한목소리

| 기사입력 2011-03-29 17:51

【광주=뉴시스】 안현주 기자 =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학자와 반핵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 원전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모처럼 한목소리 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29일 서구 치평동 광주NGO센터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원전에 대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승평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을 전공한 학자로서 '원자력'이라는 단어가 국민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인사를 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에 전력망이 확충된다고 해도 문제가 끝나지는 않는다. 용융물질이 해수나 공기로 나가게 된다면 인류의 재앙은 견잡을 수 없을 것이다"며 "원전사고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문제인 만큼, 작은 정보까지 공유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원전이 일본보다 100배 이상 안전하다'고 안심시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긴 힘들다'고 장담했지만 지금 곳곳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실시간 감시를 운운하던 정부가 4일이 지나서야 방사능 검출 소식을 외부에 알린 것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도 운이 좋아서 대형사고로 발전하지 않은 원전사고가 잦았고, 이러한 사고들을 정부 스스로 알려진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원전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기술로 원자력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독일처럼 원전

정책을 유턴해 재생가능발전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영광에서 반핵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용국씨는 "영광원전 3·4호기에서 미확인 용접부 43 곳이 뒤늦게 발견됐지만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던 주민들에게 한국수력원자력은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극소수의 전문가들마저 한수원이나 정부에 원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세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평위원은 "우리는 원전과 밀접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원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긴 너무 힘든 것이 현실이다"며 "원전의 상시적인 감시와 조사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hj@newsis.com

"방사능 비 조심" 광주환경단체 시민캠페인



방사능 비 조심하세요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의 환경단체가 6일 오후 광주우체국 앞에서 방사능 비의 위험성을 알리고 반핵을 주장하고 있다. 2011.4.6. cbebop@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불교환경연대는 6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방사능 비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방사능 비의 위험성은 대기 중 부유 방사능 물질이 빗물에 달라붙어 내리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며 "특히 강우 초기의 빗물은 오염의 가능성과 농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사능 비에 대한 대응방안은 오직 피하는 것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비가 예보되는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우산과 비옷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 비를 맞은 경우 옷을 바로 갈아입고 오염물질을 씻어내야 하며, 비에 젖은 옷은 세탁해 외부에 말리고 우산과 비옷도 깨끗한 물로 씻어 실내에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일 광주.전남을 포함해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방사능 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cbebop@yna.co.kr

기후재난 기금 마련 '에코 아트페어'

20~27일 광주롯데갤러리

2011년 04월 19일(화) 00:00



광주 롯데갤러리는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0~27일 기후재난 기금 마련을 위한 '에코 아트페어'를 추진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전시에는 강남구·고근호·김영태·김정현·노정숙·류현자·문정호·박성배·박수만·박태후·서기문·송필용·신호운·오견규·우제길·이상옥·이정기·임남진·전병문·전정호·채종기·한부철씨 등 81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강남구씨는 원근법을 최대한 살려 손에 잡힐 듯한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하고, 송필용씨는 달과 매화가 어우러진 밤을 형상화했다. 또 박태후씨는 흐드러지게 꽃이 핀 가지 아래 병아리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단아한 작품을 내놨고, 채종기씨는 안정적인 화면 분할과 색의 조화를 강조한 작품을 전시한다.

한편 이번 아트페어의 수익금은 기후 재해로 고통받는 방글라데시 환경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062-221-1807.

/오광록기자 kroh@

광주환경단체, 영광원전 출력증강 철회 요구

| 기사입력 2011-08-11 16:07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영광본부가 영광 1,2호기 출력증강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한데 대해 환경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성명을 내고 "영광핵발전소 출력증강을 반대한다"며 "출력증강시 주민협의 후 시행해야 하는 행정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설명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영광원전은 12일 오전 11시 한전 영광지점 전력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핵발전소의 제1원칙은 안전"이라며 "설비 안전여유도를 떨어뜨리는 출력증강을 추진하는 것은 6만 영광주민과 329만명에 달하는 인접(반경 75km 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2005년 핵 반응로(일명 원자로)의 열 출력을 높여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하려고 영광 1,2호기 출력증강을 추진했지만 영광군과 군의회, 환경단체, 주민 등의 반발로 한때 추진을 중단했다.

영광원전은 사업을 재추진해 지난해 8월과 12월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areum@yna.co.kr

“벼랑 끝에 선 지구, 인류 문명 멸망은 시간문제”

레스터 브라운 소장, “내가 과장한다는 비판의 근거 없다”

(※ 레스터 브라운 소장의 강연 중 일부 표현은 그의 저서 '앵그리 플래닛' 을 토대로 한 기조강연집 내용을 사용했습니다)

입력 : 2011-10-14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 소장. (뉴스한국)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13일 오전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을 찾은 세계 3대 석학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 소장의 말은 단호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까지 날아와 지구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경고한 그는 인류가 기후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문명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GO글로벌포럼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식량 포럼'에서 브라운 소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연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며 작년 여름 러시아 서부를 강타한 열파를 예로 들었다.

2010년 6월 말 모스크바 서부를 휩쓴 이상고온현상은 8월 중순까지 이어졌고, 매일 300~40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수백만 헥타르의 삼림이 불에 탔고 주택 수천 채가 잿더미로 변했다. 열 스트레스와 매연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률이 수직으로 치솟았다.

이와함께 모스크바의 7월 평균 기온은 평년 수준보다 8도나 상승했다. 열파가 모스크바를 강타하는 사이 이 지역의 기온은 두 차례나 37.8도를 넘어서었다. 거대한 열기가 파도처럼 밀려들면서 곡물 생산량은 평상시 1억 톤에서 6000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세계 3위의 밀 수출국 러시아가 이상기온현상에 휘청거리는 사이 세계 밀 가격은 두 달 만에 60%나 치솟았다.

브라운 소장은 이 모스크바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로 한 지역의 사건이 세계 곡물시장을 어떻게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몇 년 전에 누군가 모스크바의 7월 온도가 평균에 비해 8도나 더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말도 안 된다’ 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철저히 믿고 있는 저의 상상 마저 초월한 일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기후변화가 사회를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례는 또 있다. 파키스탄 대홍수가 그것이다.

작년 7월 말 발생한 파키스탄 대홍수 당시 파키스탄의 5분의 1이 물에 잠기고 2천만 명 이상이 고통을 겪고 있다. 당시 2천명이 사망하고 주택 2백만 채가 무너졌으며 가축 100만 마리가 익사한데다 240만 헥타르의 경작지가 침수했다. 파키스탄 역사상 가장 큰 자연 재해라는 기록을 남긴 당시 홍수는 파키스탄 북부에서 쏟아진 폭우 때문이지만 숨은 원인은 더 있었다.

같은 해 5월 히말라야 산맥 서부의 눈과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폭우가 내리기 전 이미 인더스 강의 수량이 대거 늘어나 있었다. 그리고 2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미국 면적의 8% 규모에 모여 살면서 인더스 강 유역의 숲 90%가 사라져 빗물을 흡수할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파키스탄 전국의 식생이 헐벗어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토양이 침식하고 저수지 바닥에 흙과 모래가 쌓여 홍수 저장 능력이 떨어진 것도 이유였다.

브라운 소장은 “2010년 여름 러시아와 파키스탄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아갈 경우 우리 모두에게 닥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고 말하며 “기후학자들은 기온 상승이 더 많은 극단적인 기후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한참 전부터 말해왔다” 고 지적했다.

물 부족도 심각한 위기다. 브라운 소장은 대수층(빙하기가 지날 때 녹았던 물이 지하로 흘러들어 고여 있는 층)을 고갈시키면서 곡물 생산량이 인위적으로 늘어나다가 대수층이 사라지면 곡물생산량이 곤두박질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를 ‘식량 거품’ 이라고 하는데, 브라운 소장은 이 식량 거품이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대수층 고갈로 밀 수확량이 300만 톤이나 줄었고, 현재 최소 17개 나라가 지하수 과잉 양수로 식량 거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브라운 소장은 물로 인한 식량 거품이 언제 붕괴할지 알 수 없지만 물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식량 안보와 정치적 불안정을 우려했고, 이로 인해 세계 문명 자체가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브라운 소장은 살아남기 위해 인류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플랜B(위기극복을 위한 차선책)를 내놓았다. ▶ 2020년까지 지구 탄소 배출량의 80%를 줄이고 ▶2040년까지 세계 인구를 80억 명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빈곤을 퇴치하고 ▶ 숲과 토양, 어장 등 자연 부양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플랜B에 대해 브라운 소장은 “인류의 목숨이 여기에 걸려 있다. 지구의 목숨이 걸린 것이다. 지구는 우리보다 오래 존재하고 살아남을 것이다. 결국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는 셈이다. 과거에는 군사적 안보를 중심으로 사고하며 군사 기술에 투자했지만 오늘은 새로운 안보의 개념이 필요하다. 21세기 인류의 안보를 위협하는 첫 번째는 기후변화이고 두 번째는 인구의 증가, 세 번째는 물 부족, 네 번째는 식량가격 폭등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파탄국가의 증가다” 라고 말했다.

파탄국가는 환경 악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허약한 정부를 말한다. 인구가 많아지는데 경작지는 줄고 우물은 마르고 숲은 사라지고 토양은 침식하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기아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과정 속에서 통치력을 상실해 기본적인 국가 기능을 할 수 없는 나라를 의미한다. 현재 소말리아가 대표적인 파탄국가이며 이 밖에도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아이티, 파키스탄 예멘 등이 파탄국가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해마다 파탄국가의 목록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브라운 소장은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플랜B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려면 연간 2000억 달러(한화 231조 6천억 원)의 비용이 든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는 인류의 목숨과 비교할 때 큰 비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류를 버랑으로 몰고 가는 자연계 파괴와 기후 체계 교란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행동’이 가장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레스터 브라운 소장의 강연을 듣고 있는 청중 모습. (뉴스한국)

한편 브라운 소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 문명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과도한 예측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과장하는 것이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수메르 문명의 경우 관개 시설 설계에 환경적 결함이 발생해 토양 염분 농도가 증가했고 경작지의 염분이 늘어나 곡물생산량이 줄었고 기아가 확산해 문명이 붕괴했다. 이라크에 있는 수메르 문명지는 황폐하고 아무 것도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이다. 마야족도 마찬가지다. 제국이 팽창하면서 경작을 위해 삼림을 파괴했고 토양 침식이 일어나면서 식량 부족이 발생했다. 식량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싸우다 결국 마야족도 멸종했다”고 강조했다

브라운 소장은 또 “지난 40년 동안 환경변화, 문명변화, 삼림파괴, 지하수면 하락, 생물종 멸종, 온도 상승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인간은 어느 하나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없다.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문명이 멸망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제가 과장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옳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제가 과장한다고 비판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dew@newshankuk.com]

“광주야구장 친환경 더 욕심내라”

광주NGO센터서 저탄소 녹색 실현’ 위한 간담회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1-12-13



▲ 광주 새 야구장 조감도.

새롭게 들어설 광주 야구경기장(이하 광주경기장)을 저탄소 녹색 경기장’으로 만들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13일 광주NGO센터 대강당에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가계 전문가와 광주시 관계자·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 광주 경기장이 친환경 건축물로서 지역 시민과 융합된 장소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각 분야 관계자들에 의해 새로 건축될 경기장의 기본 방향과 새 경기장을 녹색야구장’으로 세우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친환경분야 설명을 맡은 EAN 테크놀로지 안병욱 이사는 “새 광주야구장이 친환경 건축물 평가에서 일반등급을 인정받았고, 이는 국내 스포츠시설에서는 최초”라고 설명했다. 또 “전열교환기, 지열시스템, 빗물 재이용 시설 등을 통해 일반 야구장 대비 36.6%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으며, 약 34톤의 탄소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어린 소나무를 약 2만1000그루 식재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적도 많았다. 동신대 손승광 교수는 “친환경건축물 평가 점수가 일반 등급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경기장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녹색기술 적용을 주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넓은 공간에 물 저장, 지열의 적극적 활용, 스타디움 지붕 활용 등을 통해 공공적인 부분을 더 욕심내고, 규모가 큰 건물이니 만큼 최대한 수명을 오래 갈 수 있게 수리, 보수가 쉽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대 김흥식 교수 역시 “새 광주야구장 에너지절약계획서의 EPI(에너지성능지표)점수가 65.4

인데, 이것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는 지적과 함께 “일반 야구장 대비 36.6%도 일반야구장의 기준이 모호해 객관적이지 못한 것” 이라고 꼬집었다.

저탄소 녹색경기장’ 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동신대 차인수 교수는 “현재 경기장 탄소배출을 줄이더라도 찾는 차량이 많아지면 탄소 저감효과는 줄어든다” 며 “대중교통 및 자전거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또 “천정 루프나 주차장에 할 수 있다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고 덧붙였다. 광주생명의숲 김경일 사무처장은 “경기장의 물 저장 공간 기능을 확대하고, 여유 공간엔 우수시설을 도입하는 것도 광주천과 주변 환경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의견과 함께 “경기장 주변 비오톱(생태환경) 조성 시 식재할 나무들이 탄소저감수증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경기장 자체만 보지 말고 지역 활성화와 연계된 도시 계획적 관심, 장애인·여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확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준비도 이뤄져야 한다” 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안서를 시에 제출해 저탄소 녹색야구장’ 건설을 위한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 환경聯 "영산강은 무한공사중"

기사등록 일시 : [2011-12-15 15:50:25]

【광주=뉴스is】 구용희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현장의 하상보호공 무법집과 호안 유실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12월 준공 목표는 결국 부실공사를 주문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당초 12월 준공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4대상사업 마스터플랜대로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과 향후를 진단하고 타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대로라면 현재 영산강공사는 다 마무리 되고 준공검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둔치와 자전거 도로, 제방도로, 배수로, 보호공 등의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또 영산강 역행침식 등 비정상적 침식이 반복중이고, 준설했던 곳이 재퇴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속도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영산강 역시 다르지 않다"며 "지난 10월 보 개방행사를 위해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위를 높인 영향으로 최근 마무리가 안된 호안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일부 구간의 경우, 호안의 붕괴가 아니라 자전거도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구간이다"며 "재퇴적 지적 역시 수량이 줄어들어 바닥이 드러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일부 구간의 하상보호공 문제 또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구간에서 나온 돌을 깔기위한 공사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ersevere9@newsis.com

영산강 둔치 골프장 추진 즉각 중단을" 광주환경운동연합

입력시간 : 2011. 11.25. 00:00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전남도와 나주시가 검토중인 영산강 둔치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골프장은 농지로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강 수질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골프장에 살포할 유해한 물질이 하천에 전방위로 유입돼 안전 문제에도 치명적이다"면서 "영산강 둔치 골프장 추진을 중단하고 죽어가는 영산강을 복원, 살리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골프장 추진은 정부가 4대강사업 이후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지게 될 지자체에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천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4대강사업인 영산강 사업이 준공되면 익산지방 국토청과 협의해 골프장 추진을 본격화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성수 기자 sskim1@jnilbo.com

“내복입고 따뜻한 겨울 보내요”

입력날짜 : 2011. 11.25. 00:00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내복입기 캠페인이 24일 상무역에서 열렸다. ‘내복을 입어요! 3도 상승’을 주제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반딧불이유치원, 에너지관리공단광주전남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기식 기자 pj21@kjdaily.com



4대강 사업 등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선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와 전남 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이 지역 주요 환경 현안 가운데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27일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4대 강 사업 영산강 공사로 인한 피해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 갈등 ▲후쿠시마 핵사고에 따른 방사능 공포 확산 ▲고흥, 해남군 핵발전소 후보지 신청 포기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감소 ▲지리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도시환경정상회의 광주시 개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청신호 ▲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광주시 총인 시설 등 관련 부실·비리 논란 ▲영산강 하구 독 저층수 배제시설 논란 등이다.

4대강 사업, 지구 온난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케이블카 설치 등은 지난해에 이어 10대 뉴스에 다시 뽑혔다.

난개발을 부추기는 규제 완화와 타당성 검증이 부족한 토목사업, 핵발전소 확장 정책이 강행되면서 논란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진단했다.

그러나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움직임과 세계 자연유산 등재 노력, 도시환경 정상회의 개최 등 소식은 지역 자연자원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환경 문제 해결의지를 보인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sangwon700@yna.co.kr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생활 수칙

1. 자연을 사랑한다
2. 검소하게 생활한다
3. 1회용품을 안쓴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5. 물을 아껴쓴다
6. 우리농산물을 애용한다
7. 쓰레기를 줄인다
8. 에너지를 절약한다
9. 남김없이 먹는다
10. 나부터 실천한다

정 관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전 문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광주환경공해연구회”는 89년 3월 17일 이 땅에서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공해, 그리고 핵을 추방하여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창립되었다. 또한 92년 2월 29일 “광주환경공해연구회”의 활동을 발전적으로 마감하고 높아가는 시민들의 공해추방과 환경보전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의 환경운동의 새로운 구심체로서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을 창립하였다.

‘93년 4월 29일 그 동안 환경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건설과 우리나라 민간환경운동의 전국조직 창립에 발맞춰 구조적으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파괴로부터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제3기의 민간환경운동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2000년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에서 명칭 변경)”을 창립하였다.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약칭 “광주환경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FEM Gwangju”라 한다.

제 2조(목적)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광주와 이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실) 본 연합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 4조(사업) 본 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경문제, 환경운동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문제의 대안정책 개발 및 제시
3. 환경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4.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
5. 환경오염 피해 주민의 지원·지지
6. 국내외 환경관련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연대
7. 기타 본 연합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자격)

1. 본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자격구분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조(의무)

1. 회원은 본 연합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 금액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권리)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본 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본 연합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제 8조(상벌)

1. 본 연합의 발전과 환경운동에 큰 기여를 한 회원, 시민 및 단체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장 총 회

제 9조(회의)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0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60일 한도 내에서 정기총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시 의장은 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 11조(성원) 총회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12조(의결) 총회 의결은 참석한 회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하며, 위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 13조(임무)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정관 제정 및 개정
- 2.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 3.공동의장 및 감사 선출
- 4.고문 추대 및 지도위원 위촉
- 5.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6.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제 4장 조 직

제 14조(임원) 본 연합 임원은 공동의장과 감사, 집행위원,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① 공동의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단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여야 한다.
- ② 감사는 2인으로 하고 본 연합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5조(임기)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6조(자문회의)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① 자문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하며 고문, 감사, 공동의장, 환경교육원장, 부설연구소 이사장 및 소장과 상임의장이 지명한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회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7조(고문) 본 연합은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상임고문을 둔다.

제 18조(지도위원) 본 연합은 본 연합을 지도할 수 있는 각계 지도급 인사를 지도위원으로 둔다.

제 19조(후원회) 본 연합은 본 연합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0조(환경상담실) 환경문제와 공해피해를 상담하고 환경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환경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1조(자료정보실) 환경관련 자료의 보급과 정보화를 위해 자료정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2조(환경교육원)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해 나가기 위해 환경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3조(부설기관) 본 연합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4조(상설위원회) 본 연합은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사업위원회, 회원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집행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5조(특별위원회) 본 연합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집행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6조(지역조직 및 회원모임)

- 1.본 연합은 지역조직과 각 부문에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 2.지역조직 및 회원모임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7조(사무처)

1. 본 연합은 총회 및 집행위원회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 5장 재정

제 28조(재정) 본 연합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재정위원회의 사업수익금, 후원회의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9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30조(예산 및 결산) 사무처장은 사업 및 예결산안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보칙

제31조(정치활동 제한) 본 연합의 임원과 부설기관의 장 등 주요 직책을 갖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제 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개정) 정관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20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 3조(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규정 및 준칙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1993년 4월 29일 제정

1996년 2월 8일 1차 개정

1997년 1월 21일 2차 개정

1999년 1월 26일 3차 개정

2000년 1월 21일 4차 개정

2001년 12월 27일 5차 개정

2004년 1월 13일 6차 개정

2007년 1월 25일 7차 개정

2009년 1월 20일 8차 개정

2011년 1월 20일 9차 개정

광주환경운동연합